

# 예술마을만들기 사업 전략 연구

2015. 2



## 제 출 문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본 보고서를 귀 재단이 의뢰한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 전략 연구』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연구진

연구책임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연구원	한소영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양희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김정화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심주영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배영욱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지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정화연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남소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이현경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 목차

## 01 과업의 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2 연구 내용 및 방법	5
1.3 연구 추진 경과	6

## 02 도시재생과 문화예술

1.1 도시문화전략	13
1.2 기존 도시문화전략의 이론과 그 한계	20
1.3 문화예술을 기반 한 도시재생의 쟁점	25

## 03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현황 및 관련 정책

1.1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현황	33
1.2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관련 정책 흐름	40
1.3 도시계획과 통합적 추진	46

## 04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사례연구

1.1 해외 관련 정책 사례 분석	61
1.2 국내사례분석	71
1.3 공동체 핵심 장치 도출	88

## 05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사업추진전략

1.1 사업의 개념 및 방향	91
1.2 지원전략	97
1.3 사업대상 및 선정 절차	102
1.4 중장기 발전 전략	109

## 부록 시범사업 대상지 검토자료

113

# 표 차례

〈표 2-1〉 도시재생 관점에서 문화예술의 목적과 내용 .....	14
〈표 2-2〉 문화전략모형별 의미와 실체적 내용 .....	19
〈표 3-1〉 조성 주요 목적에 따른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구분 .....	37
〈표 3-2〉 관련 정책들의 근거법령 및 집행 방식 .....	46
〈표 3-3〉 기존 도시재생정책과 문화예술활용형 도시재생정책의 비교 .....	55
〈표 4-1〉 공동체 핵심장치 .....	88
〈표 5-1〉 중장기 발전 전략 .....	111

# 그림 차례

〈그림 1-1〉 문화예술이 결합된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4가지 관점 .....	4
〈그림 1-2〉 연구 방법 및 내용 .....	5
〈그림 2-1〉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나친 목적성 .....	25
〈그림 2-2〉 이해관계자간의 상이한 목표 .....	26
〈그림 2-3〉 공공의 개입과 지원 .....	27
〈그림 2-4〉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예술성, 공동체성, 지역성 .....	29
〈그림 3-1〉 우리나라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형성 흐름 .....	35
〈그림 3-2〉 우리나라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분포 현황 .....	38
〈그림 3-3〉 우리나라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주요 특징 .....	39
〈그림 3-4〉 문화마을 조성 사업 흐름 .....	42
〈그림 3-5〉 창작 공간 조성 정책 흐름 .....	45
〈그림 3-6〉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	56
〈그림 3-7〉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체계도 .....	57
〈그림 4-1〉 이스트엔드 예술 시설들(갤러리, 전시관, 교육시설)의 입지 .....	62
〈그림 4-2〉 첫 번째 예술가 공동 .....	65
〈그림 4-3〉 〈그림 5-11〉 SPACE(Space Provision Artistic, .....	65
〈그림 4-4〉 ACME와 SPACE의 지침서(Help yourself to studio space) .....	66
〈그림 4-5〉 문래동 예술촌 위치도 .....	71
〈그림 4-6〉 서대문 닷라인 TV 위치도 .....	73

〈그림 4-7〉 서대문 전시 및 공연, 레지던시 운영 .....	74
〈그림 4-8〉 주민 창장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	74
〈그림 4-9〉 지역 네트워크 발굴 .....	74
〈그림 4-10〉 연남동 일대 위치도 .....	76
〈그림 4-11〉 연남동 일상예술창작센터 .....	77
〈그림 4-12〉 ‘의식주를 책임지는 생산기지’ - 생산과 소비의 문화적 소통 .....	78
〈그림 4-13〉 ‘대중과 예술이 소통하는 장’ - 주민과 예술가의 만남, 참여 .....	78
〈그림 4-14〉 어쩌다 가게 .....	79
〈그림 4-15〉 성북동 일대 위치도 .....	80
〈그림 4-16〉 성북동 갤러리 네트워크 .....	81
〈그림 4-17〉 공동사무실 ‘동네공간’ .....	81
〈그림 4-18〉 복합문화공간 ‘17717’ .....	81
〈그림 4-19〉 성북예술창작터 .....	82
〈그림 4-20〉 이태원 우사단길 일대 위치도 .....	83
〈그림 4-21〉 내부 예술가 네트워크 형성 .....	84
〈그림 4-22〉 우사단단 활동 .....	85
〈그림 4-23〉 청년장사꾼 활동 .....	85
〈그림 5-1〉 사업의 재정의 .....	92
〈그림 5-2〉 사업의 목표 .....	94
〈그림 5-3〉 사업의 주체와 역할 .....	98
〈그림 5-4〉 컨설팅 그룹의 역할 .....	101
〈그림 5-5〉 공동체 핵심장치 기술 .....	102
〈그림 5-6〉 선정 중심의 절차 .....	103
〈그림 5-7〉 퍼실리테이팅 실행 .....	106
〈그림 5-8〉 공모사업 실행 단계 .....	106
〈그림 5-9〉 관계론적 지원시스템 .....	108
〈그림 5-10〉 시범사업 잠재적 대상지 .....	108





# 01 연구의 개요



# 1

## 연구의 개요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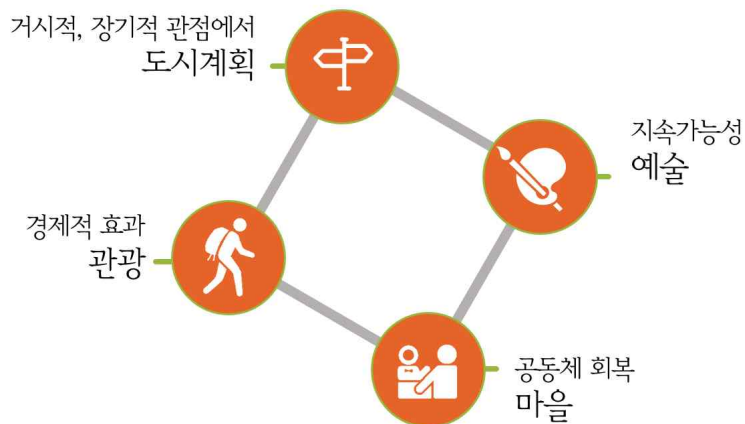
#### 1) 연구의 배경

-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예술가 공동체의 정책적 유입
  - 최근 낙후된 도심에 예술가 공동체를 정책적으로 유치하여 도시재생을 도모하는 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임. 예컨대 해외의 많은 도시들이 예술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런던의 이스트엔드, 뉴욕의 윌리엄스버그, 베이징의 다산쯔 등), 국내에서도 인천, 대구, 광주, 부산 등에서 침체된 도심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예술가 공동체는 경제적 측면의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업기능의 침투, 임대료 상승 등으로 문화예술기능이 오히려 축출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지역을 소재로 한 예술 창작 프로젝트’인 경우가 많음. 지역 연구를 기반으로 한 예술 프로젝트 사례도 일부 있지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경우는 드물
- “문화적 도시계획” 관점의 전략 도출 필요
  - 서울시 예술적 마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연구와 파생효과에 대한 예측 및 장기적 관점의 전략이 요구됨
  - 문화를 활용한 재생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과정자체를 문화적 도시계획으로 전환하는 전략 필요

## 2) 연구의 목적

- 문화예술이 결합된 도시재생 측면에서 ▲도시계획(거시적, 장기적 관점에서) ▲예술(지속가능성) ▲관광(경제적효과) ▲마을(공동체 회복) 4가지 관점의 정책 고려

– 도시공학 관점의 도시재생이 아닌, 예술+마을+공동체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삶의 터전으로서의 도시(지역)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서울시 예술마을사업의 전략 도출



〈그림 1-1〉 문화예술이 결합된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4가지 관점

- **서울시정으로 예술마을 사업 수행 시 적절한 모델 발굴 정립**
  - 예술마을사업에 적절한 사업 개념 및 목표 설정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공의 지원이 결합하여 예술과 마을이 공존하는 예술적 마을 만들기 지향
- **2015년 시범사업 수행 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
  - 희망시정 2.0에 적절한 〈예술촌 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차후 사업 시행의 기반이 되도록 함

## 1.2 연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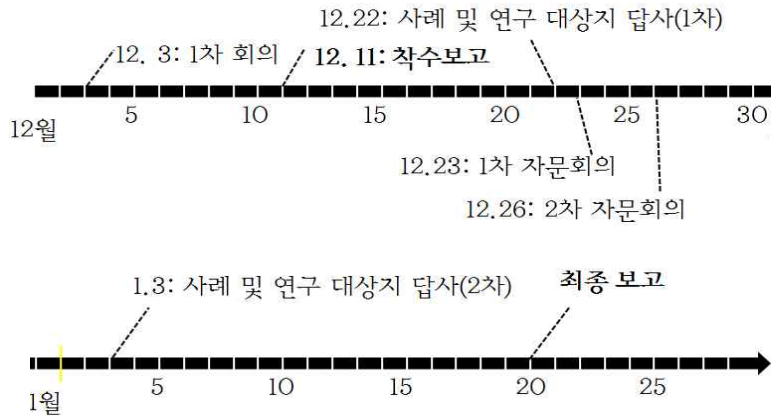
- **(전략연구) 문화적 도시계획 관점에서 관련 사업 전략 정리**
  -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지역)만 들기가 가능하도록 통합적 전략 연구
- **(사례분석) 기존 공동체 사례 분석**
  -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술(가)”가 결합된 마을사업의 사례연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기존 사례의 장단점, 특징, 성과, 문제점, 유형 등 종합 정리
  -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의 선제 조건,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모색 및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 사례, 유형 분석
- **(실행전략) 2015년 서울시 예술마을사업 시범 실행을 위한 기초 조사**
  - 예술마을 사업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 미션과 비전을 도출한 후, 사업 선정대상, 기준 및 절차, 지원의 체계 및 내용, 컨설팅 및 평가의 원칙과 방법 등을 포함한 발전 및 지원방안 제시
  - 연구를 통해 제안된 전략을 적용하여 2015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비 대상지들에 대한 현장 조사 (주요 문화자원 및 현황 등)



〈그림 1-2〉 연구 방법 및 내용

## 1.3 연구 추진 경과

### 1) 연구 추진 내용



### 2) 자문회의 내용

#### ① 자문회의 추진 내용

1차 자문회의	
일시	2014년 12월 24일(수)오전 10~12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초청 전문가	권민(유니타스), 라도삼(서울연구원), 홍주석(어반플레이) 윤현옥(aec 비빔팜), 최정한(공간문화센터)
2차 자문회의	
일시	2014년 12월 26일(금)오후 4~6시
장소	서울문화재단
초청 전문가	박신의(경희대학교), 유다원(숙영원), 남동훈(성미산 동네 연극 축제) 김윤진(서울댄스프로젝트), 김설하(감자꽃 스튜디오)



## ② 자문위원별 주요 자문 내용

유니타스_권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목 가게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브랜드화하고,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필요</li> <li>• 예술가와 브랜더(상품을 브랜드화 하는 기획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쇼룸)이 부족함</li> <li>• 지역 예술가, 상인, 지역주민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시스템 마련 필요</li> </ul>
서울연구원_라도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사업 추진방식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li> <li>• 기존 사업들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연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li> <li>• 성공한 예술적 마을(동피랑, 감천 마을)의 경우 ‘경사로’라는 경관성이 우수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li> <li>• 경관성이 우수한 백사마을, 산새마을과 같은 지역을 선정하되 잠재력을 가진 주민주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함</li> </ul>
어반플레이_홍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남동 예술가 그룹(공방, 작업실, 게스트하우스 운영)의 경우 상업성을 띄고 있으며,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임</li> <li>• 이화동 벽화마을의 경우 마을 안에 셋대 박물관장이 만든 마을 박물관과 같은 거점공간이 들어서면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짐</li> <li>• 이는 커뮤니티 코어 공간 조성과 지역 경제 활력 부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음</li> </ul>
aec 비빔빔, 판_윤현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 ‘예술가’라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제기</li> <li>• 레지던시, 스튜디오, 벽화 등 예술을 정치·완성된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대상으로 바라봐야 함</li> <li>• 공동체 안에서 예술이라는 것은 정제된 공동체에 들어가는 ‘바이러스’와 같으며, ‘낯선 사람’ 효과를 일으킴</li> <li>• 기존 예술가들 간의 네트워크, 콤플렉스를 구성하는 것에 공공이 개입해야 함</li> </ul>
공간문화센터_최정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남동 지역은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이 진행된 곳으로 이 사업 대상지로 적절치 않음</li> <li>• 장소기반의 욕망이 모이는 지역에서 공공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필요</li> <li>• 기존 지역주민을 예술가와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li> </ul>

경희대학교  
문화예술  
경영대학원  
박신의

- 기존 창작공간 지원사업, 공공미술 지원사업 등과의 차별성이 반드시 필요함
- 지역에서 자생적이며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파악하여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주어야 함
- 지역주민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함  
:이화동 지역주민들은 예술가들이 유입된 이후의 부작용으로 인해 문화예술인에 대해 적대적 감정이 있을 정도며, 이는 짧은 기간 동안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실행 되었을때 지역의 갈등을 야기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줌
- 사업의 결과를 양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본의 형성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모기동 숙영원  
유다원

- 지역에 대해 진정한 소명의식을 가진 예술가 및 기획가를 발굴하여 지역주민과 예술가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사업의 유형을 시범사업과 공모사업으로 나누어 전략을 도출해야 함
- 시범사업 - 관광지화하여도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공모사업 - 지속적 삶터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
- 지역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예술가가 지역주민을 만나고, 지역의 진정한 매력과 필요한 공간을 찾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성미산동네  
연극축제  
남동훈

- 지역주민과 예술가가 주축이 되며, 행정이 이를 지원해주는 구조로 나아가야 함  
: 지금까지 예술마을 관련 프로젝트는 행정(도시계획)과 자본(관광)의 힘으로 진행되어 왔음
-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화가 되는 것을 지켜보고 적절한 시기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
- 기획/활동/문화매개자 등의 역할을 하는 문화기획자가 정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지원해 주어야 함
- 지역주민은 오랫동안 지켜 봐주는 과정이 있어야 스스로 움직이게 됨 (ex. 성미산 무말랭이 주민연극 동아리: 6년의 기간)

- 
- 시민은 지역단위보다는 개인이 가진 취향(ex.춤) 등으로 유동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함
  - 서울댄스프로젝트\_김윤진
    - 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삶과 사회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산은 주거지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자원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시범사업 대상지로 적절함
- 

- 감자꽃스튜디오\_김설하
    -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된 지역보다는 자생적 움직임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하여야 함
    - 꼼꼼하고 섬세한 사업프로세스의 디자인이 요구됨
- 

### ③ 주요 내용

#### • 기존 사업의 재평가 필요

- 기존 사업에서 공공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으며,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 평가 필요

#### •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예술가와 지역주민 사이에서의 매개역할
-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된 지역에서의 제어 역할
- 예술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의 네트워크 코어 역할
- 연계 가능한 기관간의 긴밀한 교류, 협력 필요

#### •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필요

- 단순히 마을/장소를 중시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제성을 높이고 시스템/생태계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 ex) 유니타스 골목대학: 골목상인들 상품의 브랜드화, 쇼케이스 지원
- 상품의 브랜드화, 홍보, 마케팅, 판매를 지원하는 시스템 지원



## 02 도시재생과 문화예술





# 2

## 도시재생과 문화예술

### 1.1 도시문화전략

#### 1) 도시재생 수단으로 도시문화전략의 부상

- 예술가 공동체를 지원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전략이 국내외에서 시도되고 있음
  - 문화 혹은 문화적 활동(cultural activities)이 도시정책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최근의 일로 이전에는 사회과학 이론이나 정책현장에서 오랫동안 경제활동의 부산물이나 잔여 범주로 취급되어왔음
  - 도시정책에서도 문화는 다른 경제활동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문화적 활동은 미래지향적이기 보다는 과거지향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음.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문화적 시설물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었지 그 자체로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인식되지 못함
  - 하지만 최근 문화경제(cultural economy)<sup>1)</sup>가 도시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도시성장 및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도시문화전략이 도시정책의 큰 흐름으로 대두
  - 해외의 많은 도시들이 예술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런던의 이스트엔드, 뉴욕의 윌리엄스버그, 베이징의 다산쯔 등), 국내에서도 인천, 대구, 광주, 부산 등에서 침체된 도심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1) 세계 문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10년 1조 4천억 달러이며, 2015년 1조 8,7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한국의 문화산업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세계시장의 2.4%에 불과함(PWE, 2011.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1-2015).

## 2)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의 관계

- 문화란 흔히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예술품으로 인식되기 쉬움. 하지만 문화는 당시의 시대정신이나 삶의 방식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문화의 일부이기는 하나 전부는 아님. 문화는 단순히 유형의 물적인 대상만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활동이나 과정을 창출
- 유네스코(UNESCO, 1982)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문화란 한 사회나 집단을 특징짓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징을 말한다고 한다. 부연하면 문화는 어느 사회나 집단의 총체적 삶의 방식임. 이렇게 총체적 삶의 방식으로 정의되는 문화는 경제적이건 비경제적이건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포괄함(김한배, 1997 : 7).

〈표 2-1〉 도시재생 관점에서 문화예술의 목적과 내용

목적	내용
경제적 쇠퇴의 해결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li> <li>- 문화산업 발전으로 투자와 자본의 유입</li> <li>- 지역 문화소비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li> </ul>
정치적 표현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 수단</li> <li>- 소외된 계층에 표현의 기회를 제공</li> <li>- 접근성이 양호하며 보다 안전한 공간 창출에 기여</li> </ul>
공익실현의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적 활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킴</li> <li>- 사회적 통합의 수단</li> <li>- 교육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수단</li> </ul>
환경개선의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 친화적 성향</li> <li>- 공간을 미화시킴</li> <li>-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li> </ul>
비즈니스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상품으로서 문화</li> <li>- 문화는 브랜드 창출에 기여</li> <li>- 엔터테인먼트로서 문화</li> </ul>
상징으로서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상징적인 개발과 이벤트</li> <li>- 장소성과 정체성을 제공</li> <li>-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형성</li> </ul>
일상생활로서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인 삶과 추억으로서 문화</li> <li>- 매일 일어나는 활동으로서 문화</li> <li>- 휴식과 레저로서 문화</li> </ul>

출처 : Smith, 2010 : 26, 재작성

- 도시재생을 포함하는 지역개발에 문화가 지니는 의미는 크게 도구적 성격과 환경적 성격으로 나눌 수 있음
- 도구적 성격은 문화 자체가 산업이 되는 관점에서 문화의 역할을 파악한 것으로, 여기에는 문화산업이 가장 대표적이며, 문화산업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임
- 환경적 성격은 지역발전의 환경측면에서 문화를 파악하는 것으로 문화가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여가, 휴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 창의성, 감성 등의 발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의 발전과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관점
- 특히 지역발전에 대한 문화의 도구적 사용을 문화라는 무형적 자원을 조작적으로 사용하는 것, 문화 활동 자체를 산업화하는 것, 주어진 장소에서 문화적인 유형의 산물을 경제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의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함

### 3) 도시재생과 관련된 문화전략의 유형

- 도시들이 사용하는 문화전략은 도시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위하여 채택할 수 있는 문화전략은 다양함
- F. Bianchini(1993), R. Griffiths(1995), 그리고 G. Evans(2004) 등은 몇 가지 관점에 따라 이러한 문화전략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한 바 있음. 즉, 도시정부가 도시발전을 위해 어떠한 문제를 인식하고 또한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문화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다양한 문화적 장르 중에서 어떤 것을 채택하는가, 그리고 문화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간적 범위와 대상은 어디인가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있음
- 문화전략모형을 정책적 우선순위(political priority), 문화분야에 대한 인식(conception of the cultural domain) 및 대상공간(spatial emphases)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음(Griffiths, 1995)

## • F. Bianchini의 문화전략모형

- F. Bianchini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도시정부가 채택하는 문화전략을 문화생산모형(cultural production oriented strategies)과 문화소비 모형(cultural consumption oriented strategies)으로 구분(F. Bianchini, 1993). 이는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 활동 중에서 도시정부가 어떠한 활동에 역점을 두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문화생산모형은 전문화된 기술과 하부구조시설을 필요로 하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전략적 지원을 하는 것을 뜻함. 창조산업은 개인의 창조성, 기술과 재능에 기반을 둔 산업으로 지적 재산을 개발하여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sup>2)</sup>. 예를 들면 광고, 건축, 민예품, 디자인, 패션, 영화, 비디오,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게임 등이다. 영국 맨체스터의 북부지구(Northern Quarter)와 웨필드의 문화산업지구(Cultural Industries Quarter)가 관련되는 사례임<sup>3)</sup>
- 문화소비모형은 관광, 쇼핑, 호텔 및 케이터링 등을 진흥하기 위한 요소로서 도시문화적 매력과 활동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전략임(F. Bianchini, 1993). 선도기반시설(flagship infrastructure) 설치나 대규모 이벤트 개최와 같이 여러 형태의 투자로 지원되는 소비기반전략(consumption-based strategies)을 뜻함
- 도시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중산층, 첨단지식산업 노동자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이미지를 개발하고자 함. 문화활동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판매 가능한 자산이며 문화의 매력적인 이미지는 후기산업사회의 또 다른 성장 산업인 관광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것임

2) [http://www.culture.gov.uk/what\\_we\\_do/creative\\_industries/default.aspx](http://www.culture.gov.uk/what_we_do/creative_industries/default.aspx)

3) <http://www.labforculture.org/en/content>

- R. Griffiths의 문화전략모형

- R. Griffiths는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문화전략으로서 주민통합모형(integrationist model), 문화산업모형(cultural industries model), 도시선전모형(promotional model)의 세 가지로 들고 있음
- ‘주민통합모형’은 문화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도시에 대한 자긍심과 연대감을 갖도록 하는 전략이며, 여기에서 문화사업(cultural project)은 주민의 사회적 삶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정체성과 도시에 대한 공속감을 상기시키고, 더욱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영역을 창출하며, 도시생활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핵심적 요소로 활용됨
- ‘문화산업모형’은 부의 창출을 위한 중요한 형태로서 문화적 산물의 생산과 확산에 주목하는 전략임. 시청각산업, 출판, 패션디자인과 같은 상업적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도시성장과 도시에 대한 독특한 친근감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임. 이 모형은 영국에서 도시혁신세력에 의한 경제구조개편 방안의 하나로 출현하였으며 주민통합모형과는 달리 반드시 공간적인 대상에 중점을 두지는 않음
- ‘도시선전모형’은 예술을 도시판촉(city marketing)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미국의 도시선전주의(city boosterism)에서 출현한 모형이지만, 이후 많은 유럽도시들이 지속적으로 수용하여 왔음. 이 모형은 예술의 소비를 통해 관광객을 유인하고, 경영 및 정주환경의 질을 강조함으로써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사람들을 일과 후 도시에 머물게 하는 동시에, 문화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용도개발(mixed-use development)과 문화지구(cultural district) 형성 등을 통해 재생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 에반스(Evans)의 문화전략 모형

- 문화와 도시재생과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에반스(Evans)의 문화 전략 모형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데 그는 문화선도모형(culture-led regeneration), 문화통합모형(cultural regeneration), 문화분리모형(culture and regeneration)으로 구분함. 이러한 구분은 문화활동이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도시재생과정에 개입되는가를 기준으로 함
- ‘문화선도모형(culture-led regeneration)’은 문화활동이 도시재생의 촉매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임. 공공용도 혹은 복합용도 건물의 건설, 활용도가 떨어지는 오픈스페이스의 재개발, 특정한 장소를 명소화하기 위해 이벤트, 축제 등과 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도입이 대표적임. 공공성을 중요시하나 가시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에 있어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특징이 있음
- ‘문화통합모형(cultural regeneration)’은 문화활동이 사회, 경제 부문의 활동과 전략적으로 연관되는 유형임. 장기 지역발전전략으로 문화전략을 추구하고 경제, 사회 등의 다른 분야와 통합 되는 문화사업을 실시함
- ‘문화분리모형(culture and regeneration)’은 문화활동과 프로그램이 도시재생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시설입지 측면에서도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점적인 특성을 보임(Evans, 2005 : 967 - 969 ; 계기석, 2010 : 180-181, 재인용). 문화활동과 도시재생에 대한 책임부서가 분리되어있거나 어느 것이 우선적인 정책분야인지 모호한 경우로, 이러한 모형은 대체로 기존의 비즈니스 파크에 공공예술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이미 정비된 산업단지 내의 한 부분에 지역역사박물관을 설치하거나 하는 등 비교적 소규모적임
- 에반스(Evans)가 제시한 문화전략모형 중 문화통합 모형(cultural regeneration) 혹은 문화적 도시재생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해당 도시의 여건이나 문화의 인식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표 2-2〉 문화전략모형별 의미와 실체적 내용

연구자	구분관점	모형	의미	실체적 내용
F. Bianchini	도시정부가 중점을 두는 문화활동분야	문화생산 모형	창조산업에 의한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적인 기술과 기반시설을 요하는 창조산업을 대상으로 함</li> <li>지역 내 고용 및 부가가치의 증대를 위한</li> <li>실질적 수단이 됨</li> </ul>
		문화소비 모형	선도기반시설(flagship infrastructure) 이나 이벤트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 도시시설 또는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li> <li>국제이벤트 또는 지역축제의 지속적 개최</li> </ul>
R. Griffiths	정책적 우선순위, 문화분야에 대한 인식, 대상공간	주민통합 모형	문화사업을 통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b>자긍심과 연대감 확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연대감과 귀속감 조성을 위한 시민축제 개최</li> <li>주민 공공공간의 조성과 특정공간에 대한 명소화 사업 실시</li> </ul>
		문화산업 모형	문화적 산물의 생산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산업을 도시의 전략적 육성분야로 설정</li> <li>문화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li> </ul>
		도시선전 모형	도시판촉(city marketing)의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징적인 도시브랜드의 작성 및 활용</li> <li>국제이벤트 또는 지역축제의 지속적 개최</li> <li>집객효과가 큰 상업시설, 공공시설의 설치</li> </ul>
G. Evans	문화활동이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방법	문화선도 모형	문화활동이 도시 재생의 동력이자 촉매제로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발전을 위해 문화분야를 우선분야로 선정</li> <li>차별화되는 복합용도 건물의 건설, 워터프런트·엑스포 부지 등과 같은 오픈 스페이스의 재개발</li> <li>특정한 장소를 명소화하기 위한 예술축제·이벤트·공공예술계획</li> </ul>
		문화통합 모형	문화활동이 환경, 사회, 경제부문에서 다른 활동과 함께 전략적 분야로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 지역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문화전략 추구</li> <li>경제, 산업, 사회 등의 다른 분야와 통합되는 문화사업 실시</li> <li>의도적으로 특정지역의 재생을 위해 문화활동 추진</li> </ul>
		문화분리 모형	문화활동이 빈번하나 독립적, 개별적으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활동이나 문화공급이 도시재생계획과 직접 연관되어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시행</li> <li>문화시설이 공간적으로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점적인 입지 특성을 보임</li> </ul>

## 1.2 기존 도시문화전략의 이론과 그 한계

### 1) 장소마케팅이론

-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이론은 특정 장소(도시나 지역)를 상품화하여 지역의 경쟁우위를 도모하는 전략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장소 이미지의 ‘판매’를 통하여 지역 내부로의 자본투자와 고용창출을 도모하며,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도시발전이론임(Kearns and Philo, 1993)
- 장소마케팅 이론은 장소와 세계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기반하고 있음. 장소마케팅 이론은 세계화가 초래한 장소(도시)의 위기에 대응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기능의 영역화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이를 판촉하는 전략임(김현호, 2003). 특정 장소가 갖는 고유한 자산이 대체 불가능할수록 세계자본주의에서 그 지역의 경쟁력은 높아짐. 이렇게 해서 지역 특수적인 요건, 문화 및 정체성을 향한 경쟁이 나타나게 됨

#### • 장소마케팅에 관한 비판적 논의

- 장소마케팅이론과 관련된 논점은 다양함. 우선 장소성이 과연 창조되거나 모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따르면 장소성은 문화적 관습, 신뢰의 수준, 역사적 경험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다른 지역에 이식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님을 지적함
- 한편 장소의 판촉은 기본적으로 장소성의 상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문화의 왜곡과 변형이 초래 된다는 지적도 있음. 장소의 상품화 과정에서 특정계층이 소외되고 그에 따라 지역 사회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Kearns and Philo, 1993; Ward, 1998)
- 또한 모든 장소가 ‘상품’으로서 매력적인 자산을 가질 수는 없으며, 따라서 장소마케팅은 일부 성공적인 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라는 비판도 있음. 즉 승자를 위한 이론이지 모든 도시를 설명하거나 모든 도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니라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장소마케팅의 정책적 가능성**

- 비판적인 견해도 존재하지만, 최근에 장소마케팅과 관련된 연구들은 장소마케팅적 접근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정책적 가능성을 긍정하는 편임(Kotler, Haider and Rein, 1993; Gold and Ward, 1994).
- 최근 연구들은 어떻게 장소 마케팅이 가지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음. 장소의 상품화 과정이 초래하는 문제가 있지만 장소자산이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고 그 개발과정이 지역사회의 동의에 기반하고 있다면 지역 발전에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특히 지역주민이 장소와 일체감을 느끼고 지역발전의 효과가 지역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발전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선도개발(flagship development)**

- 장소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규모의 문화시설 건설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전략임. 소위 선도개발(flagship development)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가장 명암이 분명한 장소마케팅 전략이자 도시개발전략임
-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런던 템즈 강변의 테이트모던, 로스앤젤레스의 디즈니콘서트홀 등이 모두 이러한 예에 해당함. 빌바오의 성공사례는 소위 ‘구겐하임 효과(Guggenheim effect)’ 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전 세계의 도시정책가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언제나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는 빌바오와 같은 효과를 염두에 두고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로 시도하였으나 엄청난 건축비와 반대여론으로 포기한 바 있음
- 선도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데에 있음. 대규모의 문화시설은 초기 많은 건축비가 소요되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을 초래함. 그러나 어느 정도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움(Bailey, Miles and Stark, 2004)

## 2) 창조계급 · 창조도시론

- 창조계급, 창조도시론은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와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두 사람의 연구에 연원을 두고 있음. 랜드리는 2000년 「창조적 도시 : 도시혁신을 위한 도구(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라는 저서를, 플로리다는 2002년 「창조계급의 부상(The Rise of Creative Class)」을 발간하였고, 이 두 저서는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21세기 도시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
- 플로리다는 현대경제의 새로운 담당자로서의 ‘창조계급(Creative Class)’의 등장과 발흥에 주목했으며, 여기서 창조계급이란 과학, 기술, 건축, 디자인, 교육, 예술, 음악, 오락 등의 창조적이고 지식 집약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함<sup>4)</sup>

### • 창조계급론의 도시 정책적 함의

- 새로운 시대의 도시발전은 창조계급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창조계급론의 핵심 내용이며, 창조계급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과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즉 창조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 활성화의 열쇠로 제시하고 있음
- 랜드리와 플로리다는 창조적 도시환경의 조건으로 일곱 가지(개인의 자질, 의지와 리더십,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의 접근성, 조직화된 문화, 지역경제성, 도시의 공공공간과 시설, 네트워킹의 동태성)를 제시함
- 이 중 상당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지만 일부 하드웨어적인 도시 시설도 강조되고 있음(Laundry, 2000)
- 하드웨어적인 창조환경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도시의 공공공간과

4) 플로리다는 창조도시를 ‘경제발전의 3T’, 즉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았으며, 여기서 관용성은 개방성, 포용력, 다양성 등을 의미함. 관용성을 가진 도시는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유인하며, 지식의 흐름을 가속화하여 궁극적으로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어낸다고 주장함. 플로리다는 도시의 이러한 창조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창조계층의 비율, 혁신지수, 하이테크지수, 다양성지수로 구성된 창조지수를 제시하고 있음. 플로리다가 미국 도시의 창조지수를 평가한 결과, 상위에 위치한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샌디에고, 보스턴, 시애틀 등은 실제로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경제적 활력이 있는 도시와 일치했음. 이처럼 그는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도시와 지역이 경제적 성취가 뛰어나다는 것을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제시하고 있음

다양한 문화시설임. 공공공간은 혁신환경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특히 도심의 공공공간은 서로 다른 생활 방식, 연령층, 사회계층, 종교와 인종이 비공식, 비계획적으로 혼합되고 뒤섞이는 장소임

-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시설을 가진 장소는 창조적 인재들이 창의성과 영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또한 고유한 문화거점으로서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기도 함 (이희연, 2008)
- 단순한 해석만큼이나 이 창조계급/창조도시론은 도시정책가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과적으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창조도시’를 정책 목표로 추구하도록 만들었음. 특히 아시아의 오슬랜드, 시드니, 홍콩, 싱가포르 등의 도시에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함
-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살펴볼 수 있음. 서울시는 2008년 창의 문화 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으며, 부산시는 시행정부서로 창조도시본부를 설치하고 원도심과 부도심의 창조적 재생을 도모하고 있음. 광주시는 2001년 6월 ‘녹색창조도시’를 선언하고 5개년계획과 10대 실현과제를 발표함. 고유자산으로 특화된 도시들도 저마다 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전통음식문화 창조도시’, 울산시는 ‘산업생태 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음

### 3) 기존 이론이 한계와 문제점

#### • 장소마케팅과 창조계급론의 공통점

- 장소마케팅이론과 창조계급론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도시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두 이론은 지역발전의 동인을 모두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즉 이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내생적 발전이론이 아니라 외생적 발전이론임

- **내부가 아닌 외부에 맞춰진 전략의 목표**

- 장소마케팅이론이 지향하는 발전전략은 지역의 고유성을 부각시켜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를 관광객 유치와 지역상품 판매에 활용하는 것임. 따라서 전략의 초점이 지역사회 내부보다는 외부의 관광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맞추어지게 됨. 전형적인 장소마케팅 전략 중 하나인 대규모의 문화시설 개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임. 문화시설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그 대부분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겨냥한 것임(Zukin, 1995)
- 이는 창조계급론도 마찬가지임. 창조계급론의 핵심적 공간 전략은 창조계급을 유치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비록 최근 ‘창조도시’의 의미가 진화하면서 창조산업의 역량강화와 지역자산의 활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지만, 창조계급론의 도시 정책적 함의가 글로벌 인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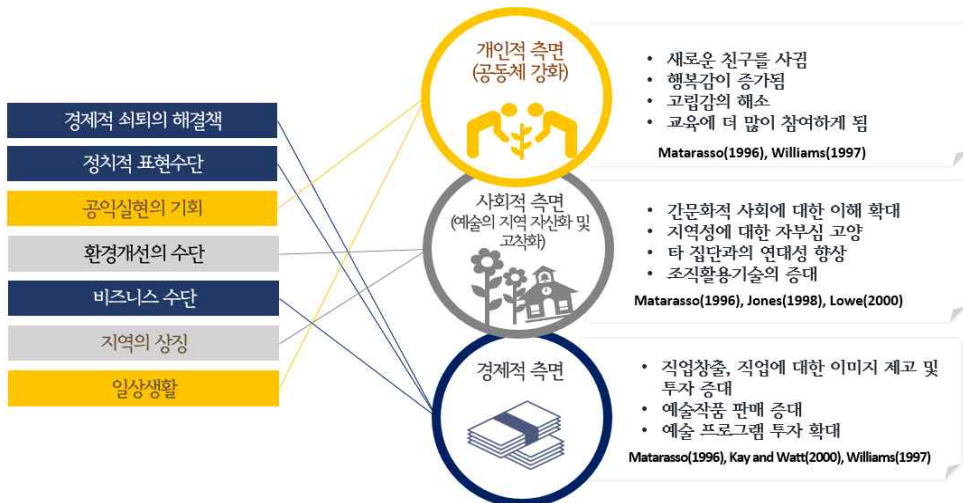
- **장소의 상품화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가 갖는 취약성 부각**

- 이 이론들은 경제의 세계화에 순응하는 지역만이 발전하고 그렇지 못하면 쇠퇴한다는 도시 간 경쟁논리를 반영하고 있음
- 장소마케팅 이론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장소의 상품화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화, 역사, 생태가 변형되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임. 도시의 발전을 외부요인에 의지하는 발전 전략은 불가피하게 지역사회의 교란을 초래하고 도시문화전략의 결과로 인해 계층적 격차가 커질 수 있으며, 저소득층이 지역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 플로리다의 창조계급에 대해서도 그 동안 많은 비판이 이루어짐. 만약 플로리다의 전언이 이들을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욱 옹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도시사회는 필연적으로 교란될 수밖에 없으며, 정책의 결과로 부유한 사람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도시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1.3 문화예술을 기반 한 도시재생의 쟁점

### 1)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나친 목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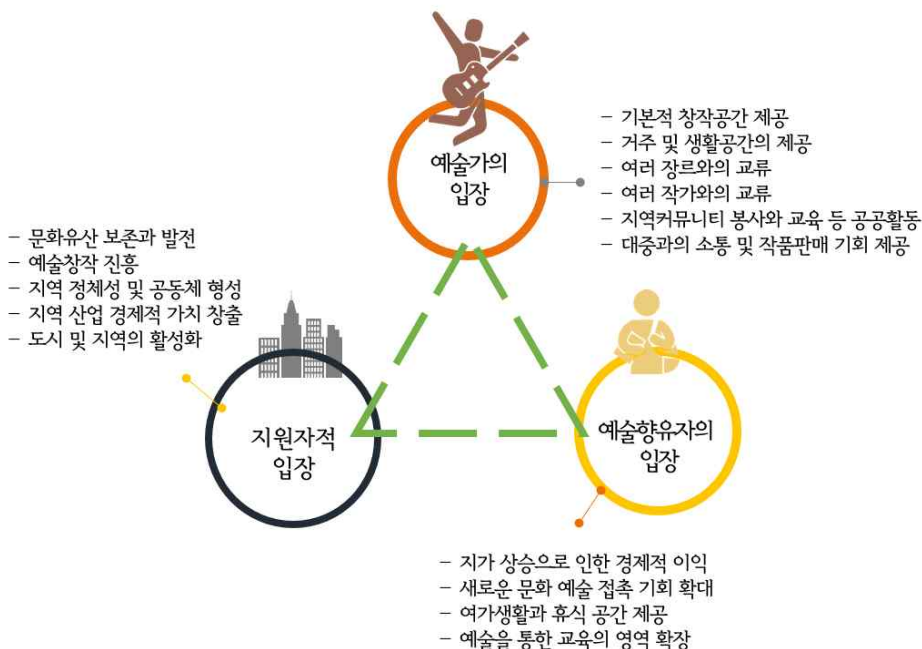
- 도시재생에 있어 문화예술의 역할은 문화예술의 다양한 의미만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개발형태가 결정됨. 정책당국은 도시경제여건, 국내외 도시의 성공사례, 자치단체장의 정책 등을 고려한 개발형태를 선호하는 반면, 지역주민은 거주지와 지역성에 기반으로 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형성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음(정진원, 김천원, 2012 : 66)
- 도시재생과 문화예술의 관계에서 문화예술이 늘 바람직하게 적용된 것은 아님. 문화예술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다양성을 반영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도구가 아닌 경제적 목적을 위해 표준화된 상품이 됨(Smith, 2010 : 35)
- 이제까지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예술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적 목적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사업목표 지향적인 도시재생사업은 정량적인 측면에 치중함. 반면에 장소성, 정체성, 개인의 삶과 추억, 일상생활로서 문화와 같은 추상적이지만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이 되는 정성적인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Smith, 2010 : 26)



〈그림 2-1〉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나친 목적성

## 2)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이한 목표

- 이제까지 추진된 관련 사업들의 경우 정책 지원자 입장에서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정성적 측면 보다는 경제적 지표 중심의 정량적 측면만을 중요시 함
- 특히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가 부가되면서 한편으로는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이나 복합문화공간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관련 사업들이 진행됨. 하지만 여전히 작가들은 공모에 의한 단기 입주 형식을 유지하고 있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역시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 도시재생에 대한 과도한 기대치로 인해 정책 타당성이 외부 효과에 치중하면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한계는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는 당초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았고 문화와 예술은 개발을 위한 수단이 됨. 이는 결국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까지 야기하는 문제를 발생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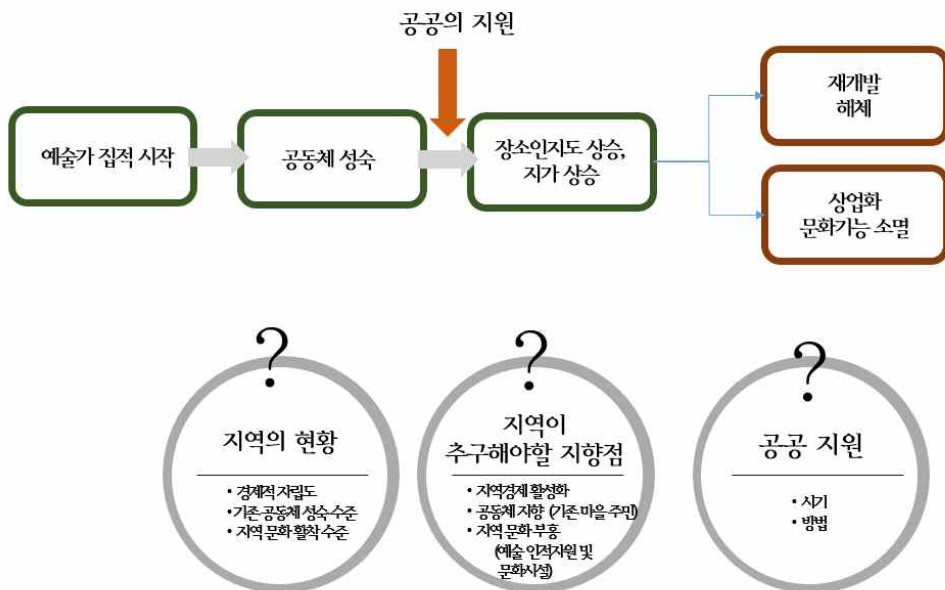


〈그림 2-2〉 이해관계자간의 상이한 목표



### 3) 공공의 개입과 지원

- 대규모의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선도개발은 지역사회의 교란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음. 반면 예술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의 정책지원은 급격한 지역 사회변동 없이 장기적인 사회적 효과를 나타내게 됨
- 자생형 커뮤니티의 경우도 공공의 개입과 지원이 시작되는 순간 과도한 상업화, 유사한 개발형태 확산, 지역특성 소멸, 커뮤니티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김새미, 2010 : 35).
- 공공의 성급한 개입과 지원, 문화와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과 성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문화와 예술을 동원한 상품성에만 중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공공은 지역의 현황과 지역이 추구해야할 지향점을 파악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성숙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에 지원이 필요한지와 불필요한지를 선별하고, 지원을 시작하게 될 경우 어느 시점에 어느 규모로 할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그림 2-3〉 공공의 개입과 지원

#### 4) 지향해야 할 가치5)

- 예술성

- ‘예술성’은 문화예술을 통해 감성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인정 및 소통을 활성화시킴. 예술이 매개하는 공동체는 합의나 입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공공성이 합의가 아닌 담론의 풍부함을 지지하는 것과 같음. 미적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타인에게도 아름다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어떤 감정을 소통하기 위한 감성공동체는 앞서 살펴본 친밀의 공간에서 그랬듯이 새로운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음

- 공동체성

- ‘공동체성’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공적이고 정치적인 주체로 스스로를 재설정하는 것, 즉 시민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일컫음<sup>6)</sup>. 즉 문화예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성을 육성하게 하는 것임
- 이때 문화예술은 “창조적인 활동인 동시에 공동체성을 생산하는 활동, 즉 정치적인 동시에 개인들의 관계를 매개하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실천(심보선, 강운주, 전수환, 2010: 52-53)”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리하여 “공동체성을 활성화 한 문화예술은 파편화되는 현대사회를 치유(공동체성의 회복과 구현)하는 역할과 함께, 개인적인 취미로 전락해버린 예술을 사회적 삶과 관계하는 예술로 복원(예술적 활동의 세계성 복원)하는 역할 모두를 수행할 수 있게 됨(심보선, 강운주, 전수환, 2010: 53)”

5)이 장은 심보선, 강운주, 전수환(2010), "문화사회학적 견지에서 바라본 문화예술경영의 시론적 고찰: 시민성, 지역성, 예술성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8권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음.

6) 이를테면 영국의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 네트워크인 VAN(Voluntary Arts Network)은 단순히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돕는 것이 아님. VAN의 가장 핵심적인 미션은 참여자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며, 그들 스스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운영해나가고, 그러기위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에 있음

## • 지역성

- ‘지역성’이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주체들이 자발적이고 협력적으로 아래로부터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창조하는 행위와 관련 있음. 이때 지역주체들의 자발성과 협력은 정책의 개입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음. 이미 국내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지역사업들이 이러한 정책적 개입의 사례임. 종종 획일화나 무분별한 개발, 과시적인 형태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지역성이 활성화되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장소’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소통을 끌어낼 수 있음
-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삶의 현장에서 빚어내는 예술성, 지역성, 공동체성은 새로운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과 방법들을 보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음. 시민성은 공공성의 정치적 측면을, 예술성은 다원성의 측면을, 그리고 지역성은 공동체성을 살리는 전략이자 역능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로 접근하는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과 유사사업의 전략과 전술을 분석하는 데에 시민성, 지역성, 예술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동체 및 예술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전략 방안을 도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그림 2-4〉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예술성, 공동체성, 지역성



# 03

##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현황 및 관련 정책



# 3

##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현황 및 관련 정책

### 1.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현황

#### 1) 형성 배경

- 우리나라에서 예술인과 문화관련 기관들이 한 공간에 집적한 형태로 나타난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가 도시공간에 가시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이후임. 80년대에 형성된 커뮤니티들은 도시민들의 문화수요에 기반 하여 자생적으로 성장

대학로와 홍대지역은 각각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입지가 계기가 되어 형성되었으며, 대학로의 경우 1979년 서울대학교가 이전하고 문예회관 미술회관이 건립되면서부터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공간이 형성됨. 홍대지역의 경우, 1980년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관련하여 화방, 공방, 미술학원, 미술서점, 갤러리, 작업실 등이 유입되면서 형성 되었으며, 이 지역의 임대료가 저렴했던 것도 영향을 끼침. 오늘날과 같이 홍대지역이 상업적으로 활기를 띠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로, 90년대 초반부터 음악감상실과 댄스클럽이 하나 둘 진입하면서 점차 클럽문화가 번성하기 시작함

- 1990년대는 한국 사회의 대중문화가 급속히 팽창하는 시기였음<sup>7)</sup>. 도시중산층의 형성은 도시사회에서 문화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었고, 1990년대 이후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형성과 발달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기반으로 함
- 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문화적 활기를 더해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가 등장하였으며 기존의 커뮤니티도 그 성격이 변화함
- 커뮤니티의 형성원인 및 특성이 다양해지기 시작함으로 인해, 이전과

7) 1987년 6월 항쟁 및 직선제 개헌, 1988년 서울올림픽 등을 거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대중문화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었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도 80년대 후반 급속히 상승하면서 실질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중산층이 두터워졌다.

같이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예술가들이 조성한 지역도 있고 정부(중앙과 지방)가 정책적으로 조성하여 형성되는 경우도 생겨남

90년대에 등장한 대표적인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는 경기도 파주의 헤이리 예술마을을 들 수 있음. 헤이리 예술마을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없이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조성하였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음. 헤이리는 1995년 ‘서화촌’이라는 파주 출판단지와 연계된 문화예술 모임에서 출발하였다. 1997년 헤이리 예술마을 건설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03년 1차 입주를 시작하여 오늘날 150여동의 건물에 문화예술인사 370여명이 거주활동하고 있다. 헤이리는 기존 도시와는 분리된 공간에 조성되었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1990년대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정책지원이 시작됨

대학로의 경우 1990년 정부차원의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대학로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이름이 생겨났으며, 물리적인 환경정비의 측면에서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됨. 인사동은 1997년 서울시 종로구의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되었고, 1998년 서울시는 인사동에 대한 문화의 거리 특화발전방안을 마련함. ‘문화의 거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이후 문화지구 제도의 도입과 지정으로 이어지게 됨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가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화됨. 우선 문화경제의 부상에 따라 정부의 문화활동 지원이 강화됨. 특히 예술가의 창작공동체와 관련해서는 폐교 및 근대문화유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전략이 대두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5,500여개의 폐교 중 약 200여 개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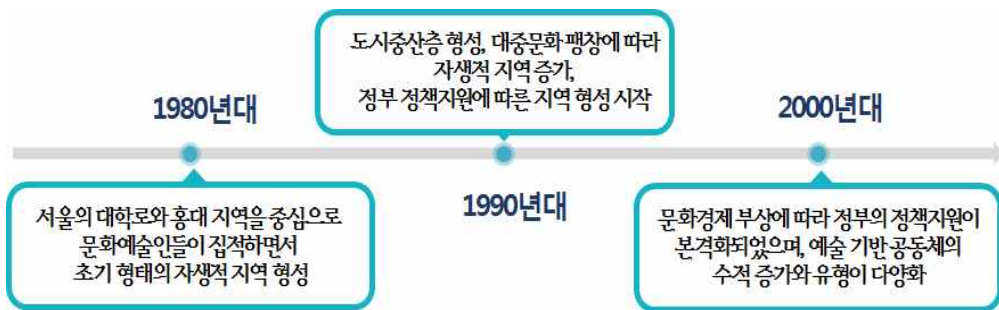
이들은 미술관, 박물관, 창작 스튜디오, 연극촌, 도예공방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된 곳은 일부에 불과함. 밀양 연극촌, 마산아트센터, 남해해오름 예술촌, 거제테마박물관, 임실 오궁리 미술촌, 대구 가창스튜디오 등이 대체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폐교가 농촌과 산촌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폐교의 임대를 대부분 1년~3년 단위로 하여 장기적인 안정성이 떨어지는 점 등 여러 문제점들도 동시에 보고되고 있음(김창수, 2011)

- 그 밖에 근대문화유산을 지닌 지역에 예술가를 유치하여 도시재생을



도모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인천광역시시는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창작스튜디오, 공방, 자료관, 전시장,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예술가를 유치함으로써 낙후된 도심을 문화기능을 통해 활성화하기 위해 중구 해안동의 개항기 근대건축물과 인근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복합예술공간을 조성하였음. 이렇게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사례는 군산과 대구 등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함. 군산은 일제시기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창작벨트를 조성하였으며, 대구는 옛 연초제조창을 리모델링하여 대구 문화창조발전소를 조성. 이는 모두 유휴공간에 예술가와 관련 기능을 유치함으로써 도심을 활성화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음



〈그림 3-1〉 우리나라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형성 흐름

## 2) 유형

-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유형들을 여러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 조성 주요 목적과 조성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 조성 주체에 따른 구분

- 조성 주체에 따라 〈자생형〉, 〈민간주도형〉, 〈정책형〉으로 나눌 수 있음
  - ▶ 〈자생형〉: 오랜 시간에 걸쳐 예술가들이 집적하여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형성
- 지가가 저렴하면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입지하며, 구성원이 젊고 역동적이며 강한 내부 응집력을 가지고 있음

- 도심지역에 위치한 상당수 커뮤니티는 상업화 및 재개발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사례: 서울 홍대 앞, 대학로, 문래 예술창작촌, 전주 동문사거리, 인천 배다리골 등
- ▶ 〈민간주도형〉: 문화예술인들이 협력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폐교 등에 집단 입주하여 클러스터를 형성
- 자생적 커뮤니티가 가난하지만 활동적인 젊은 예술가들이 중심이 된 데 반하여 민간주도형 커뮤니티의 경우 어느 정도 입지와 평판이 있는 기성 예술인이 중심이 된 경우가 많음. 따라서 독립적이고 여유 있는 창작공간을 선호하는 중견 예술인이 주요 구성원으로, 자생형에 비해 네트워크 밀도와 역동성이 낮고,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약함
- 예술인들이 토지를 매입하여 창작촌을 건설하는 단지조성형과, 유헴 시설인 폐교, 산업 시설 등에 집단으로 입주하는 유헴시설 활용형으로 구분됨
- 사례: 헤이리 아트밸리, 부산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임실군 오궁리 미술촌 등
- ▶ 〈정책지원형〉: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인 지원, 도시재생 등의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술가들을 유치하여 형성
- 정책목표와 지역여건에 따라 전통시장, 구도심, 폐교, 공단 등 쇠퇴 지역이나 유헴공간에 예술가 작업실, 갤러리 등의 시설 유치. 입주 예술가 역시 지역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보이나 대체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예술가가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등이 추진 중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정책지원형의 경우 정부의 예술가 레지던시 사업을 기반으로 한 곳이 많아 예술가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정책지원형 문화클러스터는 아직 역사가 짧고 예술가들의 네트워크가 취약하여 의도하는 도시재생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나,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사업도 나타나고 있음(부산 또따또가 등)

– 사례: 인천 아트플랫폼, 부산 또따또가, 광주 대인시장, 대구 문화창조발전소

## • 조성 주요 목적에 따른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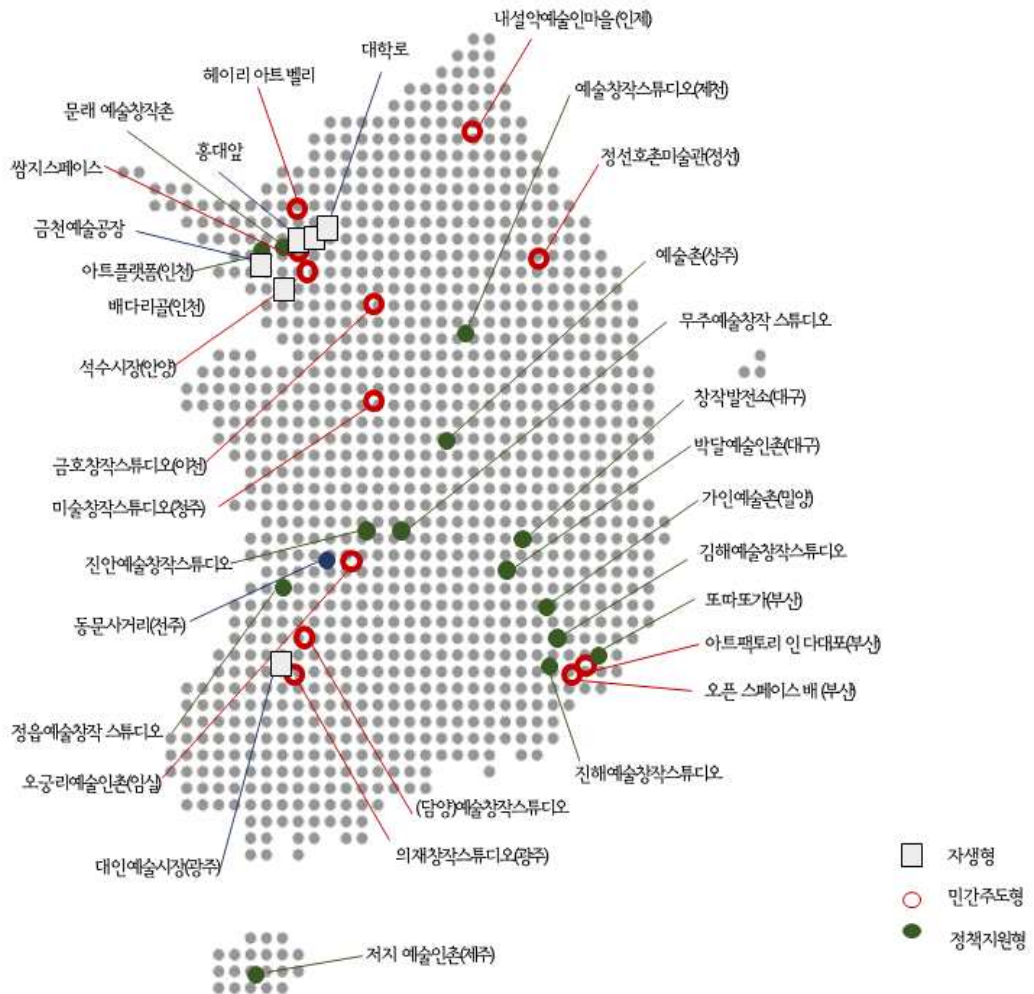
– 조성 주요 목적에 따라 〈안정적 창작터전 마련 : 예술가 마을〉, 〈예술을 통한 관광 매력 창출 : 예술마을〉, 〈예술과 시민의 결합으로 공동체 회복 : 예술적 마을〉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음

〈표 3-1〉 조성 주요 목적에 따른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구분

구분	예술가 마을	예술적 마을	예술마을
주요 개념	안정적 창작과 주거를 위한 예술가들의 자립 공간	예술과 마을의 결합으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	예술적 매력을 찾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마을
지향점	예술	공동체	관광, 경제
주요 추진 주체	민간 (예술가 조합 등) (최근 공공에서 일부 참여)	마을 공동체 (최근 공공예술가들 참여)	공공부문 (또는 영리 민간회사)
해당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이리 아트밸리 : 조합형</li> <li>- 문래예술촌 : 자생형</li> <li>- 만리동 예술인마을 : 공공분양+조합형</li> <li>- 저지문화예술인 마을 : 공공건립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천 예술텃밭 : 예술가 공동체가 주민과 화합</li> <li>- 서대문 닷라인TV 등 마을예술창작소 중 일부 사례 : 일부 공공지원</li> <li>- 가시리문화마을 : 공공지원과 귀촌 문화기획자들의 화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화동 벽화마을 : 일회성 공공미술 프로젝트</li> <li>- 감천문화마을 : 자생적 마을에 공공미술 지원</li> <li>- 민들레 연극마을 : 예술가 개척 후 공공 인증형</li> <li>- 지역별 분교 활용 사례 : 농촌체험 관광 연계 지원</li> </ul>
당면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성공하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예술가들이 밀려남</li> <li>- 공공부문 주체는 부동산 확보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가와 주민 간 융합에 긴 시간 필요</li> <li>- 주민 및 예술가 주도사업에 공공부문의 적절한 지원이 융합해 성공사례 도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지화되어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서 기능은 퇴색</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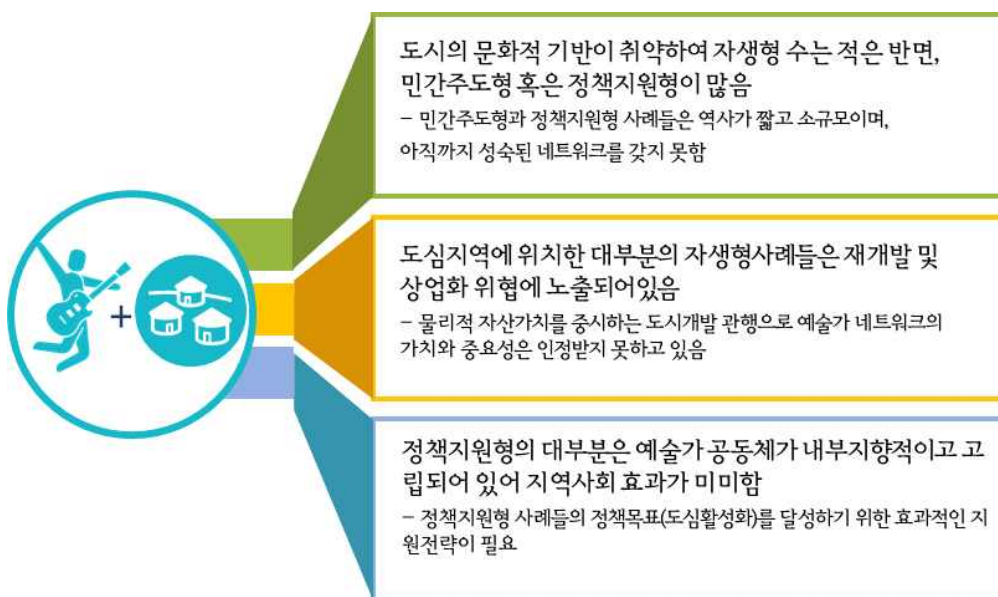
### 3) 분포현황

-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들의 분포현황을 조성주체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선 자생형의 경우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자생형의 주 구성원인 젊은 예술가들이 서울과 그 인근 지역에 풍부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림 3-2〉 우리나라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분포 현황

- 민간주도형의 경우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음. 단지조성을 통해 형성된 경우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해야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대도시 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많이 입지하고 있음. 폐교를 활용한 경우는 폐교가 많은 농촌과 산촌에 입지하고 있음. 입주예술가의 수도 소규모이며, 자생형에 비해 활성화가 되지 못한 지역이 많음
- 정책지원형의 경우 입지패턴이 다양함. 특히 대도시에 위치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성한 사례가 많음. 서울의 금천예술공장, 인천의 아트플랫폼, 대구의 문화창조발전소, 부산의 또따또가, 광주의 대인시장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한편 농촌지역의 폐교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커뮤니티를 조성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폐교와 유휴시설에 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한 경우임



〈그림 3-3〉 우리나라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주요 특징

## 2.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관련 정책 흐름

-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관련 정책은 크게 문화마을 조성 사업과 창작공간 조성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1) 문화마을 조성 사업

-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사례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문화예술 영역이 아닌,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마을 만들기’ 사업임
-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정책은 1970년대부터 존재하였음. 기자촌(은평구 구파발) 및 문화촌(서대문구 홍은동), 예술촌(동작구 사당동 예술인 마을) 등이 그 사례로, 당시 문화촌이나 예술촌 등은 ‘마을만들기’ 보다는 집단거주 형태의 마을에 가까웠음. 이후 기자나 예술인 등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나가면서 마을 명으로만 존재
-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사례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발생한 운동이 아닌,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마을만들기’ 사업임. 강북구 미아3동, 은평구 갈현동, 인천 연수2동, 대구 삼덕동, 부산 금샘마을, 서울 금호·행당·하왕 지역의 송학마을, 서울 관악연대, 부산 연제구 물만골, 서울 홍대 앞 놀이터 프로젝트, 대구 약령시장, 북촌 한옥마을, 전주 교동 한옥마을, 아산 외암리 마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시도
- 마을연대 준비위원회는 이 성과를 모아 2003년 1월에 “이런 마을에 살고 싶다 : 2002 마을만들기 백서”를 출간
- 마을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일보한 사건의 계기는 2001년 당시 문화관광부가 지역문화의 해를 선정하며 ‘문화환경’을 강조하고, ‘문화환경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임.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문화환경 진단사업을 실시함
- 문화환경 진단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2004년 최종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이 종료됨

- 2002년 시범사업 : (수원) 경기문예회관, 나혜석 거리, 야외음악당, (안동) 화마을, 안동 축제장, (경주) 불국사, 석굴암, (대전) 중구문화의 거리, 뿌리공원, 단재 생가
- 2003년 문화환경 진단 :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 직전, (부천) 박물관, (전주) 한옥마을, (강진·목포) 문화환경 전반, (통영·거제) 문화환경 전반, (공주·부여) 백제문화, (파주) DMZ, (대구) 문화의 거리와 담장허물기 지역, (정선·태백) 생활·관광문화환경, (제주) 제주관광문화환경  
※ 문화환경 조사 : 인천시 중구 차이나타운, 부산시 부산국제영화제
- 2004년 문화환경 진단 : 안산, 정읍, 하동 등 3개 지역
- 2004년부터 문화환경진단사업과 더불어 문화환경가꾸기 컨설팅을 실시함. 그 대상은 경주엑스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인천광역시 중구 등임

- 복권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투입되고, 지역문화 및 공공공간에 문화가 강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예술과 디자인, 지역문화 만들기의 관점에서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작

- 예술 : 공공예술프로젝트(Art in City)
- 디자인 :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 지역문화만들기 : 재래시장의 전통문화시장화(이른바 '문전성시'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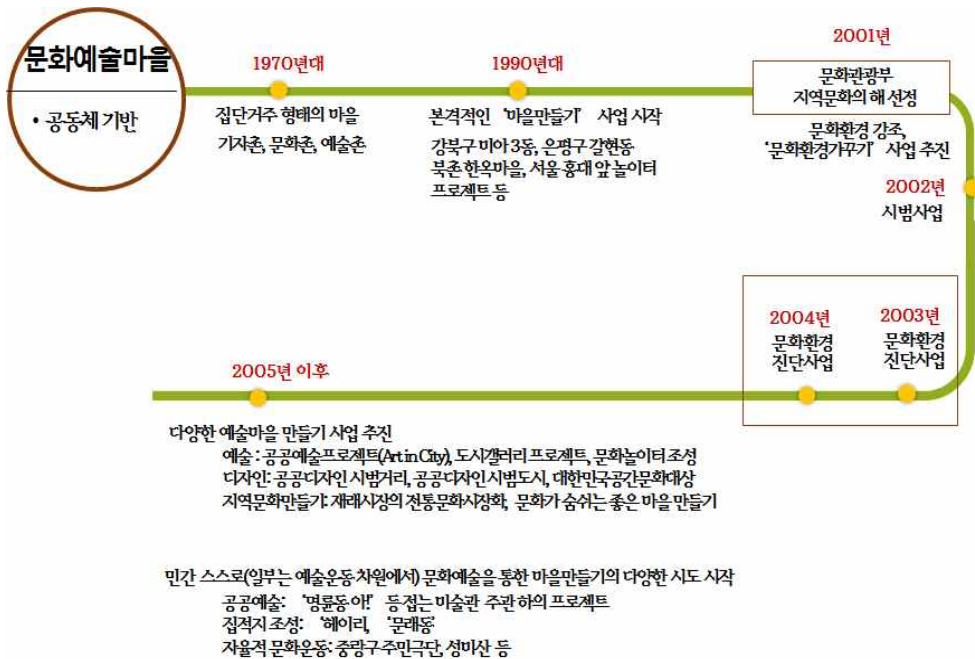
- 당시 문화관광부 내 △공간문화과, △지역문화과,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이 신설되어, 문화정책의 비중이 점차 공공성과 지역성, 교육 등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줌. 서울시 또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문화만들기 사업 시작

- 예술 :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문화놀이터 조성사업
- 마을만들기 : 문화가 숨쉬는 좋은 마을 만들기(금천구)

- 다른 한편, 민간 스스로(일부는 예술운동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

- 공공예술 : '명륜동 아!' 등 「접는 미술관」 주관 하의 프로젝트, '아현동 도큐멘트' 사업 등 「문화우리」의 기록사업
- 집적지 조성 : '헤이리예술촌' 조성, '문래동' 등 새로운 예술인 집적지 조성
- 마을만들기 : '한평공원' 조성(도시연대) 등 2단계 마을만들기 사업
- 자율적 문화운동 : 중랑구 「중랑연극협회」 주민극단, 성미산 등





〈그림 3-4〉 문화마을 조성 사업 흐름

## 2) 창작공간 조성 정책

- 창작스튜디오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로,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시각예술가에게 작업실을 지원하기 시작
- 1990년대 후반 경제침체로 인해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예술가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창작여건을 개선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

- 폐교활용 창작스튜디오에 이어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례가 나타남.
- 광주의 팔각정 스튜디오를 시작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창동스튜디오, 고양창작스튜디오, 서울시립미술관의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등이 조성되었으며 초기의 창작스튜디오는 주로 공간지원의 측면에서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미술관과 연계되어 담당 학예사가 행정업무를 관할하였음



- 이후 공간위주의 지원보다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2007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프로젝트형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시작
- 2000년 이후 지역을 기반으로 시작한 대안공간들이 지역기반의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시작. 지역적 성격을 바탕으로 제안된 프로젝트형 레지던스로 특정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역과 결합된 다양한 사회연구 프로그램을 내세우며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백기영, 2012: 106)

- 2002년과 2003년에 창동과 고양 스튜디오를 개관하며 국립 단위의 공간 운영을 시작. 2006 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 사업: 2005~2006년 만 1년간 진행되었으며, (사)미술인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전국규모예술 행사’로 지원받아 미술인들의 ‘창작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범 미술계사업으로 시도하였음

- 2008년 서울시의 ‘컬처노믹스’ 정책과 함께 확산되고 있는 생활 친화형 창작스튜디오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갖추고 창작 공간을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의 특성을 지님. 창작지원 역할과 함께 지역주민들과 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생활문화시설로 자리매김. 이처럼 창작스튜디오는 점차 예술가들이 겪는 창작 여건의 어려움을 개선한다는 취지뿐 아니라, 지역 및 도시 재생,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참여라는 외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동반
- 예술가가 지역사회에 개입하여 궁극적으로 도시 재생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짐에 따라 창작 공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
- 중앙정부 차원의 시도와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폐 산업시설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창작 공간이 도시의 재생, 지역문화 진흥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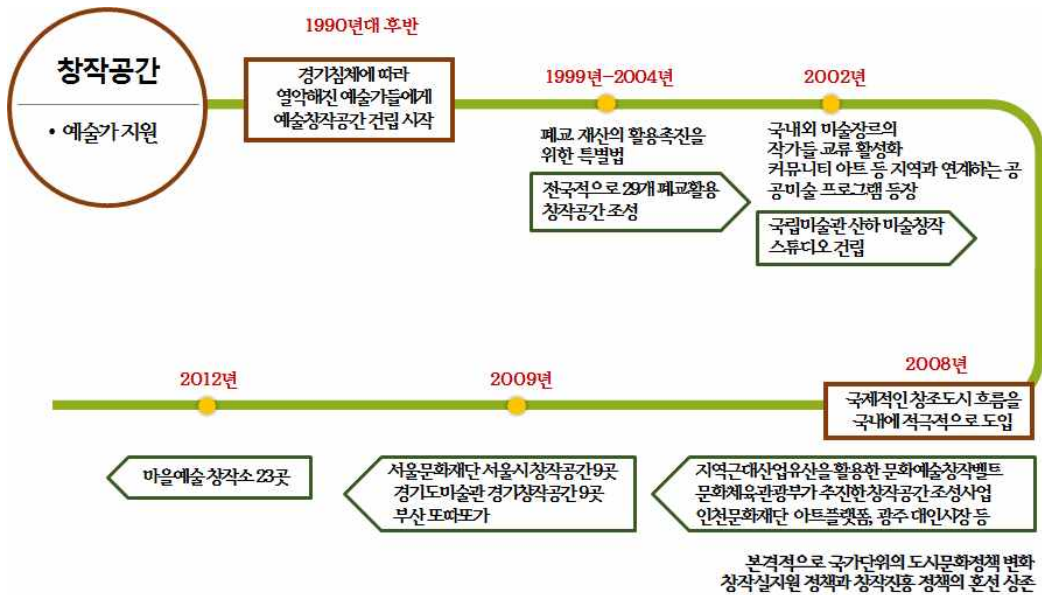
- 문화부에서 시행한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 시범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 문화·관광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2011: 19)을 목표로 폐 산업시설을 특화된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지속적 사업으로 계획·추진하였으나, 시범사업으로 종료

- 지자체별 창작 공간 조성 사업은 폐 산업시설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미술관 부설 창작 공간과 지역 문화재단 중심의 별도 독립 창작 공간의 형태로 이루어졌음

- 미술관 부설 창작 공간으로 광주 시립미술관이 광주 양산동의 근로자 아파트를 개조하여 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하였으며, 서울시립미술관은 난지도의 침전물 정화시설을 개조하여 창작스튜디오로 조성하였고, 대전 시립미술관은 농산물 품질관리소 건물을 활용하여 2008년부터 대전창작센터 운영

- 최근에는 도시계획과 도시 디자인, 건축 분야에서도 창작스튜디오가 도시 재생과 지역 활성화의 촉매가 된다는 측면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문화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나타남(박신의, 2013: 80)
- 서울시의 경우 '창의 문화도시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서울시 유휴 공간을 예술창작 공간으로 재생하는 아트팩토리 사업 진행

- 서울시의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여 예술가에게는 창작 공간과 창작여건을 지원하고 시민에게는 질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부여하면서 창작과 향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예술-사람-도시’를 잇는 문화공간으로서 장르 간 통합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화 활성화뿐 아니라 시민의 예술 참여를 도모
-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창작공간은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화창작촌, 문래예술공장, 홍은예술창작센터, 잠실스튜디오 6곳이며,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창작공간은 서교예술실험센터,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3곳임



〈그림 3-5〉 창작 공간 조성 정책 흐름

### 3) 주요 시사점

#### • 문화마을 조성 사업

- 예술적 활동과 마을 만들기 사업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음. 정부차원의 지원에 따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처음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함.
-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고 예술활동을 창출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예술활동에 대한 행정의 지원이 무의미해 지는 경우가 많음

#### • 창작 공간 조성 정책

- 대부분 지원 주체와 예술가 사이의 인식 차이가 크고, 창작 공간 운영방식의 문제에 따른 행정과 예술의 갈등이 나타나는 사례가 발생
- 예산의 안정성 문제 및 예술을 도시문화전략의 도구로 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 3. 도시계획과 통합적 추진

#### 1)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과 문화전략의 통합적 추진

- 이제까지 추진된 관련 정책들을 사업단위별로 보면 비슷한 사업들이 단발성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웠음

〈표 3-2〉 관련 정책들의 근거법령 및 집행 방식

구분	지역문화진흥	예술창작지원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사업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축제, 국제교류</li> <li>- 시민문화활동 지원</li> <li>- 지역문화자원 개발</li> <li>- 문화도시: 지역재생 등</li> <li>- 문화마을, 공동체만들기</li> <li>- 문화시설 운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창작지원</li> <li>- 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li> <li>- 신진예술가 육성</li> <li>- 창작레지던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카드바우처</li> <li>- 문화예술 기획바우처</li> <li>-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문화예술교육</li> <li>- 사회문화예술교육</li> <li>- 전문인력양성</li> <li>- 학교예술강사</li> <li>- 지원센터운영 등</li> </ul>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예진흥법 제2장</li> <li>- 문화예술공간의 설치</li> <li>- 시도 문화예술진흥 조례</li> <li>- 문화재단 설립 조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예진흥법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예진흥법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 지원법</li> </ul>
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담당 부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예술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예술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li> </ul>
중앙-지역 협의체 법적 근거 및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조항 없음</li> <li>- 지역민족문화과에서 지역문화정책협의회를 '12.9월부터 운영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6조 협의체의 구성</li> <li>-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를 '07.10월부터 운영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조항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조항 없음</li> </ul>
집행 방식 변화	이전	기본재산/기금 이자, 지자체 출연금 또는 민간위탁사업비		
	최근 ('09~)	기본재산 원금사용 출연금 축소		국고매청 후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사업비

-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는 도시의 공간구조, 사회, 경제, 문화의 다양한 부문과 관련되어있음. 특히 많은 사례들이 폐산업시설, 재래시장, 폐교, 근대문화유산 등 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의 물적 자원(stock)을 관리하는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 또한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를 정책적으로 조성하고자 할 때 대부분 궁극적 목적을 도시재생에 둔다는 것을 감안하면 도시계획과의 관련성은 더욱 깊다고 할 것임
-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관련 정책은 시의 문화부서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어 도시부서와의 협력이 부족함. 이에 따라 문화담당부서와 도시담당부서와의 불협화음이 나타나기도 함<sup>8)</sup>
- 특히 기존의 예술가 지원 사업이 주로 창작공간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한 단계 나아가 예술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정책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에 예술가들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구성과 관련한 도시문화전략은 도시계획과의 조화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향후 많은 도시재생전략이 개발 중심이 아니라 점진적인 활성화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경우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구성을 포함한 도시문화전략을 도시재생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 이때는 문화전략을 담당하는 문화부서와 물리적 도시공간을 담당하는 도시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8) 예컨대 서울의 문래예술촌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재개발예정지구로 공고한 상태이지만, 서울시 문화담당부서에서는 문래예술촌을 지원하기 위해 수집역을 들여 인근에 문래예술공장을 건설함. 문화부서와 도시부서가 지역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형태로 나타남. 이는 광주 대인시장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음. 대인시장 일대가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광주의 문화부서에서는 대인시장을 예술시장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음. 부산의 토파포가에서는 인근에 전선 지중화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 토파포가 프로젝트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 파급효과 확산을 위한 공간전략 수립

- 단순히 예술가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공간 전략이 요구됨
- 기존의 국내 커뮤니티 조성사례는 커뮤니티가 입지한 공간의 성격에 의해 그 도시재생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공간의 선택과 시설물의 배치, 거점공간의 확보 등에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가 도시재생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고립된 지역보다는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모일 수 있는 지역이 적합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여야 함
- 커뮤니티 내부의 공간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는 열린 예술 공간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제도화된 예술공간과 차별화됨. 예술가 작업공간은 가능한 주민들에게 열려 있어 언제든지 찾아가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스튜디오를 이러한 방식으로 개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가서 즐기고 배우는 참여형 ‘거점공간’ 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역에서 상징성이 높은 공간들은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이러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내부 일부 시설을 - 특히 주민과 관련이 많은 카페, 서점, 공방, 갤러리 등 - 전면에 배치하여 가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그러한 공간이 주택가에 입지한다면 주민들의 사랑방이 될 수 있고, 도심에 입지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 전략도 필요함
- 최근 문화예술 관련 NGO와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여 예술가와 지역주민 사이의 문화 기획을 담당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3) 제도개선 방안

-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가와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이므로 이는 법·제도 개선의 문제라기보다는 창의성과 실행의지의 문제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임
- 여기서는 일부 관련된 중앙정부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개선방안을 논의함. 해당 법제도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으며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논의하도록 함

#### ① 문화지구제도의 개선

##### • 문화지구제도 주요내용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권장 시설금지업종의 종류, 문화지구 지정 근거가 되는 조례 및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의 내용,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해당 문화지구를 지정·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관리계획에 따른 권장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조세 감면 및 융자금 지원, 행위 제한, 기금 설치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 • 문화지구제도의 한계점

- 2002년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04년 대학로, 2009년 헤이리, 2010년 인천개항장 문화지구까지 현재 4개의 문화지구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각 문화지구별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인사동의 경우, 관광지화·상업화에 따른 지가상승과 이에 따른 권장업종의 이탈, 권장시설 업종·업태의 불일치, 노점상에 의한 보행환경 악화, 옥외광고물 관리 문제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문화지구 범위와 지구단위계획 범위 불일치에 의한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음
- 대학로 역시 권장시설의 이탈과 공연물 성격의 변화, 소극장의 난립, 호객행위, 옥외광고물 관리 문제 등이 나타났으며, 특히 공연장 특성에 부합한 공연안내시설 및 인포센터 등 기반환경의 정비가 요구되었음
- 헤이리의 경우, 자발적 커뮤니티에 기반하고 있고 사무국의 역할이 유지되고 있어 권장시설의 이탈·변이 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창작공간의 권장시설 제외 등 문화지구의 지정목적과 모순된 관리계획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지 역으로의 전환 등 환경변화에 의한 커뮤니티의 변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인천은 현재 지정 초기 단계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 이질적인 기능을 지닌 공간이 혼재하고 있어, 주민협의체의 형성, 권장업종의 지정 등 기존의 관리계획 체계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 이와 함께 모든 문화지구에서 공통적으로 관리계획의 실효성 부족, 건물소유주에 편중된 조세 감면의 혜택과 용자 지원의 현실성 문제, 안내체계, 옥외광고물 등 환경 관리의 문제 및 예산수급과 전담인력의 안정적 확보 등 많은 과제를 내포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문화지구의 권장업종(시설) 및 지정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적 수요의 반영이 어려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업종의 세분화 및 다양화를 지구단위계획상의 용도규제가 따라갈 수 없으며, 업종 및 업태의 불일치에 대한 지정 역시 어려움. 권장시설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 및 용자 지원이 토지 및 건물주에게 편중되어, 건물을 임대하여 권장업종을 운영하는 실 영업자를 위한 지원은 미미한 상황임
- 문화지구제도를 곧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관리제도로 보기는 어려움. 실제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네 개 지역 중 본 연구의 정의에 의한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로 볼 수 있는 지역은 대학교와 헤이리에 불과함. 때문에 문화지구는 이미 형성된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혹은 문화관련 시설 밀집지역에 대해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관리제도로 보아야 할 것임. 각 문화지구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본적 취지에 부합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이 요구됨



## • 문화지구 제도개선 방안

- ▶ 문화지구의 개념에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개념을 적극적으로 포함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상에 규정하고 있는 문화지구의 개념이 재정립 될 필요가 있음.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지구 대상지역은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문화 예술 행사, 축제 등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세 가지로 되어 있음
  - (1)의 정의는 문화지구제도가 처음 도입된 당시 인사동을 염두에 두 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이 정의에는 창작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가 포함되지 않음. (3)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보다 명확하게 문화클러스터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문화지구의 지정대상을 “문화예술기능 및 관련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으로 재정의 한다면 문화생산 기능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함
- ▶ 관련법 정비
  - 문화지구 지정 요건 및 범위 확장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의 개정을 통해 문화지구 지정·관리조항, 권장시설 관련 내용 변경. 또한 규모와 범위가 한정된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지구의 특성 상 기존의 공간에 대한 제도(도시계획, 토지이용, 지구단위계획 등)와의 연계가 중요하며, 옥외광고물관리법, 경관법 등 공간 환경에 대한 법규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제도 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는 관련 법제의 정비를 함께 고려함

▶ 관련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문화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주체 간 합리적 업무분장을 통해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 기초지자체가 당해 문화지구의 관리·운영 주체의 역할을 담당, 광역지자체가 관할지역내 문화지구를 총괄하며 지정·해제 및 평가 역할 담당
- 중앙정부는 문화지구발전계획 등 문화지구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 단계별 가이드라인 및 관리·운영의 방법 등을 개발·제시하여 지방정부의 문화지구 운영을 지원하며, 문화지구별 진행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역할 담당. 또한 공모를 통한 문화지구 개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고려
- 각 문화지구 관리·운영 담당자 및 주민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연계 행사 및 사업 추진 지원

▶ 문화지구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문화지구범위 확대에 따라, 개별 문화지구의 특수성을 강화하고 지원방안을 다양화 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관리계획은 장기발전계획 및 비전을 포함하도록 하며, 범위, 주요 문화지원, 지원방안, 경관계획, 환경개선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련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연도별 집행계획, 재원확보방안, 주민협의회 지원 방안, 상시 진단 가능한 체크리스트의 개발 및 모니터링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함. 또한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항목을 연계하며,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문화지구 관리의 성과 평가가 아니라 문화지구의 발전을 위한 컨설팅 역할을 강조함

▶ 행위제한 중심에서 지원 중심의 관리계획 수립으로 전환

-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지구 관리·육성을 위하여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문화지구 내의 영업형태를 권장시설과 금지시설을 구분하여 권장시설에는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금지시설에는 진입규제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제중심의 관리계획은 지역 상인과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생업에 영향을 주는 여러 규제가 행해지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음.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없이는 지역문화정책이 어려움
- 따라서 권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을 추진하여 권장시설 운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고려. 예컨대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당시 결정된 용자지원금 5,000만 원을 개별 문화지구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문화지구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시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② 문화예술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의 도입

### • 문화예술활용형 도시재생의 개념

-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개발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문화예술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하여 지원방식을 규정할 수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사실상 도시정비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거의 기존의 도시정비방식의 이름을 달린 것에 불과함
- 실제 적용되고 있는 법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상의 이른바 뉴타운 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도시정비는 낙후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 됨
- 최근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방식으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새로운 사업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의 정비사업의 틀을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 기존의 도시정비방식이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라면, ‘문화예술활용형 도시재생’은 문화예술과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조명래, 2011)
- 소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동안 추진된 사례가 없지는 않음. 광주 의 도청 이전지에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을 건립하고 서울의 동대문운동장을 허문 자리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건립한 것이 이에 해당함. 또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문화도시, 과학문화도시, 생태문화도시 등의 이름을 내걸고 도시의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문화예술활용형 도시재생은 이러한 접근방식과도 다름. 이상의 접근방식이 ‘선도개발(flagship development)’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문화예술활용형 도시재생은 ‘지역중심(place-based)’을 강조하는 형태임

#### • 문화예술활용형 도시재생정책 도입방안

- 문화예술활용형 도시재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재생방식의 유형 중에 ‘문화예술활용형’을 첨가하고, 개발사업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함.
-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도에는 ‘문화예술활용형’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유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개발 사업이 아닌 정책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의 틀을 확보하는 것임<sup>9)</sup>
- 우리의 도시 관련 법제가 모두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으로는 이러한 문화예술활용형 도시재생을 담아내기 어려움. 따라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통합적 법체계를 수립하고 그 내에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틀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9) 그 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법정계획과 비법정 마을만들기 운동이 서로 충돌하는 사례가 많았음. 대구 삼덕동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 쌓아올린 성과가 법적 정비계획 앞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앞에서 많은 자생적 커뮤니티들 역시 도시개발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있음. 문화예술활용형 도시재생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되어야 함.

- 여러 부처의 지원시책이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정책 패키지(package)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국토해양부의 틀 속에서 논의되었다면, 다양한 지원시책을 포함한 도시재생은 개별 부처의 틀을 넘어서는 것이 바람직함
-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 오히려 사업성이 있어 개발이 되며, 실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사업성을 결여하여 도시재생이 추진되지 않는 역설을 안고 있음. 인구가 감소하고 개발의 시대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향후 도시 내 낙후지역의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사업 중심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 문화예술형 도시재생사업은 이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이 될 수 있음

〈표 3-3〉 기존 도시재생정책과 문화예술활용형 도시재생정책의 비교

항목	기존 도시재생정책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문화예술활용형 도시재생정책
특징	물리적 환경정비 중심 (대부분 철거 재개발)	예술가 및 지역공동체 지원
지구지정 대상	물리적 낙후 정도를 기준으로 대상지역 선정	도시 내 낙후지역 중 문화적 재생 잠재력이 큰 지역 (역사성과 지역성, 문화예술인의 존재 등)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수립: 시장·군수 승인: 시도지사)	법 부처 (지역별로 부처별 지원사업의 통합지원)
지원사항	기반시설 지원	예술가 창작공간 지원, 민간단체의 지역대상의 문화기획 지원, 거점공간의 운영지원, 주민 문화활동 및 공동체 지원 등

### ③ 지역문화진흥계획과 적극 연계

####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민간의 문화예술후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 1. 28. 공포)과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4년 7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육성·지원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감면 근거 ▲문화예술후원자의 포상 ▲기업 등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 지역문화진흥계획 2020

- 기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이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으로서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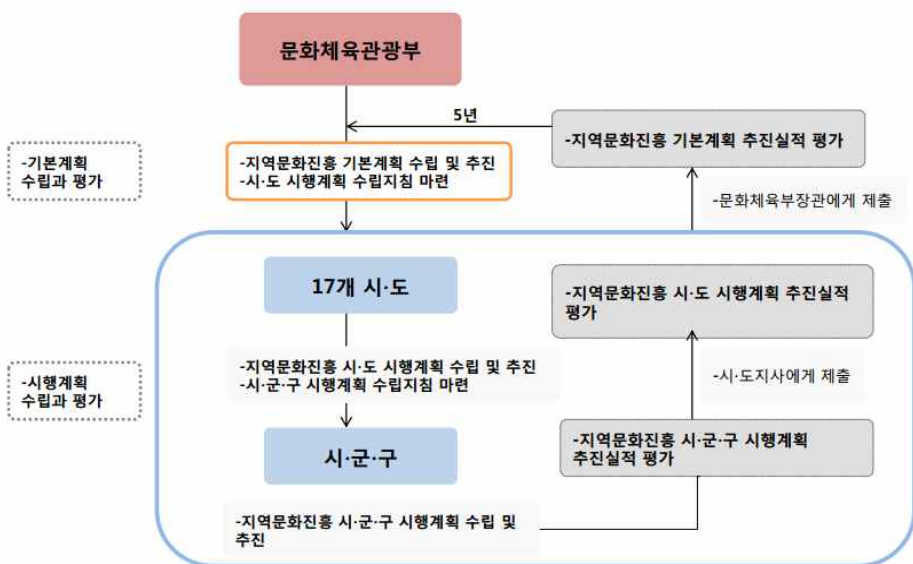


〈그림 3-6〉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발전과 문화자치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중장기 계획 수립 및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2015년 공표·시행 예정에 있음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준거 및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단위 기본계획임

### • 문화적 도시계획 수단으로서 지역문화진흥계획

- 지역문화진흥계획은 문화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지역문화자치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므로, 향후 문화적 도시계획 수단의 발판이 될 수 있음
- 향후 서울시 문화정책 및 계획 기본방향인 문화도시 서울플랜 비전 2025과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이제까지 법적 근거 미약과 예산지원 문제로 인해 대다수 단발성 사업으로 진행된 지역 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 사업들의 장기적 사업 실천을 위한 전제가 될 수 있음



〈그림 3-7〉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체계도





# 04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사례연구



# 4

##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사례연구

### 1. 해외 관련 정책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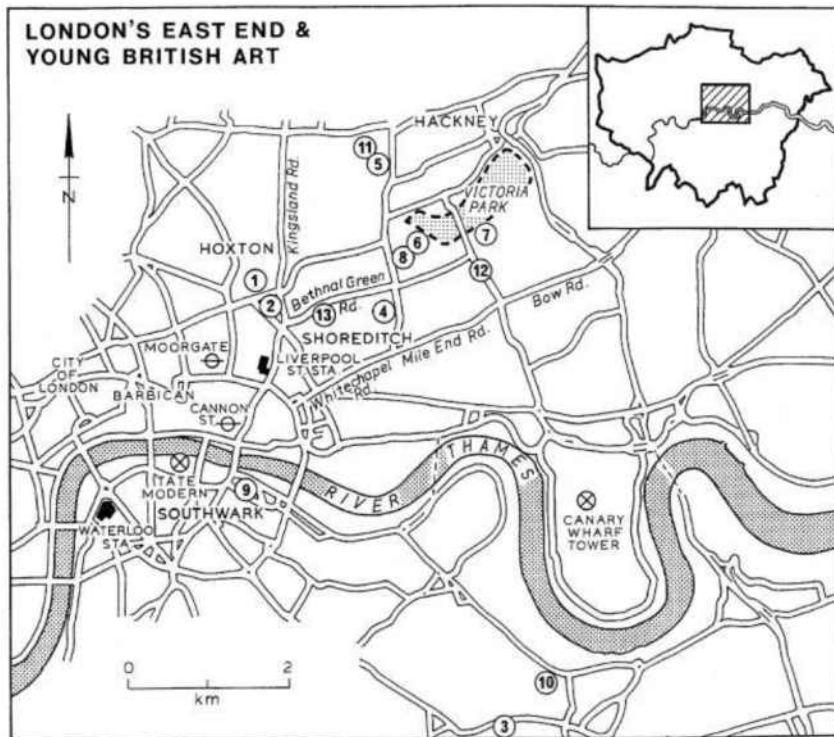
#### 1) 사례 분석

##### ① 런던 이스트엔드

###### • 이스트엔드의 정체성

- 런던 이스트엔드는 런던의 동쪽지역인 서더크, 타워햄릿츠, 뉴엄, 해크니 (Southwark, Tower Hamlets, Newham, Hackney) 등의 자치구를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함. 예로부터 런던 개발의 대부분이 서쪽에 치우쳐졌기 때문에 템즈강의 동쪽지역은 낙후되어 있었음(김태영, 김현준, 2009)
- 현대 미술운동이 일어나기 전 이스트엔드는 역사적으로 빈곤한 이민자들의 지역이었음. 중세시대 이래 실크를 짜는 서민계층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스피탈필즈(Spitalfields) 지역에 모여들었고, 그 후 400여년에 걸쳐 이민자들이 유입되어 가내수공업 형식의 의류 및 섬유제조업, 식료품 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으로 변화함
- 런던 예술시장의 전통적인 중심은 런던 서부(West End)의 래드브록스 그로브(Ladbroke Grove)와 노팅 힐(Notting Hill)이었는데,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예술계가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저임금, 다인종 밀집지역인 이스트엔드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튜디오들과 넉넉한 공간은 이스트엔드에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함. 이러한 대안적인 분위기는 이스트엔드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으며, 다른 나라에 '기이한 영국스러움'으로 이해되는 독특한 예술문화를 더욱 강화시킴

- 이스트엔드 지역의 저렴한 임대비용 덕분에 갤러리와 공공 단체들이 보다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새로운 젊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대안적인 분위기는 이스트엔드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음
- 오늘날 이스트엔드는 마켓과 갤러리, 작업 공간 및 박물관이 모여 독특한 문화지구이자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12개 이상의 갤러리와 2개의 박물관 등의 문화예술관련 시설이 있으며, 이곳에서 다양한 워크숍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런던아트스트쿼터(London's artist quarter)에만 1,320명 이상의 예술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를 포함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됨<sup>10)</sup>



〈그림 4-1〉 이스트엔드 예술 시설들(갤러리, 전시관, 교육시설)의 입지  
자료 : While, Aidan(2003)

10) <http://www.londonsartistquarter.org/hub/meet-all-artists/all?page=66>

## • 영국 젊은 작가 운동(Young British Art)과 지역사회 예술활동

- 이스트엔드에 젊은 예술가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이 지역의 값싼 임대료 때문이었지만, 문화예술 밀집지역으로서의 의미는 1980년대 영국 젊은 작가 예술(Young British Art(YBA)) 운동이 발생하면서 더욱 부각되었음
- 기존에 영국에서 예술활동은 주로 뛰어난 개인 예술가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예술활동을 뒷받침하는 하부구조는 매우 취약했음(While, 2003). 미술관들은 보수적이었고 현대미술 작품에 관심이 있는 수집가가 거의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전위예술(avant-garde)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음. 그러나 ‘Young British art’ , ‘the new British art’ , ‘Brit Art’ 등으로 일컬어지는 예술운동이 등장하고, 그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면서 상황은 변화함
- 이스트엔드 지역의 미술관 수가 급격히 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대중 스타와 같이 유명해졌으며 언론의 관심 또한 커지게 됨. 현대미술의 중심이 런던 서부에서 동부로 옮겨오게 되었고 핵심적인 문화지구(cultural quarter)로 부상함
- YBA 운동은 1980년대 후반 골드스미스 대학(Goldsmith University of London)의 순수예술학위(BA Fine Art degree) 과정에 다니고 있었던 학생예술가들로부터 시작되었음. 학생들을 국제적 딜러나 비평가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했던 런던의 예술 교육을 통하여 영국 전위예술운동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당시 골드스미스 대학에는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등 이후 영국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미친 예술가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었음. 이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립적이고 개성 있는 작업을 선보임(박가희, 2011)
- 런던이 1990년대에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다시 주목받은 것은 새로운 미술관과 전시공간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While 2003). 산업시대에 이용되다 남겨진 많은 빈 공간들이 예술가, 큐레이터, 디자이너를 비롯한 예술가 및 창조계층이 살고, 일하고, 공연이나 전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고, 주요 갤러리들은 예술가들의 사교활동의 장이 됨

- 이러한 잉여공간의 이용과 새로운 전시형태 등이 국제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여러 세대의 예술가들이 모여들었고, 큐레이터들과 작가들, 수집가들을 유인하여 문화 생산자들의 사회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됨

## • 예술가들의 창작주거공간 지원형태

-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집에서 작업을 했으며 당시에는 예술가들이 같은 장소에서 일하거나 다른 작업실이더라도 같은 건물에서 일한다는 것은 생소한 일이었음(Green, 1999). 예술가의 공동체, 예술가들의 공동작업에 대한 인식은 예술가 브리짓 릴리(Bridget Riley)와 세질리(Peter Sedgley)를 시작으로 알려지게 됨<sup>11)</sup>
- 1968년에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위해 SPACE(Space Provision Artistic, Cultural and Educational Ltd.)라는 런던 예술가 스튜디오 제공조직을 설립. SPACE의 설립은 곧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침
- 1960년대 말 런던에서는 갤러리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예술의 개념과 함께 커뮤니티 예술이 점점 발전함(Green, 1999). 이러한 흐름에 이어 1970년대에 런던의 비영리 스튜디오 조직들이 다수 생겨남. 이것은 경제위기로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예술가들이 임대료가 높은 런던에서 예술가로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방법으로 스튜디오를 구하려 했기 때문으로 여겨짐
- 이스트엔드에서 특히 활발한 스튜디오 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예술가들이 이스트엔드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넓은 작업실을 구하기 용이했고 버려진 건물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임. 런던 전역에 걸쳐 대다수의 예술가 개인과 조직에게 공간 확보에 관한 문제는 늘 절실했으므로 이러한 고민과 관심이 집단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예술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들이 나타나기 시작함

11) 고호의 '예술가들의 커뮤니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세질리는 예술가의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이상을 가지고 브릿지 릴리와 함께 1842년 폐쇄된 궁정재판소(Marshalsea)에서 공동 작업을 시작 함. 함께 일하는 것에 고무된 두 사람은 1967년 세인트 캐서린 부두(St. Katharine's Dock)의 아이보리 창고에 예술가 스튜디오를 설립하게 됨



〈그림 4-2〉 첫 번째 예술가 공동  
스튜디오가 된 세인트 캐서린 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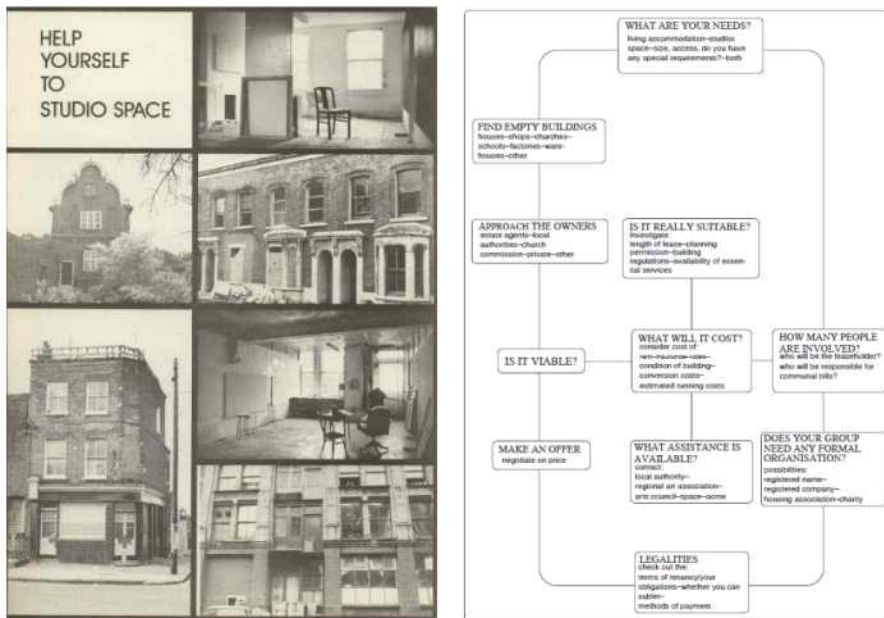


〈그림 4-3〉 〈그림 5-11〉 SPACE(Space  
Provision Artistic,  
Cultural and Educational Ltd)

#### • 애크미 스튜디오 ACME Studios

- 애크미 스튜디오(ACME Studios)는 런던의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스튜디오, 작업실,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영국 예술 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후원을 받음
- 1972년 예술가들에 의해 설립되어 이스트엔드를 중심으로 시각예술을 재발견하고, 런던을 시각예술 생산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설립 이후 5,000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이 조직의 도움을 받아 활동했으며, 터너 상(Turner Prize) 수상자가 9명이 배출되는 등 많은 예술가가 영국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음
- 애크미 스튜디오(ACME Studios)는 주로 구(舊)산업용지의 유희공간을 비롯하여 외지, 도시 유산 지역에 걸쳐 500개가 넘는 스튜디오를 관리했으며, 쇼다치(Shoreditch), 모델 에이전시, 티셔츠 인쇄 회사 등 50여개의 작은 회사를 유치하였음(Evans, 2009)
- ACME와 SPACE는 영국 예술 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후원으로 1975년 “Help Yourself to Studio Space” 라는 예술가들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으며 이 지침서는 공간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알려줌.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히 하고, 빈 건물을 찾으며, 집주인에게 가서 제안하기, 계약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 등 순서를 정해 알려주고 있는데, 21세기에도 유용한 정보라 할 수 있음

- 저렴한 공간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ACME는 수상. 선정된 예술가들에게 주거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각국 정부기관과 재단에서 예술가들을 일정기간 런던에서 보내도록 하는 주요 국제적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ACME는 수년간 잉글랜드에 저렴한 스튜디오발전을 지원했으며, 다른 스튜디오 조직, 영국 예술 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함께 (예술가 스튜디오 제공 중앙회)the National Federation of Artists' Studio Providers(NFASP)를 세우는데 앞장서기도 했음
- ACME는 런던의 문화전략 초안에 대한 대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런던시정부와 런던개발국(the London Development Agency)은 문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점과 도시계획과 같은 다른 분야의 전략과 정책에 문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은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음
- 런던 자치구들과 다른 계획관련 조직들이 일할 때, ACME는 생동감 있는 문화적 제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를 위한 전략적 제안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적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함



〈그림 4-4〉 ACME와 SPACE의 지침서(Help yourself to studio space)  
자료: [www.acme.org.uk](http://www.acme.org.uk)



## ② 캐나다 - 예술가와 커뮤니티 협동프로그램(Artist and Community Collaboration Program, ACCP)

- ACCP는 캐나다 예술위원회(The Canada Council for the Arts)가 구분하는 예술의 여섯 장르(시각예술, 미디어, 무용, 음악, 연극, 문학)와 인터랙티브 아트(Inter-Arts), 원주민 문화예술 (Aboriginal Arts)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예술가들이 커뮤니티(특히 청소년 그룹)와 함께하는 다양한 예술적 활동들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 전문 예술가와 커뮤니티는 창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예술 과정(arts process)에 주목하고 있으며, 캐나다 예술위원회는 예술단체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천만 달러의 추가의 기금을 확보한 함. 이 재원을 통해 예술위원회는 보다 유연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예술가와 커뮤니티 협동 프로그램(Artist and Community Collaboration Program)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ACCP 사업에서의 커뮤니티는 ‘활동 그 자체(the activity itself)’에 의해 정의되고 있으며, 도시, 마을, 이웃 등의 지리적인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취미나 사회적인 동기 등의 공동의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의 그룹도 포함함. 또한 같은 조직 내의 소속감과 같은 공동의 유대감을 공유하는 그룹 및 퇴역군인, 어떤 사건의 피해자 등과 같은 공통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그룹도 포함하고 있음. 더 나아가 ACCP는 가상 또는 디지털의 공동체와 같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룹의 활동도 커뮤니티로 정의 내리고 있으나, 위의 모든 경우 중 커뮤니티 내에 전문예술가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함(전문예술가들의 협업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지원함)
- ACCP의 개별 프로젝트는 예술가가 주도하지만 커뮤니티의 관심사와 동떨어진 것을 제시하지는 못하며, 반드시 양자 간의 협약을 담은 동의서(letters of intent)를 제출하여 이를 통해 심사/지원의 절차를 밟게 됨

### ③ 미국 - 종합 직업 훈련법(CETA, Comprehensive Employment Training Act)

- 종합 직업 훈련법(Comprehensive Employment Training Act, 이하 CETA)는 1973년에 본래 노동부의 고용정책으로 젊은이들에게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었음. 이 정책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노동능력을 키워 지원금을 받지 않는 분야로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연방정부에 집중된 고용훈련 프로그램을 각 주정부로 분산시키고자 했음<sup>12)</sup>
- 저소득계층이나 장기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조직에는 12~24개월의 전임직(Full-time job)을 제공함. 결과적으로 CETA는 예술가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었으나 이 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직업이 없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됨
- 1965년 연방정부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이하 NEA)이 설립되면서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지원부서가 생겨나는 등 제도적 인프라가 형성되기 시작함. 이즈음 CETA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할 실질적 인적 자원 발굴이 지원되게 되며 CETA프로그램이 수행된 1970년 중반부터 후반까지 거의 모든 지역 예술가가 CETA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직업 활동과 관련을 맺게 됨.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이 단순히 예술가로서의 능력만을 키운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황을 익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됨
- NEA의 설립으로 마련된 제도적 인프라에 예술가와 예술 단체들에게 필요한 지역의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훈련하는 CETA 프로그램이 결합하여 문화예술이 지역 환경에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음. 이로 인해 지역의 문화예술은 단순히 전문 고급예술 활동에 그치지 않고 보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문화와 더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며 미국 사회에서 예술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이 창작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함

12) [http://en.wikipedia.org/wiki/Comprehensive\\_Employment\\_and\\_Training\\_Act](http://en.wikipedia.org/wiki/Comprehensive_Employment_and_Training_Act)

- 60~70년대 소위 '공동체 예술(community art)'이 NEA 및 지방 정부의 지원 하에서 활성화되던 시기, 문화예술을 통한 공동체 만들기는 무엇보다 소외된 주민들 및 소수자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 시키는데 주력했음. 문화예술의 역할은 불평등과 소외로 인해 파괴된 기억과 공동체 의식의 조성에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의 자발적 결사체들은 문화예술의 전문 창조자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화적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미국의 시민사회의 문화적 활력과 민주주의적 감성을 아래로부터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됨
-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예술가들, 구술사가, 민속지학자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토론하면서 결정을 해 나간 일종의 민중사적 또는 인류학적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작업의 특징은 1) 장기적인 작업과정, 2) 지역 문화예술 단체, 주민들, 예술가들, 학자들, 학생들 사이의 체계적인 협력, 3) 민간재단과 주 정부, 중앙 정부 등 다원화된 재원으로 볼 수 있음

#### ④ 미국 - 미국예술진흥연합회 Animating Democracy

- 미국예술진흥연합회(Americans for the Arts)는 쇠퇴하는 시민의 참여의식과 소통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주의 활성화(Animating Democracy) 프로그램을 시작함. 이는 예술이 시민들의 사회적 발언을 가능케 하며, 시민 권리를 위한 사회운동을 통해 사람들을 결합시키고 여러 주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며,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등 민주주의의 장으로 기능해 온 점과 더불어 공동체 예술운동이 이러한 예술의 역사에 크게 기여해왔음에 주목한 프로그램임
- 미국예술진흥연합회의 민주주의 활성화 프로그램은 포드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 내 37개 단체와 각종 예술행사에 자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소통을 촉진하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예술의 힘을 보여주었음. 특히 공동체 미술이 이러한 여러 행사들 중의 핵심적인 예술양식이 됨

-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예술양식을 통해 이민, 도시개발, 젊은이들의 폭력, 동성애자의 권리와 같은 문제를 다루었는데, 사업의 목표는 1) 시민참여 예술에서 미적이고 프로그램의 실험성, 혁신을 증진시키고, 2) 작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 기관의 역할과 조직 역량을 배양하며, 3) 예술과 시민사회의 참여의 장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접근을 향상시키고 이 작업에 대한 지식체를 형성하며, 4) 철학적이고 미적이며 예술 기반의 시민참여의 실질적 견해에 대한 시민 소통의 리더와 함께 예술분야의 이해와 논쟁을 증진시키는 것, 5) 시민 생활에 예술가와 예술, 문화기관의 역할에 대한 공공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에 두고 있음

## 2) 시사점

- 각 사례별로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는 차이가 있으나, 커뮤니티와 예술가의 협력 작업에 있어서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술가는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무시할 수 없으며,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따라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짐. 예술적인 성취와 창조적 성취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도모됨.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대해 예술가와 커뮤니티는 공통된 이해와 목표에 대해 동의해야 하며, 이러한 신뢰관계 위에서 예술적 활동이 이루어짐
- 한편 예술가가 커뮤니티와 소통하면서 예술 활동의 장이 공연장과 미술관을 벗어나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음. 위 사례들은 예술의 활동 영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창조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서의 학습의 장을 확장하여, 예술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일상적 공간에서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 인터뷰

	공공지원에 대한 고민
빛타래 공동대표_송광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 역시 기성세대와의 마찰이 있다. 그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문래동에 들어왔음</li> <li>•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 갈등이 있다. 공장구성원과의 갈등이 이곳의 전부는 아님</li> <li>• 예술 정책이 많아지면서 부터 갈등이 많아진 것은 사실임. 그렇다고 그것을 작게 쪼개어 나누기에는 실효가 없다. 하지만 지원을 하려면 순수하게 예술가를 위한 정책이었으면 좋겠음</li> <li>• 지원을 받으면 결과를 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음. 예술을 생산적 측면에서만 바라봄</li> </ul>
	문래동의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래동은 상업화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 남아있는 철공소는 서울에서 필요한 것이고 재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 급속한 변화는 없을 것임. 재개발이 제일 큰 이슈이나 20년 전 부터 이야기 되던 것으로 언제 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음</li> <li>• 정책의 실패라고 한다면 예술가들이 그들의 바람대로 움직여 주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것임</li> </ul>
	공공지원에 대한 고민
문래다방대표_정웅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래동은 시끄러운 동네임. 겉으로 나는 소리뿐 아니라 안에서 소리 없이 아우성대는 것들이 많음. 또한 문래동은 예술가만의 공간이 아님. 철공소 그리고 지주들이 같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술가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됨</li> <li>• 공공의 지원은 커다란 건물을 짓는게 아니라 문래동 곳곳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창작공간은 가깝기도 하면서 먼 동네임. 단지 문래동에 있을 뿐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음</li> </ul>
	문래동의 변화과정
Ride and Tide_이정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래동에서만 3번째 작업실이며 수입을 염두에 두고 이번 작업실을 얻었음</li> <li>• 기획 일을 하게 되면서 기획서 써내는 기계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음</li> <li>• 혼자서 실행, 홍보, 마케팅까지 해야 하다 보니 포트폴리오 정리할 시간도 없음. 재단사업의 경우 작가는 경력을 가지고 가고 재단은 실적을 가지고 감. 사업을 실행할 때도 예산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실행계획을 짰지만 500만원으로 줄어들 때도 있음</li> <li>• 예산은 줄었지만 실행은 그대로 하기를 원하다 보니 퀄리티 저하가 있음</li> <li>• 문래동 운영위원회가 생기고 문래창작공간과 소통창구가 되었음. 더불어 공모사업도 같이 진행하였는데 취지는 좋았으나 헤게모니 문제가 생기게 됨.</li> <li>• 공장 구성원과의 관계는 부정적이지만은 않음. 공장이 나가면 공장이 들어와야 하는데 작가들이 들어오면서 월세를 올려도 아무 말 않는 작가들 때문에 계속 월세가 올라간다고 생각함. 그런 부분들은 싫지만 이들이 들어오면서 척박한 곳에 문화적 혜택이 있다는 걸 이제서 인식하기 시작함</li> </ul>

## ② 홍제동(서대문닷라인TV) - 정책지원



〈그림 4-6〉 서대문 닷라인 TV 위치도

### • 주요 특징

- 서대문닷라인TV는 민관협력형 마을예술창작소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미술관 컨셉의 창작활동 및 교육 사업을 운영 중
- 닷라인TV(DotlineTV) 큐레이팅 연구소(큐레이터 문예진)에서 민간 주도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 예술가를 지원하고 주민과 예술활동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함
- 주민창작활동(마을팩토리), 예술가 레지던시, 예술가와 함께 하는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
- 서대문닷라인TV는 2~3년간의 지역 활동 및 네트워크(홍은동 시절)를 기반으로 홍제동 마을예술창작소를 활성화 할 수 있었으며, 자생적 시스템 형성은 5~6년간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함
- 역량 있는 전문 문화예술 기획가가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을 연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함. 지역주민-기획가-예술가의 자생적인 기획과 운영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음



## • 주요 운영 및 활동

### ▶ 전시 및 공연 기획, 작가 레지던시 운영

- 연간 2~3회, 작가들을 발굴하여 창작소 내외부 공간에 전시 운영
- 주말 골목길 담벼락 극장 및 골목길 공연, 퍼포먼스 기획
- 작가 레지던시 1호 오픈(향후 2~3호 오픈 예정)



〈그림 4-7〉 서대문 전시 및 공연, 레지던시 운영

### ▶ 주민 창작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주민강사 발굴하고,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마을팩토리 운영, 향후 수익모델을 구상하고 있음
- 지역주민 문화예술 취미활동 지원



〈그림 4-8〉 주민 창작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 ▶ 지역 네트워크 발굴, 골목길 활성화 노력

- 지역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소통기회 확대
- 골목길 재생 및 지역주민 연대 활성화를 위한 ‘골목프로젝트’ 운영
- 예술가와 지역주민 교류 프로젝트



〈그림 4-9〉 지역 네트워크 발굴



▶ 홍제동 문화예술 기획자\_ 닷라인TV 큐레이팅 연구소

- 닷라인TV는 2011년 홍은동에서 문예진 큐레이터를 중심으로 지역예술활동과 인터넷 미술방송채널을 운영하며 시작함
- 2013년 가을, 현재의 홍제동 주택가 골목길로 이사를 하면서, 민관협력형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로 지원 받음. 공공지원 + 연구소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마을창작소 가운데 유일하게 미술관 컨셉으로 운영, 전시 및 프로젝트, 레지던시, 공연 등의 활동 기획

• 인터뷰

이 곳 활동만의 장점

- 마을창작소 가운데 유일하게 마을미술관 컨셉으로 운영. (일반적으로는 지역커뮤니티 성격 중심)
- 문화기획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콘텐츠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음. 예술가와 주민의 영역이 훼손되지 않는 적절한 지점을 찾음
-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오고 친근하게 느낌

자생적 시스템 형성과정과 향후 방향

서대문닷라인TV  
운영 큐레이터  
- 문예진

- 홍은동에서의 2~3년간의 주민교류 활동이 기반이 됨.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노후화가 생김
- 공공지원금을 받으면서,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범위가 넓어짐. 장소를 마련한 것이 큼
- 향후 주민과 함께 만든 생활예술작품을 가지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서, 자생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해 보려고 함

공공(지원, 개입)에 대한 생각과 바라는 점

- 공공지원을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지원이 가능해 짐
- 홍보 및 활동 공간 마련을 할 수 있어서 활동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함
- 공공지원금으로 활동가 내지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공공은 하드웨어/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이며, 기획자/예술가들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③ 연남동 - 자생



〈그림 4-10〉 연남동 일대 위치도

- 주요 특징

- 홍대 문화 확산 및 상업화에 대한 빠른 속도의 변화와 대안 모색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예술인 및 문화 활동가, 창업종사자, 지역주민들이 변화 위기에 공감하며, 자생적인 정화 움직임이 시도됨
- 연남동은 지역문화 자원 및 인적 자원이 풍부하며, 자생적인 활동 기반이 갖추어져 있음. 따라서 문화적 창조성과 생산성을 갖춘 ‘자생적 문화생태계’ 형성이 당면 과제임
- 지역의 여러 커뮤니티 주체들을 연계하고, 자생력 있는 지역 생태계를 형성되어 나름의 새로운 시도가 존재하지만 지역의 상업화 역시 가속화 되고 있음

## • 주요 운영 및 활동

### ▶ 일상예술창작센터

- 문화예술창작 및 기획 그룹, 홍대 플리마켓 활동 기반, 연남동 따뜻한 남쪽 마켓 운영
- 2002년 홍대 프리마켓 기획단으로 시작, 시민과 창작자가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를 일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민간단체. 2007년 연남동으로 사무실 이전,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인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 자생적 기반 마련됨
- 연남동 경의선공원 주민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활동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



〈그림 4-11〉 연남동 일상예술창작센터

### ▶ 동진시장 예술가 플레이스 막

- 2014년 봄, 쇠락한 재래시장에서 수공업생산자들의 모임 ‘모자란협동조합’을 주축으로 동진 7일장을 기획. 오픈키친+먹거리+목공+직물의 네 가지 생산기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자리에서 소통 협력하는 커뮤니티 장을 형성
- 일상예술 창작활동 기반으로 공방, 실험예술 공간 운영

- 플레이스 막은 2010년 홍대 산울림소극장 근처에서 동진시장 초입으로 이전함. 복합문화전시 공간으로 지역 예술가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예술적 쉼터로 기능함. 동진시장 내에 지역문화예술 공연장 <플레이스 막사>를 오픈하여, 활동 공간을 확장



〈그림 4-12〉 ‘의식주를 책임지는 생산기지’- 생산과 소비의 문화적 소통



〈그림 4-13〉 ‘대중과 예술이 소통하는 장’- 주민과 예술가의 만남, 참여

#### ▶ 어쩌다 가게

- 개성 있는 카페, 공방의 상업 공간 결합, 지역의 방문객 유입을 이끌고 있음. 홍대 기반을 가지고 이주, 상업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실험 모색 중
- 홍대 상업화로 밀려나는 개성 있는 공방과 작업실들을 위한 실험적인 모색으로 시작. 홍대에서 초창기 카페를 운영하던 건축가 멤버(SAAI 건축)들이 모여 대안공간을 마련함
- 5년 임대 조건, 안정적인 월세 수준의 파견적인 조건으로 ‘개성과 공유의 가치’를 모색



〈그림 4-14〉 어쩌다 가게

## • 인터뷰

### 공공의 역할과 지원사업에 대한 생각

일상예술창작센터  
국장  
연남동 주민\_  
최현정

- 공공지원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2~3년으로 사업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기반을 조성해 주고, 자생적인 네트워크 형성-지역 생태계 형성을 기다려줘야 함
- 지역주민들과 예술가들, 활동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지원이 있었으면 함
- 명정한 지역의 이슈,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

### 지역 자생력 구축을 위한 노력

다정한 사무소 단장  
(성미산 마을사업단)\_  
위성남

- 기존의 주민 커뮤니티와 새로운 집단의 커뮤니티 간 연결, 확장이 중요함. 지역적 결속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지역적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지속가능성이 있음
- 지역의 생활문화적 코드/감각이 지역주민-예술가 간 상호 교류, 소통되어야 함
- 공공의 역할은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활성화 하는 일임

### 지역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연계하기 위한 고민

경의선숲길지기  
청년 활동가\_  
이정주

- 지역의 생활권을 무엇으로 보고, 지역주민을 어느 범위로 한정해야만 하는가 고민임
- 공공사업에서 제안하는 지역주민 중심의 접근은 지역기반 활동가/생활인의 참여를 배제함
- 공공은 가이드를 제시하고, 다중의 커뮤니티를 중재하는 역할 필요함. 오픈테이블 마련하여 지역의 여러 커뮤니티 주체들이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







〈그림 4-16〉 성북동 갤러리 네트워크

## • 주요 운영 및 활동

### ▶ 동네공간

- 성북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을 위한 공동 사무실 및 활동 공유  
지로 현재 건축그룹 tam,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성북동천 등이 이  
용하고 있음
- 성북동 주민 모임 성북동천의 마을잡지 발행과 마을학교 운영 공간  
공동체주택 ‘따로 또 같이’ 운영



〈그림 4-17〉 공동사무실 ‘동네공간’



〈그림 4-18〉 복합문화공간 ‘17717’



〈그림 4-19〉 성북예술창작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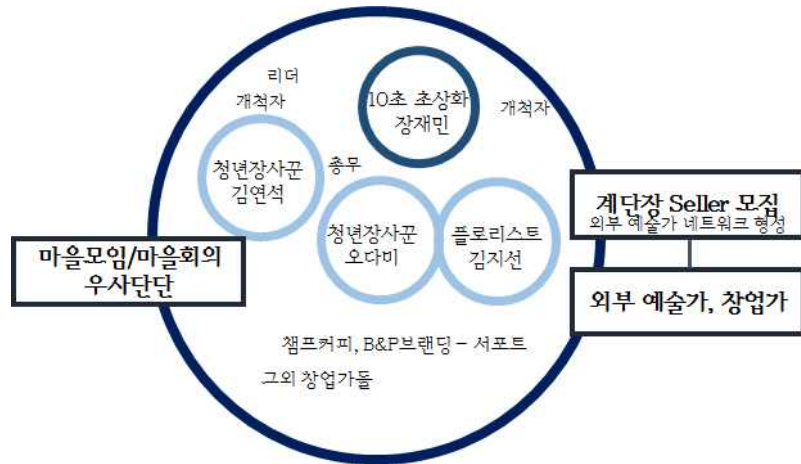
## • 인터뷰

공공의 역할과 지원사업에 대한 생각	
복합문화공간 17717 — 김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북동은 전통적인 예술촌이며 마을의 느낌과 요소를 지니고 있어 들어오게 됨</li> <li>• 예술마을은 ‘마을’의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문화예술 소비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거주민 필요</li> <li>• 지역에서 부름 받고 쓰일 수 있는 ‘마을 디자이너’가 되길 희망함</li> <li>• 성북동에서 마을잡지, 마을학교, 전시기획 추진 중이며, 기타 서울에서 일요 식당 및 소셜다이닝 운영</li> <li>• 성북동이 지금보다 더 많이 알려지길 바라지 않음</li> <li>• 공공기관의 역할은 재정 지원 외 없다고 생각함</li> </ul>
성북동 변화과정	
성북예술창작터_이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북동의 변화는 최근 3년 내외임</li> <li>• 2015년 동선동고가차도 지하 공간에서 지역 예술가와 함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임</li> <li>• 2015년 5월, 지역 갤러리와 전시 가능 공간(네팔사진관, 파출소)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프로젝트 진행 예정</li> </ul>
공공지원에 대한 고민	
성북동천 구성원_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북동의 재개발 지역 지정으로 건물 증개축이 불가하게 되면서 청년 예술가들이 들어오게 된 듯</li> <li>• 마을학교에 참여하게 되면서 청년 예술가를 만나 소유 건물의 지하와 옥상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함</li> <li>• 주민들은 한옥을 비롯한 주거지가 유지되고 새로 유입된 문화공간과 사람들이 함께하는 현재의 변화가 지속되길 희망함</li> </ul>





-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 그룹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로 여행, 교환학생, 유학 등 다양한 형태로 국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음. 주로 디자인, 미술, 미디어영상, 미용, 건축 등 시각 예술과 관련된 전공한 사람들이며 다양한 창업가와 예술가들의 교집합으로 높은 문화자본과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4-21〉 내부 예술가 네트워크 형성

## • 주요 운영 및 활동

### ▶ 우사단단

- 10초 초상화 작업을 하는 장재민을 중심으로 매주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의무감 보다는 느슨한 관계를 강조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작업하고 있음
- 벼룩시장을 통해 골목의 지역성을 홍보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고 있으며, 역사성이 보존되고 특이성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거리를 활성화시킨 청년들은 활성화 된 거리를 기반으로 하여 본인들 작품의 장사와 홍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이익이 됨. 우사단길을 더 풍부한 공유재로 만드는 실천하고 있음. 홍보, 마케팅 등이 자연스레 이루어졌고 관의 재정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그림 4-22〉 우사단단 활동

#### ▶ 청년장사꾼

- 20~30대로 구성된 청년장사꾼으로 중심 상권과 떨어진 곳에 점포를 만들어 주변 상권을 살리고, 마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침
- 1) 열정 있는 청년들, 2) 수익창출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3) 마을 내에 자리 잡은 점포, 4) 같은 상권 내 겹치지 않는 메뉴, 5) 간단한 단일 메뉴 등이 청년장사꾼의 주요 모티브임



〈그림 4-23〉 청년장사꾼 활동

## • 인터뷰

### 지역의 변화 과정

- 한남동이 더 액티비티하여 한남오거리 쪽으로 이사하고 있음. 이태원은 상업화가 이미 진행되면 다른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 한남 뉴타운 3구역과 이태원은 1구역은 상권이 너무 발달하여 재개발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봄. 한남동은 상권보다는 주거권이 더 큼(주거권이 커지면 재개발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욕심이 커져서 재개발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상권이 강해지면 상가임대료로 충분히 수익이 나니까 재개발을 반대하면서 상업화가 이루어짐)

### 이곳이 이른바 ‘핫(Hot)’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유

- 이태원은 미군이 빠져나가면서 상권이 완전 망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남아있는 이국적인 모습에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됨.
- 재미있는 변화는, 정부에서 한남뉴타운과 상권을 나누는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 상권으로 활발해지면서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됨. 재개발보다는 상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재개발이 무산 됨
- 주민들이 재개발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용산구청이 들어왔기 때문임. 하지만 용산구청이 동네의 상권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았고 차라리 ‘홍석천’이 이태원의 이미지에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됨. 해밀턴 호텔 뒤쪽 상권은 ‘홍석천’ 영향임

노보아키텍 소장 \_  
류성현

###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

-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고 싶어서 여러 활동을 만들었으나 사이길에 가게가 많아지면서 주민들은 상업성을 목적으로 동네가 유명해지길 원함. 이런 입장 차이로 요즘은 활동이 뜸한 상태임. 하지만 동네의 연령층이 너무 높아 활발한 분위기가 될 것 같진 않음

### 공공의 바람직한 정책 혹은 현재 필요한 지원 내용

- 공공적인 도움은 받고 싶기는 한데 귀찮고 공공은 크게 건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함 프로그램보다는 하드웨어, 인프라에만 신경 쓰면 됨.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함. 버림받고 있는 느낌을 주느냐 보호받고 있는 느낌을 주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함
- 성미산 공동체를 너무 이상향으로 생각함. 끈끈한 것을 바라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음. 가볍고 느슨한 공동체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2) 시사점

- **예술가들의 사회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기존의 도시재생정책은 물리적 측면의 환경개선에 치우친 반면에, 문화예술지원정책은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어 예술가 사회네트워크의 가치를 간과해 왔으나 단순 창작 공간 제공이 아니라 예술가 사회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자생적으로 커뮤니티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지역만들기 측면보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특수한 도시 예술환경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 **파급효과 확산을 위한 공간전략 마련**

- 공간적으로 고립된 곳보다는 적정 유동인구가 확보된 지역 선택이 필요함. 예술가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카페, 서점, 공방 등 ‘참여형 공간’ 등을 마련하여 가시성을 확보하고 거리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 배치 전략 등이 필요함

- **주민의 자체적 예술역량 배양**

- 주민의 자체적 예술역량을 배양해야 하고 지역의 사정을 아는 전문가(예술가)가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의 행정적·전문적 노하우를 공급해야 함

- **점진적인 지역사회변화를 유도**

- 단시일 내의 급격한 물리적, 경제적 변화보다는 장기적으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관점 필요
- 축제, 오픈스튜디오, 지역생활환경 개선 등 예술가와 지역주민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을 지향하는 노력들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함. 1~2년 안에 주민과의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진행해야 함

### 3. 공동체 핵심장치 도출

-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공동체 핵심장치 도출
  -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가 지속가능 하는데 있어 핵심 장치로 여겨지는 5개의 키워드를 - ‘경제적 지속성’, ‘코드와 가치’, ‘네트워킹’, ‘활력문화 공간(공유공간)’, ‘지역 리더’ - 도출함
  - 이중에서 ‘활력문화 공간(공유공간)’, ‘지역 리더’, ‘네트워킹’ 이 세 가지는 공동체의 상호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항목이며, ‘경제적 지속성’, ‘코드와 가치’ 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공동체 성원들이 연대하고 공감하는 가치 또는 문화를 알려주는 항목임

〈표 4-1〉 공동체 핵심장치

핵심장치	특성
경제적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생존/비전과 지역주민과 마을의 경제활성화/전망의 일치 정도</li> </ul>
코드와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의 유무형 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정도</li> <li>• 공동체 구성원간의 관계 및 이해관계</li> <li>• 소속감의 정도에 따른 참여</li> </ul>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개 지역활동가의 주도로 공동의 작업을 시작함</li> <li>• 공동의 작업을 통해 주체로서의 인식을 이끌어냄</li> <li>• 공동 작업의 빈도 및 강도와 공동체적 연대감과의 상관관계</li> </ul>
활력 문화 공간 (공유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력 문화 공간의 활성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파악됨</li> </ul>
지역 리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활동가 또는 예술가가 존재하는 경우 성공적으로 수행</li> <li>• 지역활동가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요인</li> </ul>

# 05

##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사업 추진전략





# 5

##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사업 추진전략

### 1. 사업의 개념 및 방향<sup>13)</sup>

#### 1) 예술마을에 대한 개념 재설정

- 예술마을

- (예술잠재력이 높은) 예술활동이 활발한 예술마을 : ex) 해방촌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마을사업의 생활문화예술과는 다른 개념으로 예술활동이 활발하고 잠재적 욕구가 있는 인적자원 및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설정

- 예술관광마을

- 관광지의 성격을 지닌 곳에 예술적 지원 : ex) 남산
- 도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찾는 데스티네이션으로서 알려진 장소들
- 서울시의 전략 사업이나 개발 사업 대상지와 연계된 장소들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이 적은 지역

#### 2) 사업의 재정의

-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본적으로 예술가 지원 사업은 아니며, 예술가를 지원하더라도 지역에 기여하는 공공성을 기본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의 함

13) 이 장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2011년에 발간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① 문화를 함께 나누고 교류하는 단위 지역의 공동체가 ② 문화예술관련자와 함께  
 ③ 공동체 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④ 공통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이를 계기로 공동체 내에서 ⑤ 활력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사업

① (사업의 대상 또는 주체) 명확한 경계를 구별하지 않으나, 구체적인 장소와 공동체

② (사업의 주체 또는 파트너) 문화예술 전문가, 기획자, 지역 문화 개척자

③ (사업의 내용) 지역 주민이 생산 및 소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④ (사업의 목표) 예술적 활동

⑤ (사업의 비전) 예술성, 공동체성, 지역성 활성화

〈그림 5-1〉 사업의 재정의

## • 문화를 함께 나누고 교류하는 단위 지역의 공동체

- 이는 사업의 수혜 대상이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체에 대한 설명임.  
 “문화를 함께 나누고 교류하는” 단위는 물리적으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기도 모호하고 그와는 상관없이 조직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마을이나 이웃 등 이른바 정주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나 관심공동체 등의 유형구분을 넘어서는 개념임
-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은 공동체의 출발이 공동의 관심사이건 동일한 거주 지역 때문이건 생활문화를 교류하고 있거나 교류할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실재하는 특정 장소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그 주변에 새로운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함

- **예술 관련자(사업의 주체 또는 파트너)**

-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술 관련자와 함께 하는 사업임. 여기서 예술 관련자란 고고한 예술의 영역에서 지난한 삶의 현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직업적) 예술가 또는 예술 단체로서, 지역에 기반이 있는가의 유무를 떠나 활동가로서 예술가, 기획자로서 예술가, 발견자로서 예술가 모두를 포괄함. 나아가 전문예술가의 역할을 도와줄 매개자 또는 기획자가 결합된 형태도 포함함
- 예술가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는 본 사업의 필수적인 덕목이지만, 예술가들이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거나 지역의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미션은 선택적인 것으로 설정함

- **공동체 예술(사업의 내용)**

- 이는 사업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기술로 공동체 예술 혹은 커뮤니티 아트의 핵심은 대중이 예술적 창조나 생산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일컫음. 이는 공동체 외부의 전문 예술가들의 참여가 단순한 봉사 차원이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이 일회적인 교육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 **공통의 프로젝트(사업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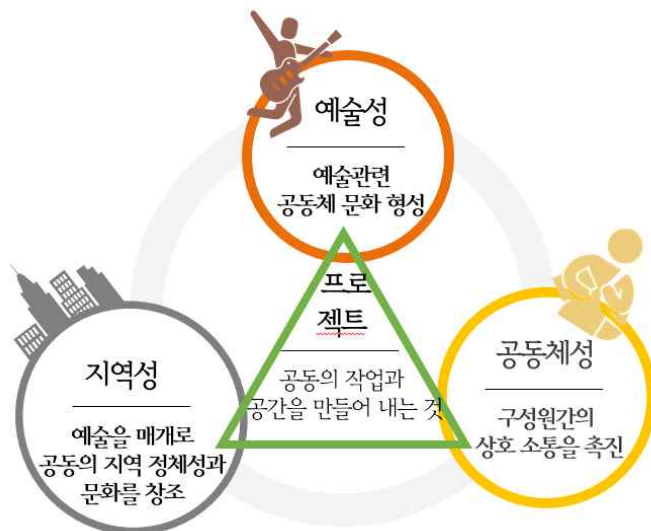
- 이는 예술적 활동이 만들어내는 것을 일컫는 것임. 시, 문학, 예술은 우리의 영감을 자극하고 세계를 향해 문을 열어주며, 공동체에 있어서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된 공통의 프로젝트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공통의 감정을 점화시키고, 그로 인해 새로운 세계로의 입문을 격려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 사람, 어떤 풍경, 공간 등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이제까지와는 다른 언어로 소통하게 함
- 공통의 프로젝트는 관계를 생성하고, 공동체의 기억을 복원하는 한편 공적영역의 새로운 기억을 생성하는 계기로 작동하게 됨

- **활력 있는 삶**

- 이 부분은 사업의 목표에 관련된 내용으로, 활력 있는 삶이란 간단히 말하면 예술성, 지역성, 공동체성이 활성화된 삶을 말함. 즉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1)공동체의 성원들을 공동체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 변화시키고(공동체성), 2) 지역주체들 간에 협력을 고무하고, 이들이 함께 공유한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며(지역성), 3)창작활동에 참여하여 특별한 감성과 문화가 공유되는 감성공동체를 만들어낸다(예술성)는 의미임

## 2) 사업의 목표

-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의 목표는 첫째 공동의 작업과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공동의 프로젝트), 둘째, 구성원들이 문제와 비전을 상호 소통하는 것(시민성), 셋째,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예술성)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장소로서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지역성)임.
- 이는 예술적 사건과 활동적 삶을 목표로 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음



〈그림 5-2〉 사업의 목표

### 3) 사업의 원칙

- **공동체 문화 존중하기**

- 이 사업은 공동체, 지역사회, 주민의 문화권 실현에 봉사하는 영역임. 따라서 공동체의 미감과 정서를 중시해야 하고, 예술이 개입하는 장소의 특수성과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 예술이 되어야 함
- 기존의 질서와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의 특별함을 찾는 노력과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사이의 긴장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

- **공동체 사람 키우기**

-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은 창작과 향수의 이원론을 넘어 주민을 참여시키는 기획이자, 주민이 주도하여 프로젝트의 의미를 완성시키도록 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서 주민이 성장하거나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임. 특히 지역활동가를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함
- 활동가가 스스로 부상할 수도 있지만, 이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함. 사업의 발상, 설득, 결정, 실행 과정에서 활동가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함
- 지역활동가는 현장의 리더로서 지역사회에서 관계와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과 지속을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몰려섬’과 ‘세움’이 필수적임
- 이들의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감성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는 데에 한계를 갖게 되는 점을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공동의 목표 만들기

- 공동의 목표를 만드는 과정에는 인류학적 상상력, 개인의 인권,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로서 유토피아에 대한 희망, 심미적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도덕적 열정으로부터 본원적 에너지가 공급됨
- 공동체 성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과정이 중요함. 피동적으로 존재하던 주민이 능동적 주체로 삶을 꾸꾸는 과정으로 매개자나 예술가가 처음 그 목표를 세울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그 목표를 주민에게 이해시키고 ‘주민의 꿈’으로 확산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임

## • 서로의 관계 만들기

- ‘관계 만들기’는 먼저 이웃과 소통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함. 우리말의 ‘마을’, 즉 말이 통하는 집단이 마을이며, 이는 마음의 단위를 일컫기도 함
- 영어의 커뮤니티(community)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도 라틴어 communis를 어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접두사 con-(함께)와 munis (서로 봉사한다는 뜻)의 합성어임<sup>14)</sup>
- 공동체 만들기는 이 같은 소통, 나아가 관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이므로 관계 만들기는 인간화, 이웃화, 공동체화, 헌신을 의미하지만 ‘관계 만들기’가 정감적 집단성만을 강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됨
- 즉 ‘관계 짓기’는 개방적 포용이어야 함. 공동체성의 강화가 폐쇄적 마을에 안주한다면 외부로부터의 자원이 유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확보되지 않음. 마찬가지로 관계 만들기는 공공성의 강화와 공적영역(public sphere)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음

14) 영어의 커뮤니티 ‘community’는 라틴어의 *communitas*에서 유래된 말이며 *communitas*는 같은 라틴어의 *communis*라는 말에 그 어원을 두고 있음. *communis*는 나누다(shared), 공통의(common), 일반적인(general), 보편적인(universal), 공공의(public) 등의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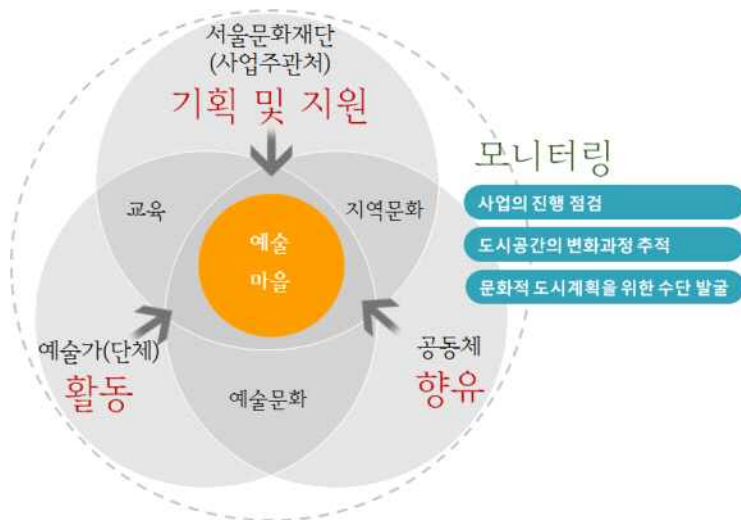
## 2. 지원 전략

### 1) 사업의 주체와 역할

- 서울문화재단은 사업 주관처로 사업의 운영, 관리의 책임을 맡음. 사업의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사업 운영과정에 결합되는 모든 이들(사업단, 컨설팅 그룹, 예술가(단체) 그룹, 시민)의 역량을 높여내는 과정으로 궁극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의 비전과 미션인 ‘교육’ 적 행위가 됨
- 예술가(단체)는 사업의 주체가 되며 문화 예술과 관련된 공통의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체 내 개인의 일상적 삶을 공적영역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예술성, 공동체성, 지역성을 높여내게 되고 ‘활동적 삶’ 을 만들어냄. 이러한 작업은 예술가(단체)들의 ‘예술’ 적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 공동체는 사업의 수혜자이며 관계에 기반을 둔 일상적 삶을 영위하면서 사업을 통해 일상에 침투된 예술적 사건은 마을의 기억과 가치를 새롭게 각성시키고, 분절화된 개인적 삶을 공동체의 공적영역으로 묶어냄으로써 이웃과 마을에 속한 일원으로 예술적 삶을 살아가게 함. 공동체의 비전은 ‘문화적 삶’ , ‘예술적 삶’ 을 통한 활동적 삶을 만들고 향유하는 데 있음
- 서울문화재단과 예술가(단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예술의 확산을 위한 협력을 만들어내게 됨. 서울문화재단은 공동체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지원과 연구를 사업과 병행시킴으로써 한국적 공동체 문화예술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축적시키는 역할과 더불어 예술가(단체)가 사업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수행함.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해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협력함으로써 사업 운영을 내용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서울문화재단과 사업의 수혜자인 공동체는 지역문화강화, 즉, 지속가능한 예술문화공동체로의 복귀와 강화에 중심 가치를 두고 상호작용하게 됨.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지역적, 경제적으로 문화향유가

어려운 사람들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구현의 차원에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함

- 예술가(단체)와 공동체는 예술적 활동을 통해 만나게 되고, 이 과정은 예술가(단체)에게 예술작업의 일환이 되고, 공동체는 예술적 가치로 마을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됨. 예술가(단체)는 예술적 행위로, 공동체는 사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성과를 창출시키게 됨
-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체와 객체가 나뉘는 일방향적인 사업을 지양함. 사업의 핵심 주체간 역동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각자가 지향하는 비전과 미션을 성취해나가는 과정 중심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룹을 선정하여, 사업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대상 공동체가 속해 있는 지역 및 도시 공간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차후 좀 더 구체적인 문화적 도시계획을 위한 설정과 수단 발굴의 자료로 쓰일 수 있음



〈그림 5-3〉 사업의 주체와 역할



## 2) 사업 운영 체계

### •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단(위원회)

-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은 단기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문화예술적 활동을 통해 공동체 내 관계를 만들어내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사업임. 또한 공동체는 경제, 문화, 사회, 공간, 역사 등 다양한 제반 문제들이 다양하게 얹혀 있으며 이에 대한 접근은 공동체 문제와 예술적 방법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행정기관의 실무팀만으로는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의 전략 수립 및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탄력적 문제해결을 수행하기 어려움.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성과를 위해선 전체적으로 사업을 운영 관리할 전략 단위로서의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단(위원회)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사업단은 〈예술마을〉 만들기 관련 연구자, 공동체 예술가(커뮤니티 아티스트), 전문 문화기획자로 구성할 수 있음

####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단의 역할

- 사업의 개념 공유
- 사업 전략 공유
- 커뮤니티 아티스트와 컨설턴트 추천
- 사업 심사(현장조사)
- 단위 사업 코칭(CoP 퍼실리테이터)
- 단위 사업 사례 연구
- 사업 성과 평가

### • 공동체 예술가 그룹

- 예술적 활동은 다른 유사사업과 이 사업을 차별화하고 사업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가장 핵심적 내용임
- 앞서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의에서 드러나듯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의 궁극적 지향은 ‘활동적 삶’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야 함

- 예술은 개인적 일상의 삶에서 공적인 ‘활동적 삶’ 으로의 전이를 촉진하는 데 그 역할이 있음. 따라서 예술가들의 역할은 예술적 활동을 만들어내는 데 있으며 예술적 활동은 공동체 예술 혹은 커뮤니티 아트의 형태로 표출되게 됨
- 커뮤니티 아트는 최근 한국에서 활발한 논의의 과정 중에 있는 개념으로 기존 예술작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활동의 형태를 가짐. 예술가와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 창작 활동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만들어가는 예술로서, 이때 특정 공동체의 일상이나 절박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예술작품의 동인을 발견하되 거기서 단순히 소재를 취하는 형식을 지양하고 공동체와 예술가가 깊이 있게 교감하면서 미학적 완성도가 높은 참여의 예술을 일구어내는 것이 중요함.
- 한마디로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성과의 핵심요인은 공동체 네트워크의 성숙도와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단체)의 역량임. 따라서 공동체 예술가(단체)의 역량은 어떤 것이며, 역량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함

#### 공동체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필요 역량 (예시)

-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동기와 의지를 활용하는 역량
- 지역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들을 도시의 지역의 풍광과 조화시키는 역량
- 외부에서 바라본 지역의 조망을 지역의 내부적인 요소들과 통합시키는 역량
- 기억을 지우지 않고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
- 지역에 존재하는 개성을 상찬하는 역량
- 커뮤니티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량
-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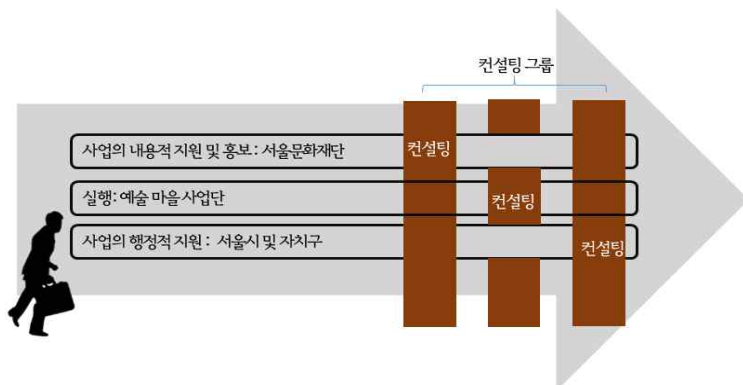
- 공동체 예술에 필요한 기본 역량은 예술가(단체)의 예술 활동에 대한 주관적, 개별적 접근을 최소화하고, 사업 선정 시 공동체 예술가로서의 자질 검증에 있어 최소한의 규범으로 작동함. 또한 공동체 예술 필요역량은 공동체 예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동체 예술가(단체)를 양성하는데 있어서도 교육과정 개발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음
- 공동체 예술의 필요한 기본역량은 사업 선정 시 공동체 예술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작동함. 또한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

어 공동체 예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동체 예술가(단체)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개발의 준거로 활용될 수도 있음

- 공동체 예술의 필요 역량 규명과 병행하여 조사되어야 할 것은 공동체 예술가(단체)에 대한 현황 조사임. 공동체 예술로 여겨지는 그룹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동체 예술 영역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함. 이 과정은 공동체 예술가(단체)들을 데이터베이스(DB)로 기록하는 과정으로 공동체 예술가 풀(pool)을 구성할 수 있게 됨. 공동체 예술가 풀은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 실행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사업 내용의 다각화와 창의적 문화정책을 구현하도록 도울 수 있음

## • 컨설팅 그룹

- 사업 전체 과정에서의 심사, 선정, 코칭 등의 사업 관리를 하는 사업단과 별도로 전문영역의 컨설팅 그룹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즉, 사업의 진행에 있어 전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 단위와 전문지식과 실무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함
- 〈예술마을〉 공동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포괄되어 있어 문화예술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 역사, 경영, 시민복지, 노인, 도시, 생태, 농업, 조형, 장애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필요시 위촉하여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해당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적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 놓아야 함



〈그림 5-4〉 컨설팅 그룹의 역할

### 3. 사업 대상 및 선정 절차

#### 1)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대안

##### ① 공모사업과 시범사업을 구분

- 공모사업과 시범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경우 자발적 주체와 대상을 공모사업으로 발굴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은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두 사업의 개념이 혼동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시범사업은 재단이 주도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대상지 별로 고유한 사업프로세스를 디자인하여 추진함. 시범사업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잠재력이 있으나 공모사업 프로세스에 친숙하지 않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공모사업은 사업의 조건과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사업대상지와 주체를 열어둠. 공모사업의 경우 현장의 예술성이 크지 않더라도 예술활동이 매개될 경우 풍부한 변화 가능성이 있음
- 사후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함

##### ② 2안 : 공모사업으로 단일화

- 성격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의적이고 창의적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본 사업은 기존의 다른 사업(마을공동체, 전통시장 등)이 추진되고 있는 대상지라도 가능함

공동체 핵심장치의 여부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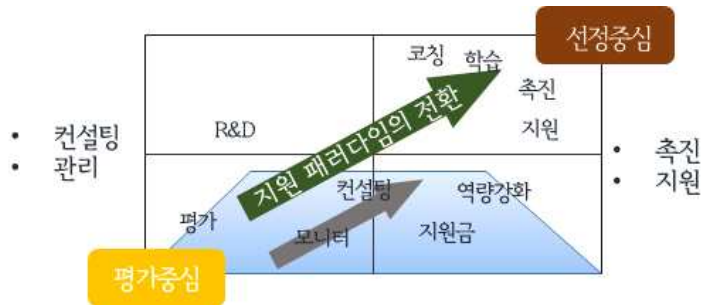
예) 경제적 지속성, 코드와 가치, 네트워크, 활력 문화 공간, 지역 리더

〈그림 5-5〉 공동체 핵심장치 기술

## 2) 공모사업

### • 선정 중심의 지원 절차 마련

- ‘평가’ 중심의 지원 정책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으나, ‘문화’를 담아내기에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평가위주의 지원 정책은 자칫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위축시키게 되고, 그 결과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과 상상력의 증대에 국가 문화정책의 비전이 있음과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됨
- 따라서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의 궁극적 발전을 위한 가장 일차적 전략의 원칙은 대상지 선정에 있어 평가 중심의 지원 패러다임에서 선정 중심의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되어야 함. 즉 문화예술 콘텐츠가 색다르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사업 실행 시 효과적으로 추진할 만한 역량을 갖춘 예술가 및 단체를 선정하는 단계로 사업관리의 중심성을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5-6〉 선정 중심의 절차

- 사업 실행 이후 사업의 잘잘못을 묻는 것이 평가라면, 선정은 사업 실행 이후 가능성을 묻는 것임.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1회적 사업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예술적 활동이 공동체에 씨앗을 뿌리거나 활동적 삶의 계기로 작동하게끔 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장기적 속성을 지니게 됨

- 역량 있는 예술가(단체)를 선정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

#### • 선정 심사 단계(1 단계)

- 공모의 경우 예술가(단체) 대상의 사업 공모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 신청서 내용에는 현장 조사 결과 및 사업의 비전과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함. 더불어 〈예술마을〉 만들기에 대한 개념을 물어봄으로써 사업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인터뷰를 병행하여 진행함
- 신청서를 접수 할 때는 신청 지역의 공동체 핵심사항의 구축 및 기반 여부를 별도로 기술하도록 함. 공동체 역량(공동체성, 지역성, 예술성)은 자체체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평가 척도를 기술하도록 함. 이를 통해 신청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고 차후 퍼실리테이팅 과정에 기반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함
- 공모-신청-접수에 해당하는 행정처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접수내용에 대한 분석은 사업단에서 진행함.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1차 선정을 완료하도록 함

##### 신청서 구성 내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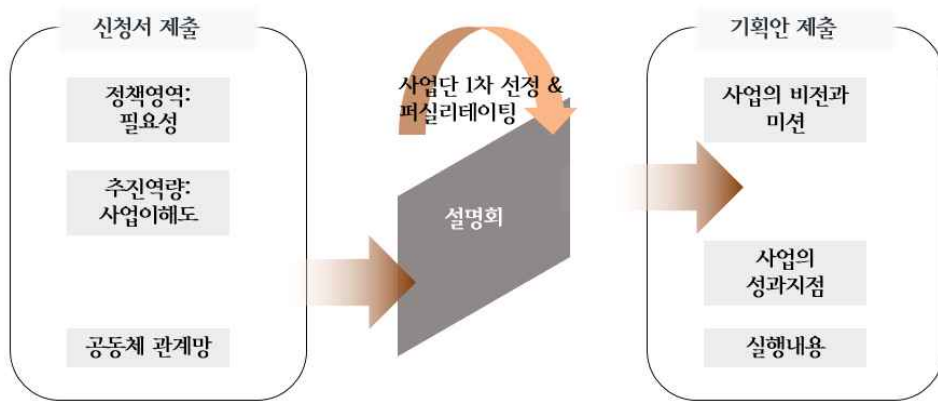
1. 지역조사 기간-언제, 몇회 방문했는가?
2. 지역조사 내용-행정적, 통계적 기술 지양
  - 지역 내 핵심 활동가는 누구인가? : 왜 핵심 활동가라고 판단하게 되었는가?
  - 누구와 만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는가?
  - 지역 내 공동체 현황 : 지역의 절실한 문제는 무엇인가?
  - 지역의 자원(문화, 역사, 공간, 인구학적 특징 등)은 무엇이 있는가?
3. 사업 예측-사업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4. 예술적 활동의 비전-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가?
5. 성과평가-예술가(단체)가 사업을 통해 목표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6. 정책이해 예술마을 만들기 개념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공동체 핵심사항 별도 기술

규모 및 특징	
공동체 핵심 장치	경제적 지속성
	코드와 가치
	네트워킹
	활력 문화 공간
	지역 리더
향후 주목할 지점	
공동체 역량	공동체성 ( ) 지역성 ( ) 예술성 ( )

#### • 기획 단계(최종 선정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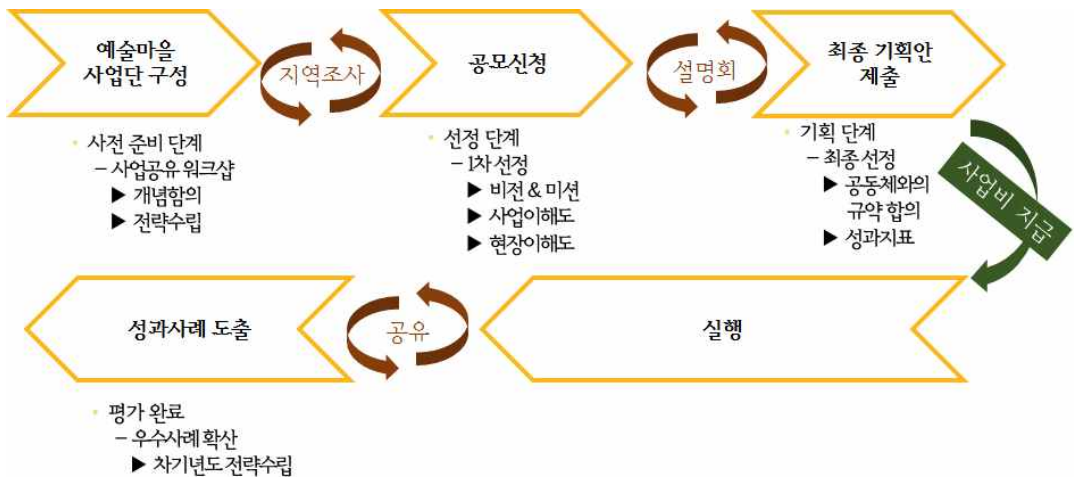
- 1차 선정이 끝나면, 해당 예술가(단체)는 마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함. 이 과정에서 지역 활동가의 역할 및 정례회의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을 정교화함
- 설명회 이후 사업단 내 해당 퍼실리테이터와 설명회를 통해 구체화된 사업 관련 문제점에 대한 공유, 사업의 비전과 목표(예술가와 마을에 대하여 각각 수립함) 재설정, 예산내역 검토, 사업 성과계획 및 평가 지표 도출 등이 기술된 사업 계획안을 토대로 선정 인터뷰를 진행함
- 이 과정은 가급적 예술가(단체), 지역활동가, 해당 퍼실리테이터 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습과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천공동체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5-7〉 퍼실리테이팅 실행

## • 실행 단계

-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기획의 단계가 실행의 단계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절차인 공모-심사선정-실행-평가의 4단계를 사전준비-선정심사-기획-실행-사후관리의 5단계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함



〈그림 5-8〉 공모사업 실행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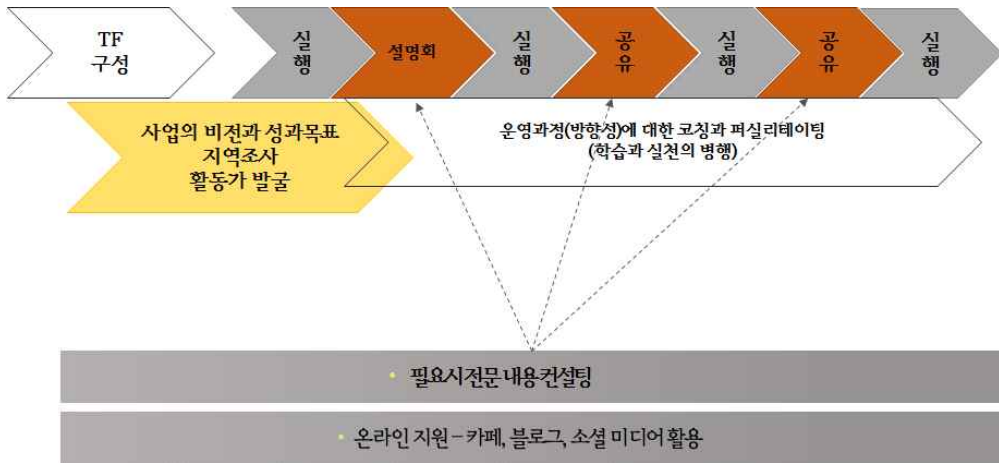
### 3) 시범사업

- **시범사업의 특징**

- 시범사업은 서울시 공간재편 프로젝트와 결합하고, 기존 추진하던 여타 프로젝트를 확대 재구성하여 새로운 전망을 제시
- 시범사업의 실행과정을 추적하면서 도시공간 변화의 메커니즘을 파악함. 향후 문화적 도시계획의 근거로 활용하는 장기적 구상으로 추진

- **관계론적 지원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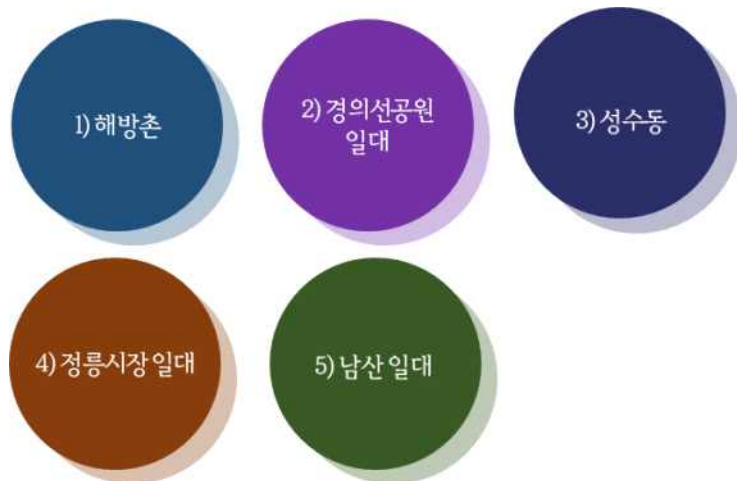
- 시범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과 합치된 방식으로 지원과 운영체계 및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관리방식을 관리와 예산 중심의 개체론적 지원 시스템에서 문화예술적 방식을 채택하는 관계론적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함
- 시범사업 추진 과정은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지속적 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이 됨. 즉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은 실행 주체나 마을 공동체만의 사업이 아닌 행정과 정책 등 각각의 단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움직이게 됨
- 각각의 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그 결과 관계에 기반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어 행정 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옴
- 이러한 지원시스템의 전환은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사업과의 차별성과 고유한 특성을 만들어내는 방안이기도 함



〈그림 5-9〉 관계론적 지원시스템

#### • 시범사업 잠재적 대상지 제안

- 미래에 변화가 예상되는 다양한 유형의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시범사업 잠재적 대상지 5곳 제안
- 사업 다각화 및 발전가능성 모색을 위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한 층위에서 공동체가 형성된 대상지들을 사례지로 선정



〈그림 5-10〉 시범사업 잠재적 대상지

## 4. 중장기 발전 전략

- 1단계 (2015~2017)

- 1단계는 〈예술마을〉 만들기에 대한 정책 실현을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면서, 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사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업의 지원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사업 운영의 목표로 삼음

- 2단계 (2018~2020)

- 2단계는 준비기를 거치면서 생성된 사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토대로 사업을 운영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기임. 사업의 발전전략에서 도출된 사업단을 구성하고, 지원 시스템에 따른 사업 실행을 안정화하여 공동체 발굴과 육성을 동시에 도모함
- 1단계에는 컨설팅과 사업비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추진기에는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높여내기 위한 전문 분야 컨설팅을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구축하도록 함. 이때 컨설팅은 준비기때 시행된 컨설팅과는 다른 개념으로 준비기의 컨설팅은 사업단의 역할로 수렴됨
- 사업 지원의 방식에 있어 우선 지역성의 측면에서는 시설확충이나 공간 활용에 대한 지원항목을 마련한다면 효과가 두드러지겠지만,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방식은 본 사업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보다 분명하게 공간의 ‘내용을 채우는’ 것을 차별화 전략으로 하면서 여타 하드웨어 사업과 전후의 맥락에서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2단계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사업 영역으로는 공동체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 예술가 양성 과정이 있음. 공동체 예술가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과 사업 추진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연구 사업을 통해 제시되어야 할 부분임

- 약한 공동체에 대한 씨앗뿌리기 사업과 강한 공동체에 대한 활성화시키기 사업의 두 축으로 사업의 성과와 평가 내용을 변별함으로써 사업 유형별 특성화된 관리를 하게 됨. 사업의 성과 지점을 백서 출간으로 공식화시켜내는 것도 필요함

### • 3단계 (2021~2023)

- 이 시기에는 앞서 지원된 공동체에서 자립구조 형성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한국형 공동체 예술(커뮤니티 아트) 활동에 대한 개념과 정의, 공동체 예술가(커뮤니티 아티스트)의 특성, 작업 내용 등을 종합 정리해 냄으로써 공동체 예술가(커뮤니티 아티스트) 풀(pool)을 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사업의 다각화 전략을 동시에 모색하도록 함. <예술마을> 만들기는 궁극에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에 지역과의 공조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된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함

### • 4단계 (2024~2026)

- 4단계는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임. 지난 시기에 공동체가 확립된 곳에서는 공동체 내부의 예술성, 공동체성, 지역성이 고양됨에 따라 예술활동에 있어서도 생산자이자 능동적 참여자의 모습을 띄게 됨.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하며 다양한 자립 모델을 발굴하여 자기조직화의 양상을 만들어내야 함
- 사업비 지원은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의 형태로 변화되며,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함.
- 공동체 내 네트워크 형태는 점의 단계에서 점과 점이 연결되는 선의 형태로, 이후에는 선과 선이 연결되는 면의 형태를 거쳐 시공간을 아우르는 입체적 모습으로 진화발전하게 될 것임

〈표 5-1〉 중장기 발전 전략

구분	1단계 (2015~2017)	2단계 (2018~2020)	3단계 (2021~2023)	4단계 (2024~2026)
사업운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정체성 확립</li> <li>▪ 지원전략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에 따른 사업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자립구조 형성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문화공동체 확산</li> </ul>
공동체성/지역성/예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유, 수동</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능동</li> </ul>
실행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F 구성</li> <li>▪ 시범사업 실시</li> <li>▪ 발전방안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시스템 안착</li> <li>▪ 공동체 육성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예술 전문가 풀 구축</li> <li>▪ 연대 전략</li> <li>▪ 공동체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마을공동체 지자체 지원조직 구성</li> <li>▪ 자립모델 발굴</li> <li>▪ 간접지원 정책</li> </ul>
지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li> <li>▪ 사업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원</li> <li>▪ 컨설팅</li> <li>▪ 지역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과정 개발</li> <li>▪ 사업비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원</li> <li>▪ 부분 재정지원</li> <li>▪ 지역 대학 및 교육기관 연계</li> <li>▪ 지자체 연대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공동체 사업 통폐합</li> <li>▪ 운영 컨설팅</li> <li>▪ 자립 환경조성</li> </ul>
관리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li> <li>▪ 모니터링</li> <li>▪ 문화적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별 특성화 관리</li> <li>▪ 사업백서 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 조직</li> <li>▪ 주체간 조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li> <li>▪ 학습관리</li> </ul>



# 부록

시범사업  
대상지  
검토자료





# 시범사업 대상지 검토

1) 해방촌

2) 경의선공원 일대

3) 성수동

4) 정릉시장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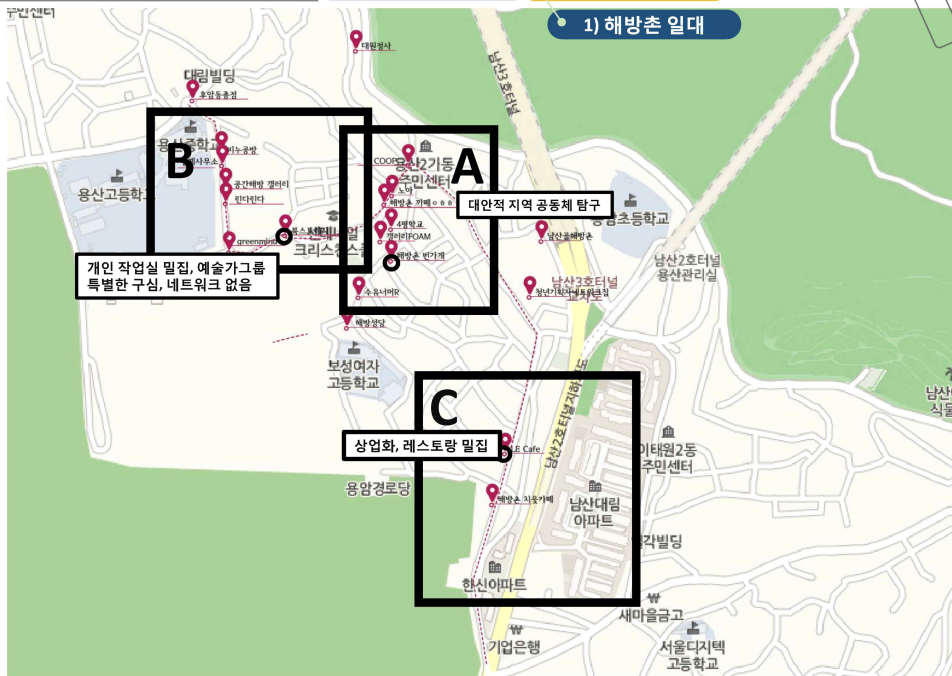
5) 남산 일대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1) 해방촌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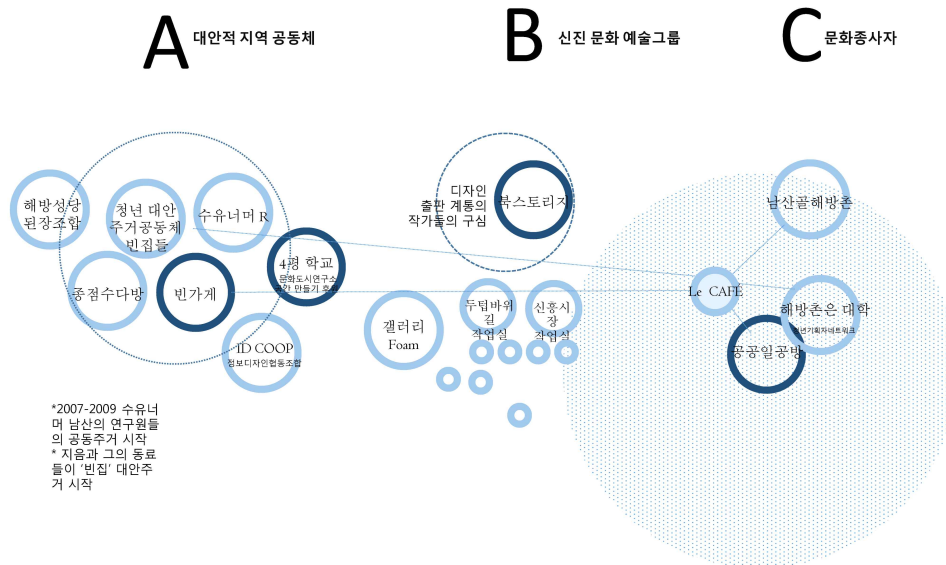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1) 해방촌 일대

관계도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1) 해방촌 일대



#### 독립출판디자인과 관심 있는 일반인을 잇는 교두보

필름 카메라와 독립 출판물을 함께 판매하는 서점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소개하고자 대형 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개성 있는 사진잡자나 시집 등 독립 출판물을 전시 판매  
독립출판을 하는 디자이너들의 창고, 또 독립출판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독립 출판,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유료강의를 통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구심점이 됨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 1) 해방촌 일대

#### 그림마인드

•에코 라이프 매거진

####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

사람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잡지.  
환경을 생각하고 일상을 공유, 삶의 여유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  
해방촌의 오픈한 사무실에서 소소한 파티 및 이벤트 진행하고 주변의 북스  
토리와의 네트워크 구축하고자 노력.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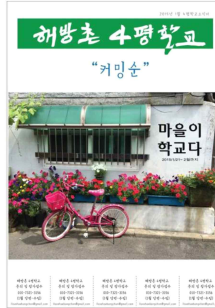
#### 1) 해방촌 일대

#### 해방촌4평학교

•공공공간

#### 대안개발에 대한 연구, 해방촌 주민의 동아리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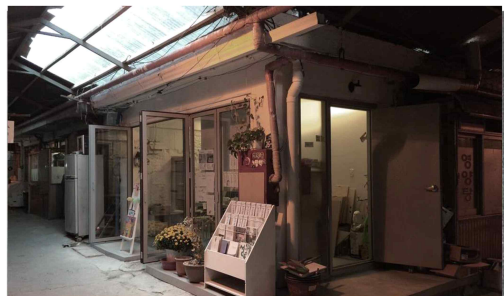
일터를 마치고 돌아온 마을과 나의 공간인 집 사이에  
일과외의 일상을 이웃과 꾸미는 공간  
아웃에게 배우는 마을학교의 개념으로, 협동조합형 마을 공방, 우리마을 대안개발연  
구모임 외에 워크, 전시, 스터디, 소모임, 소공업, 마을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됨.



f '해방촌4평학교' 페이지

첫번째 이야기 2014년 09월

## 해방촌 4평 학교



우리 마을에서 무언가 하려는데,  
공간이 필요한 사람,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싶은 사람.  
이런 분은,  
신흥시장안에 "해방촌4학교" 로 오세요

[해방촌4평학교]는 마을에서 즐거운 일상들 이웃과 같이  
만들어가고자 만들어진, 해방촌1번지에 창간 글썽한 반공간입니다.

문의: ilovehaebangchon@gmail.com



[위치] 신흥시장 내  
용산동2가 1-63번지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1) 해방촌 일대

ID co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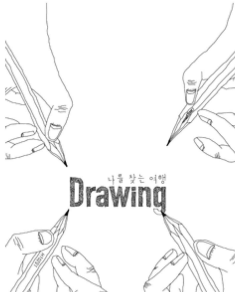
•정보디자인협동조합

#### 디자이너들의 공동작업실이자 복합문화공간

공동작업실과 디자인카페 개념의 공간

문화를 나누고 지식을 공유할 수도 있는 열린공간

조합원 및 정보디자인 관련 사람들과 협업하고 디자인 카페를 통해 작업물 홍보, 조합원들은 가치를 높이고 실력을 심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에는 즐거운 소통이 되도록 노력함.



서울 용산구 용산2가동 1-1136번지  
평 일 AM 9 - PM 9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1) 해방촌 일대

Gallery Form

•커뮤니티전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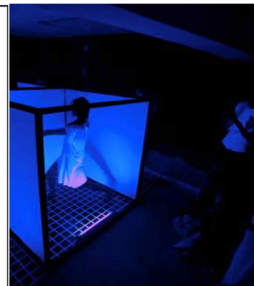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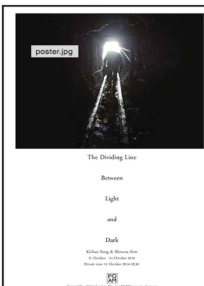
#### 신진작가들의 교류의 장

아티스트들로 운영되는 대안공간

신중시장이 주는 예술적 감흥에 매료.

신진작가 발굴과 해외작가와의 교류를 통한 문화다원화를 목적으로 설립

다양한 예술작업을 폐공간에 전개하여 예술의 활동이 범죄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음.



서울시 용산구 용산 2가동 1-480  
평 일 PM 12 - PM 6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 1) 해방촌 일대

해방촌의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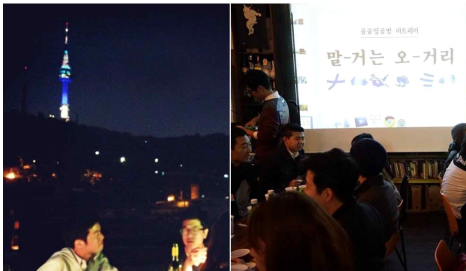
카뮤니티아트페어

#### 청년 예술가들의 자립과 네트워크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공공일공방이 관찰한 해방촌 동네 정서와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그에 관한 기록을 전시

필요와 욕구에 따라 용도를 계속 바꾸어나갈 수 있는 지역의 공간을 위해  
청년, 주민, 다문화 이주민과 함께 만나 지속적으로 교류하고자함.



말-거는 오-거리

오-거리

201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공일공방 해방촌 커먼 나티비트페어

투어X전시 아토틀X마켓 워크숍X책체

**11월23일 -12월07일**

용산구 용산2가동 해방촌오거리 일대  
목시점역 2번 출구  
숙대입구역 3번 출구  
2번 마을버스 (해방촌오거리)

해이스트 @yeswellsurvive  
웹사이트 yeswellsurvive.com  
문의 최현호 010.8844.9396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 1) 해방촌 일대

남산골해방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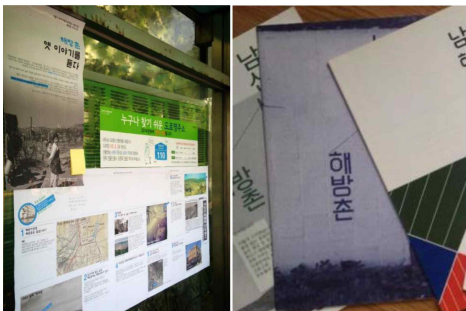
동네잡지

#### 도시창조계급의 지역아카이브

해방촌의 젊은 동네주민과 해방촌에 관심있어 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드는 동네잡지

마을 자원의 아카이브 구축하는 동네 동아리

다양한 그룹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느슨한 연대의 끈



Screenings & Release Rooftop Party

**13**  
답다  
ON ARCHIVING

Haebangchon Archive Film  
Namsangol Magazine 5th Isu

해방촌 아카이브 영상 상영회  
남산골해방촌5호 달간 옥상파티

**1941/20**  
해방촌을  
HAEBANGCHON

WHEN\_ 6PM/SAT./28/SEP./  
WHERE\_ 후삼동2가 27-41가길은행8호상  
WHO\_ 관심있는 누구나  
MAGAZINE 남산골 해방촌 5호 제작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 공모사업

#### 시범사업

##### 1) 해방촌 일대

#### 주요특징 및 시사점

#### 주체: 대안적 삶, 다른 삶, 일상의 삶... 다양한 젊은이들

	A 대안적인 삶 · 시도하는 젊은이들	B 자신의 작업을 구축하는 젊은이들	C 도시 서비스업 종사자, 문화예술생활 추구, 바쁜 생업 종사자
연령	1980년대 이후 생 20, 30대 청년 사회초년생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경험이 가치 있는 시기	20대 후반 ~ 30대 초반 자기 작업과 역할을 구축 하 려는 젊은이들 자신의 브랜드 창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사람들	20대 후반 ~ 30대 초반 도시 서비스업 종사자가 주축 사회초년생, 외국생활 경험자들 정착 문화 예술 생활 추구, 바쁜 생업 종사자
하는 일	인문사회연구자 활동가 수유너머, 인문사회연구자, 빈집(대안적 삶)을 살친	작업실 운영 직접 판매 위주 보다는 인터넷 주문, 워크숍 교육, 프로 그램 운영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디자인 의상, 뮤지션, 사진 연극 등 예술 계통 종사자, 건축 아르바이트 경험 많음
성향 철학	• 대안적 삶의 모색 • 해방촌의 변화를 자연히 고차 하는 노력, 공 동체적인 삶 모색 • 내부에서 순환하는 소비	• 작업실 마련이 우선 • 외부 의존도는 크지 않으나, 외부에 의존하는 소비 에 동참할 가능성 있음	• 지방/외국에서 상경한 20대~30대 • 전반적인 도심 산업에 두루 종사 • 이국적, 다양한 생활 방식에 매력을 느낌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 공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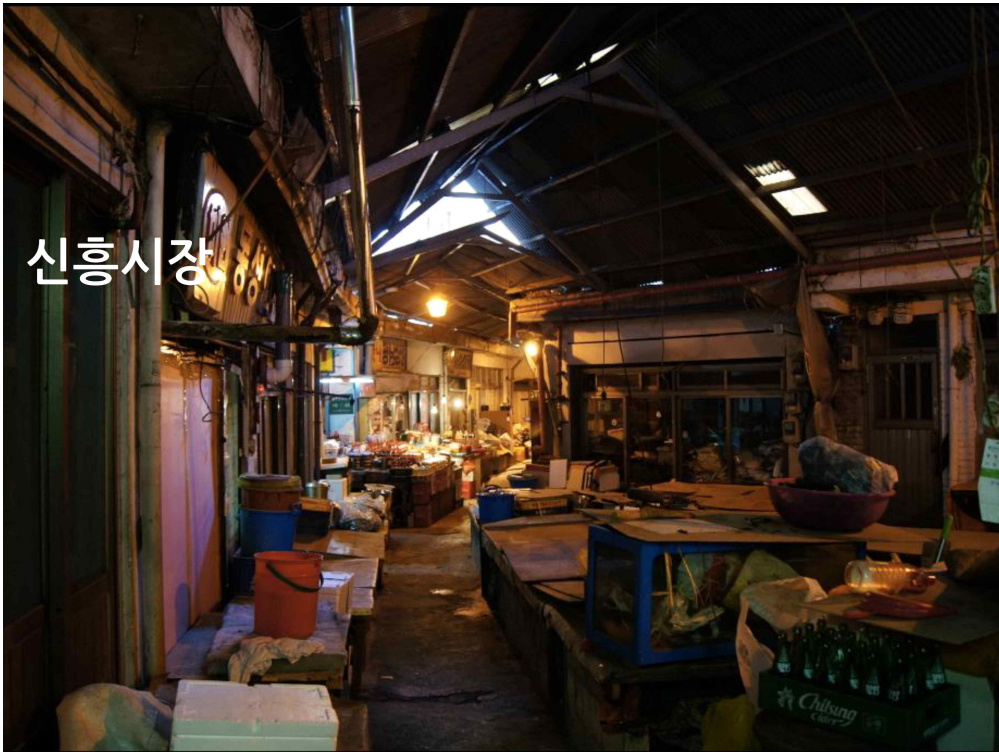
#### 시범사업

##### 1) 해방촌 일대

#### 주요특징 및 시사점

#### 조건1: 낮은 진입 장벽, 젊은이들 진입할 수 있는 임대료, 다양한 임대 방법

<b>입지</b> 서울의 중심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접근 어려움 6호선 녹사평 역, 4호선 숙대입구역	<b>물리적 상태(A,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0년대에 지어진 20년 이상 된 2~3층의 단독, 다세대 주택</li> <li>1980년대 재개발 기본 인프라 정비</li> <li>남산 높이 고도제한 이후 대규모 재건축 없음</li> </ul>	<b>입주형태_주거(A,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젊은 사람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 진입이 쉬운 임대 방식</li> <li>오피스텔, 지층</li> </ul>	<b>문화자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0년대 이후 이방성(異方性)을 확장·변주해옴</li> <li>미국, 원어민강사,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노동자, 다국적공동체</li> </ul>
<b>생활권</b> 이태원, 남대문시장 거대 상권 인접 남산 남경사면에 인접	<b>물리적 상태(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0년대에 지어진 30년 이상 된 2~3층의 단독, 다세대 주택</li> <li>기반시설 열악</li> <li>시장의 기능을 잃어 버린 신흥시장</li> </ul>	<b>입주형태_상가(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규모의 상가(대규모 상업시설 입지 어려움)</li> <li>주택을 근린상가로 개조 시작</li> <li>관리금 5천~1억 5천 등 개조 시작</li> </ul>	<b>인접지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산기지, 외국 공관</li> <li>6호선 홍대입구</li> </ul>
		<b>입주형태_작업실(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렴한 보증금 임대료(600만~1000만)</li> <li>젊은 사람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li> <li>신흥시장(15만원/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 공간으로, 모방할 수 없는 고유한 이미지</li> </ul>



## 신흥시장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 공모사업

#### 시범사업

##### 1) 해방촌 일대

#### 주요특징 및 시사점

**조건2: 완전 망한 후**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 결정적 변화의 시기

1950s	1970s	1980s	1990s	2000s	2010s
해방촌 형성	새로운 문화유입지로서의 이터원	해방촌의 전성기		쇠퇴와 부흥노력	
판자촌 형성 기자촌 형성		강남 개발 시작		2004년 미군부대 이전 결정 2004년 녹지축 조성 발표	
				미군의 임대 수요 사라짐 해방촌 임대시장 침체	
				스웨터 공장, 인력 빠져나감 신흥시장, 공장 등 공실 발생	
해방촌 월남인 마을 형성 판자촌	가배수공업 부흥 신흥시장 전성기	재건축, 재개발	미군 부대의 주거지 외국인 임대수익	미군 임대수요 없어짐 → 임대시장 난항 스웨터 가배수공업 → 중국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07 인문사회연구보고 임수유니버시티로 인문사회학도들의 유입 → 빈집, 빈가게</li><li>미군이 나간 자리를 원 어민 강사, 재국의 외 국인들이 채움</li><li>부재자주들이 건물 재 정비 후 젊은이들의 유 입이 이루어짐</li></ul>

## ■ 시범사업 시행 시 기대효과

## | 시범사업\_case

- 공간 범위 \_ 계 기능을 잃고 빈 공간으로 버려두는 신흥시장, 열악한 환경 탓에 쇠퇴하고 있는 두타뱌위길 주변을 대상으로 함
- 주체 \_ 자신의 브랜드 창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신흥시장\_두타뱌위길 지역 예술가가 주축이 될 수 있음,
- 정체성\_ 해방촌 특유의 지역 커뮤니티(월남인 마을, 외국인 주거지의 특성과 대안적 지역공동체의 생각이 많은 인문 사회적 연구그룹들의 특징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욕구가 많은 지역의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해방촌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풍부하게 함

## 시범사업 대상지 검토

1) 해방촌

2) 경의선공원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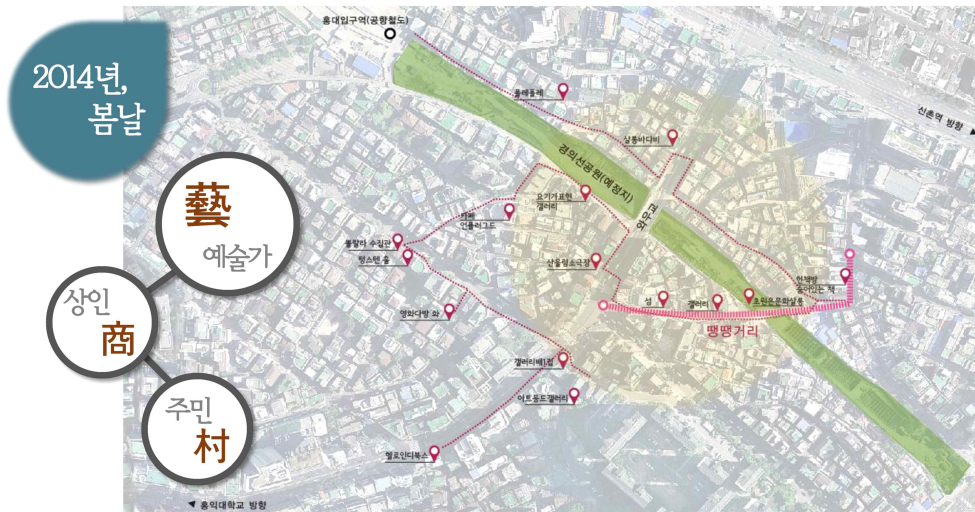
3) 성수동

4) 정릉시장 일대

5) 남산 일대



일명 <땡땡거리>에서 경의선공원(조성부지)를 중심으로  
동네예술가, 상인, 그리고 주민이 만드는 “예상촌(藝商村) 프로젝트” 시작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2) 경의선공원 일대

경의선공원 및 주변지역 문화자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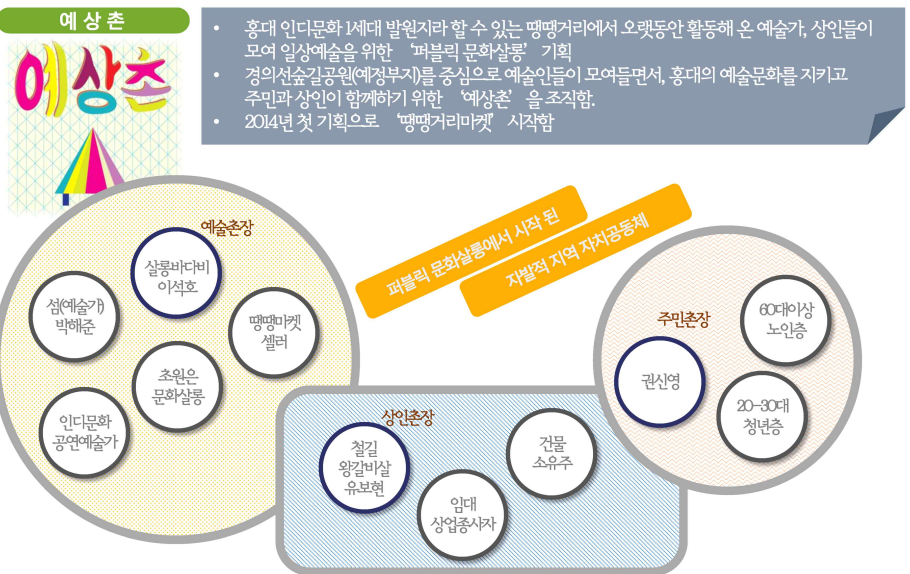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2) 경의선공원 일대

자원분포 및 운영현황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 2) 경의선공원 일대

#### 초원문화살롱

•친환경아트무브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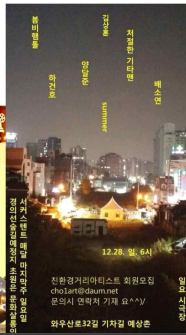
#### 홍대 인디문화 예술가들의 친환경 문예운동

활동주체 - 문화예술공동체(사슴들)

소통과 배려, 지역의 의식변화를 가져와며, 주민과의 교감을 원하는 활동

주요 활동 - 시 낭독회, 음악 공연, 영화제, 마인 등

모든 예술문화 활동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 2) 경의선공원 일대

#### 땅땡거리마켓

•커뮤니티아트페어  
•경의선공원조성부지 활용

#### 주민과 예술가들의 벼룩시장

시민, 예술가, 창작자들의 주말장터

창작예술가터 + 벼룩시장의 결합형 컨셉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소통과 생활의 활력 장소로 등장.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2) 경의선공원 일대

#### 자원분포 및 운영현황

예 - 상 - 촌

#### 예술가 활동의 장 마련, 활동 지원

2010년 활력마켓

2014년 제1회 땡땡거리마켓

친환경 아트무브먼트 <초원문화살롱>, <초원문화관>

#### 홍대 인디문화지원 발굴, 활성화

2014년 제1회 인디로드 페스티벌(9.26~28)

3일간, 10개의 테마, 36곳의 문화공간, 73개의 프로그램

2015

#### 예술가-상인-주민 지역 연대 강화

1예-1상-1촌 마을학교 개최 (2015년)

땡땡거리 매거진 발행 (2015년)

예술가 뒷밭, 땡땡거리 축제 (예정)

“주민들의 자생적인 노력으로 활동을 지속해옴.  
그러나 이제는 공공지원을 통해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

-예술촌장보행-

25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2) 경의선공원 일대

#### 인터뷰

이석호

• 예술촌장

#### 공공의 역할과 지원 방향

- 공공지원이 한정된 곳으로 반복,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다수의 커뮤니티에게 공평해야 함
- 새로운 공간 및 자원을 발굴할 것이 아니라, 기존 주민공동체/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공공 사업 기획은 현장주체들과 협치 되어야 함. 프로그램 운영권한과 자율권을 부여해야 함

권신영

• 주민촌장

#### 지역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주민들의 입장

- 약 20년간 거주했던 주민으로서 땡땡거리가 다시 활력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활동시작
- 주민들은 활력마켓, 문화공연 등의 행사에 참여, 홍보비용 등을 협조하고 있으며, 예상촌 운영에 대한 호응이 긍정적임
- 경의선 공원 시설에 주민 요구가 반영되길 바라며, 문화행사에 대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바램

26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2) 경의선공원 일대

#### ■ 땡땡거리, 예상촌의 시작점/배경은?

- 땡땡거리는 경의선 철길 영향과 홍대문화상권의 외곽지역을 이유로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었음
- 인디문화 1세대 발원지로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생활해 온 예술가/상인/주민들이 있음
- 경의선 부지 공원화를 계기로 지역의 변화상에 대한 기대가 높음
- 홍대문화의 발전 및 진화, 변화상에 대한 경험, 노하우 바탕이 있음

#### ■ 예상촌 활동 시사점

- 예상촌은 지역의 문화예술가 및 주민-상인 기반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가능함
- 옛 홍대문화/인디문화에 대한 공동의 문화적 감성, 코드가 바탕이 됨
- 경의선 공원이라는 매력적인 공공의 공간은 예술가들의 활동과 시민참여 활동을 촉발하는 장소임

27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2) 경의선공원 일대

#### ■ 시범사업 시행 시 기대효과

- 과거 전성기를 이끈 홍대 인디문화의 새로운 진화방식을 모색하는 단초를 제공함
- 주민과 예술가 및 상인을 포함하는 지역 네트워크 형성으로 예술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함
- 경의선 공원(와우교~서강나루 구간)의 자발적 민간조직 <가칭> 프렌즈 오브 경의선 형성 기반 마련
- 예술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공공(유휴)부지 활용 방법 모델 제시
- 경의선 공원 설계에 대하여 지역의 주요 활동 주체인 예상촌(예술가, 상인, 주민)의 니즈 반영 가능

#### ■ 시범사업 case

##### 활동 주체

예상촌(대표적 주체조직)  
인디문화 활동 예술가  
땡땡거리 셀러  
지역 상인회  
지역 주민

##### 공간적 범위

땡땡거리 중심  
경의선 공원 조성 예정부지

##### 의미

지역주민과 예술가 교류에 의한  
새로운 대안문화 시도

새로운 지역문화 거점으로  
경의선공원 포지셔닝



# 시범사업 대상지 검토

1) 해방촌

2) 경의선공원 일대

3) 성수동

4) 정릉시장 일대

5) 남산 일대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3) 성수동

성수동은 크게 서울숲 인근 지역 “성수동 서울숲 골목” 과  
수제화 거리와 준공업지역이 밀집한 “성수동 수제화거리 일대” 로 나뉨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 3) 성수동\_서울숲 골목

녹색공유센터, 더 나은 미래,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등을 시작으로  
사회적 기업, 가족공방, 아트갤러리 등의 공간이 생기고 있음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 3) 성수동\_서울숲 골목

자원분포 및 운영현황

#### 서울그린트러스트 녹색공유센터

- 성수동 동네꽃축제로 인한 예술가들의 유입과 인근 지역의 홍보유도
- 마을의 화분, 벽화, 데크 설치 작업 등의 변화를 통해 지역의 녹색 문화를 확산
- 각 예술가들의 정보교환 및 작품전시를 함께 협업 하면서 예술인들의 유대감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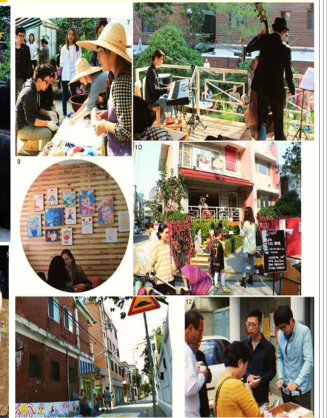
#### 지역축제 (성수동 동네꽃축제)



#### 녹색문화 - 지역환경변화



#### 문화예술의 네트워크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3) 성수동\_서울숲 골목

#### 자원분포 및 운영현황

D-well

-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를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투트임팩트'가 조성한 주거기반 커뮤니티로 20~30대 청년 16명이 거주하고 약 150명의 체인지메이커들이 교류하는 '살롱'으로 구성
- 2014년 5월, 3층 건물을 매입해 셰어하우스 전문업체 'WOZOO(우주)'와 파트너십 체결
- 매주 다양한 주제의 토론 진행 및 '살롱'의 경우 대관을 신청해 이용할 수 있음

체인지메이커들의 교류공간 '살롱'

거주기반 커뮤니티

다양한 세미나



1월 @ D-WELL SALON

SUN	MON	TUE	WED	THU	FRI	SAT
4	5	6 ★	7	8	9	10
		1% 살롱 #5 주거공간 #1		살롱에 참가 신청 (0.8 - 0.31)		
11	12	13 ★	14	15	16	17
		살롱에 참가 주거공간 #1				
18	19	20 ★	21	22 ★	23	24 ★
		1% 살롱 #5 주거공간 #1		살롱에 참가 신청 (0.8 - 0.31)		주거공간
25	26	27 ★	28	29	30	31 ★
		살롱에 참가 주거공간 #1				1% 살롱 #6

1% 살롱 #6  
[공유를 통해 도시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 도시의 공동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 주거 공간으로서 도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들  
- 주거 공간으로서 도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들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3) 성수동\_서울숲 골목

#### 자원분포 및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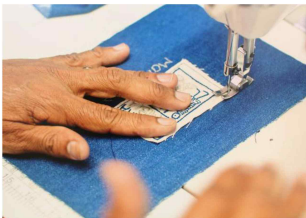
펜두카

- 120명의 빈민 장애 여성 공동체인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펜두카(Penduka), 캄보디아 일사이틀링 브랜드 스마테리아(Smaterya)로부터 제품을 수입
- 한국 디자이너가 기본적인 디자인을 구성하고 제품 사이즈와 색깔을 정해 주면 현지에서 맞춤 제작을 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

제3세계 여성들의 수공업품

사회공헌 활동 '공정무역'

지구를 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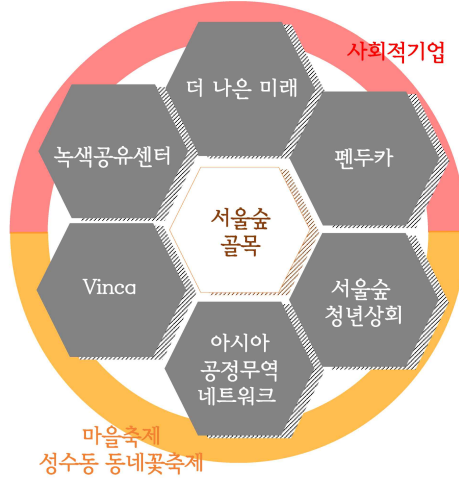
### 3.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3) 성수동\_서울숲 골목

#### 자원분포 및 운영현황



### 3.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3) 성수동\_서울숲 골목

#### 인터뷰



#### 구청 및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협력을 통한 마을 네트워킹

- 서울숲과의 근접성, 편리한 교통, 조용하고 아늑한 골목 분위기, 저렴한 임대료로 입성
- 건물주나 사업자의 활동과 달리 주민은 활동 주체로 드러나지 않아 소통이 어려움
- 전시, 산책 프로그램, 베품시장 등을 위해 지역 내 기업, 구청,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협력
- 앞으로 성수동이 알려져 상권이 활성화 되길 바라는 마음과 임대료 상승 걱정을 동시에 지님
- 공공기관은 프로그램 홍보, 공유공간 확보 및 제공 등의 역할 가능

#### 다양한 예술인들의 유입

- 2014년부터 변화가 진행되어 현재 사회적 기업 관련 100여명이 유입된 상태임
- 성수동은 서울숲, 지식산업체 분포로 인한 소비층 존재, 편리한 교통으로 유입인구 증가 중
- 화가, 구두 디자이너, 작곡가, 가족 공방, 도자기 공방, 웨어하우스, 한복 디자이너 등 유입

#### 청년 사회적기업 CEO들의 교류를 통한 변화

- 예술인과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돈독해 진다면 어느 정도의 젠트리피케이션 영향은 줄 일 수 있다고 생각함
- 홍보와 마케팅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 지고 지역민들 외에도 외부사람들도 참여 가능한 공간이 확장되면 지역 홍보 효과에 더 유익할 것이라 생각됨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 3) 성수동\_서울숲 골목

## 인터뷰

RNB 대표

음식문화를 통한 지역축제 유도

- 성수동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통해 들어오게 됨
- 친환경 및 지역 재료 활용, 요리교실 운영, 서울숲 내 도시락 파티 등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 공공의 역할은 홍보 뿐이며 그 외 바라지 않음

## 오히려

##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수요층 확대

- 편리한 교통시설과 저렴한 임대료 근처에 가족을 댈 수 있는 지리적요건 때문에 성수동 입성
- 2012년 처음으로 오픈하였고 현재는 판매 및 가족공방을 운영하고 있음
- 성수동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의 작품들 전시 할 수 있는 스케이스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음
- 서술술 지역과 똑같은데 성수동 근처에 위치한 주재와 가게를 연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
- 청년들을 위한 교육시설 공간이 생겨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 3) 성수동\_수제화거리 일대

준공업지역의 빈 공장을 중심으로

디자이너들의 커뮤니티 및 휴식 공간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 3) 성수동\_수제화거리 일대

## 자원분포 및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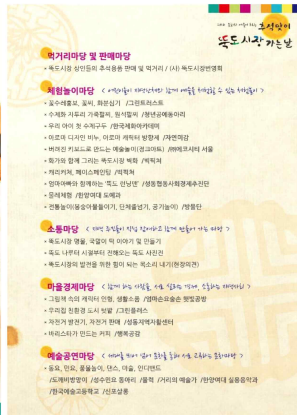
뚝도 시장

- ‘뚝도시장 변형화’, ‘성동협동사회경제체주진단’ 이 주관하고 구성에서 주최하는 ‘뚝도시장 가는날’ 축제를 통해, 인근지역의 예술가 뿐 아니라 대학 도예학과 학생들도 참여하는 지역 축제 운영
- 하지만 성수동 수재화 거리와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침체 되어 있는 상황.

전통재래시장과 함께 하는 지역 축제



## 지역민과 기관이 함께 하는 예술문화



### 침체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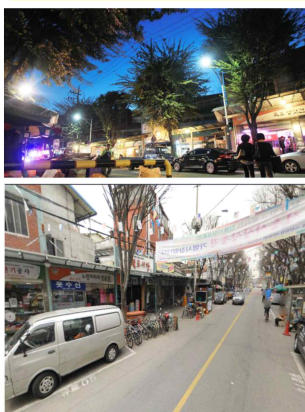
### 3) 성수동\_수제화거리 일대

## 자원분포 및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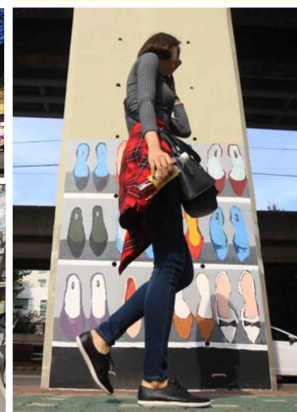
## 변신합체

- 성수동 주민이자 벽화화가인 신귀동(47)씨와 드로잉 작가, 시인 등이 뭉쳐 독도시장에 자리잡은 마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
- 미로 같은 시장길 여행을 위해 ‘독도시장 박물관 올레길’ 이란 이름의 지도제작
- 독도시장에 자리잡아 시장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 성수동 주민이 벽화화가



마을주민 커뮤니티 공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3) 성수동\_수제화거리 일대

#### ■ 자원분포 및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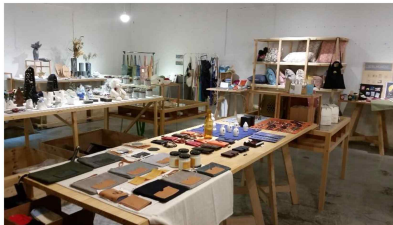
##### 보부상회

- 그래픽, 제품 디자인, 건축, 금속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황병준, 이정은, 함수현, 선종백, 강슬기 5명이 주도하여 설립한 보부상회 디자인협동조합은 디자인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면 누구나 쉽게 교류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조성
- 기존의 유통채널 과 다르게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생산자에 수익을 증대 시키고자 함

디자이너들의 커뮤니티 공간

생산자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시스템

디자이너들의 전시공간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3) 성수동\_수제화거리 일대

#### ■ 자원분포 및 운영현황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3) 성수동\_수제화거리 일대

#### 인터뷰

황병준

•보부상회 이사장

#### 예술인보다 지역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

-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함.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감한 문제이므로 예술인들이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
- 다만, 마을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의 마을을 가꾸고 변화시킨다면 지가상승을 다소 낮출 수는 있다고 봄
- 보부상회를 통해서도 조금 더 다양한 작가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또 그 아래 비슷한 작가들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협동조합을 구성하기를 바람

SSST

•성수수제화타운

#### 수제화 거리 활성화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필요

- 성수동 수제화 타운은 15개~20개의 업체가 함께하는 기관
- 수제화 거리라고 하지만 홍보가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구입하고자 오는 방문객은 적음
- 2012년 부터 수제화 기능교육을 실시하였고 2014년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아 공모선정기관인 한국제화아카데미와 함께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아직 홍보와 마케팅이 부족하여 수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음 정도는 아님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3) 성수동

####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성수동 동네꽃축제를 계기로 사회적기업 관련 단체들이 유입
  - 기존 소수의 사회적기업 및 문화예술인들이 존재했던 지역의 특성이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축제를 계기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되며 더욱 많은 수의 사회적 기업 관련 단체들이 유입됨
  - 서울그린트러스트와 몇몇 사회적 기업 단체들이 지역주민 및 지역사와 소통하고자 활동을 벌임
  - 사회적 기업유입
  - 공정무역, 착한소비 관련 사회적기업이 서로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노력과 한계
  - 성수동 꽃 축제와 함께 프리마켓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자 함
  - 서울그린트러스트가 3년간 활동을 벌였음에도 아직까지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주민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지 않음
- 지역주민, 수제화거리 상인, 시장상인, 예술가, 사회적기업가, 공장 운영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 준공업지역이 점차 주거지역으로 변화해 가며 지역을 구성하는 주체가 점차 다양화됨
  - 예술가 및 사회적기업가들의 유입으로 기존 상인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상황이 벌어지기도 함
  - 그러나 시장상인-예술가, 지역주민-사회적기업가 등의 주체별 교류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3) 성수동

#### 사업방향 및 예상효과

-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지역축제를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가들의 창조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 기획
- 준공업지역 특유의 빈 공간 넓은 공간을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유공간으로 활용

시범사업 case

#### 활동주체

시민사회주체: 서울그린트러스트  
사회적기업  
문화기획가(범산합체)+상인(독도시장)  
수제화 골목 상인

#### 공간적 범위

서울숲골목, 수제화거리 일대  
및 두 공간을 연계하는 골목

#### 정체성

준공업지역 특유의 도시구조, 건축물  
구조 및 형태 등을 활용한 공유공간  
  
준공업, 패션, 구두, 사회적기업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결합

서울숲골목과 수제화거리를 연결하는 골목길에 유입되고 있는 문화예술관련단체



## 시범사업 대상지 검토

1) 해방촌

2) 경의선공원  
일대

3) 성수동

4) 정릉시장 일대

5) 남산 일대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 4) 정릉시장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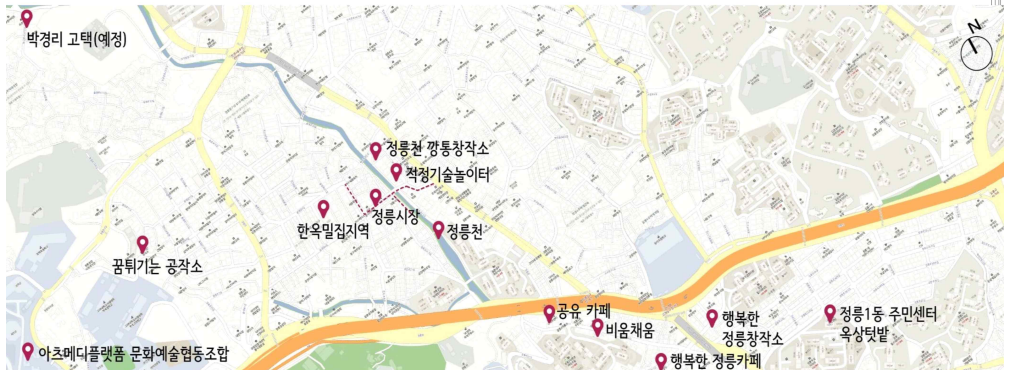
■ 내부순환도로에 걸친 정릉 1, 2, 3동을 중심으로  
문화기획자, 예술가들의 유입이 이루어짐

정릉 1동: 마을예술창작소: 지역주민 공동체 활동

정릉 2동: 정릉공유카페: 지역주민 공동체 활동

정릉 2동: 적정기술놀이터: 문화기획자와 지역주민의 활동

정릉 3동: 정릉 신시장: 문화기획자와 예술가들의 유입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 4) 정릉시장 일대

■ 움직임 I: 문화예술 관련인의 유입

##### 정릉신시장

- 주체: 유알아트 김영현 문화기획자를 주축으로 청년/ 상인/ 주민/ 예술가 조직의 연계 활동이 이루어짐
- 공유공간 '적정기술놀이터' 을 중심으로 사람, 풍경, 상품을 내세울 수 있는 신시장 모델 선도

상인, 주민, 청년, 문화예술인의 4 주체간의 협력

개울장, 주간지 시장사용설명서 등의 프로그램 기획

협동조합 설립과 정릉규약 마련을 통한 신시장 모델 구축

공유공간 확보와 공공자원(개천 및 공원)의 적극적 활용



2014  
공유공간 확보  
적정기술 보급

7월장 개울장 기획(팔장, 놀장, 먹장, 손장)  
주간지 시장사용설명서 발행

정릉규약 마련 및 실천  
상인회 구성원 확대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4) 정릉시장 일대

#### ■ 움직임 2: 마을공동체 회복에 대한 정릉동 주민들의 높은 관심

##### ■ 행복한정릉창작소

10년간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운영해온 엄마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공간  
2013년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공동체 활동이 확대되는 계기가 됨  
일반주민, 연극인들의 재능기부로 그림교실, 기타교실, 엄마들의 바느질 모임, 영화모임 등을 운영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4) 정릉시장 일대

#### ■ 움직임 3: 성북구 기반 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크 구축

##### ■ 공유성북원탁회의

- 성북구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존재
- 서울시 공유촉진 조례안에 근거하여 '공유성북' '실현을 위한 성북구 기반 공간대표, 기획자 그룹,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정보와 생각을 나누는 지식·정보 공유의 장

7차 회의 실시/ 총 95개 단체 152여명 참여(2014. 9. 4 기준)



원탁회의의 결과를 통해 다양한 활동 추진

성과	참여단체
성북도원 공간 조성 및 성북동 기반 인문학 시각자료 전시	문화도시연구소, 스페이스오뉴월
달달한 포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 공동기획	위즈돔, 협동조합 성북신나
시네센터 재개관 행사	창작중심 단디
한양도성 생태탐방로 사업 연계 추진	마을예술창작소, 친구네 옥상, 극단 더듬, 프락시스, 썬곳, 광개토 사물놀이, KYC한국청년연합
문화다양성	청소년 기획자 양성
	좋은공연제작소
	공감영화제
	명랑캠페인
	전통문화 웹툰제작
	락킨코리아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4) 정릉시장 일대

#### 인터뷰 (정릉시장)

김영현

정릉신시장사업단장

##### 기획가의 역할 필요

- 지역주민과 예술가를 매개해주는 역할
- 일반지역주민, 주민 위원회, 거주 예술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조율하는 역할

##### 공유공간 확보, 재정 지원 등의 공공의 역할 필요

- 종합적 계획 및 지원을 위한 행정 필요
- 다양한 집단이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임대해주는 등의 지원 필요
- 양적 성과만이 아니라 문화다양성 정도와 같은 질적 지표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파편적인 마을관련 사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업 필요

- 문화예술가만으로는 예술마을 활성화 기대 어려움, 기획가가 필요함
- 종합적 계획 및 지원을 위한 행정 필요
- 공유공간 확보 및 임대

김종휘

성북문화재단이사장

51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4) 정릉시장 일대

#### 주요특징 및 시사점

##### • 예술가와 지역 주민, 공공기관을 매개하는 기획가의 역할

- 정릉신시장사업단 '마을인시장'
- 지역주민과 예술가의 관계를 매개하고, 행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종합적 계획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획가 필요

##### • 공유공간 '맹모의 부엌 마음먹기' 확보

- 시장 상인의 서무실 기능,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능, 여러 주체간 소통 공간 기능

##### • 다양한 활동주체들의 연결망 구축

- 지역주민, 문화예술인, 공공기관 세 주체가 장소적 거점을 기반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
- 공유성북원탁회의와 같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 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음

52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4) 정릉시장 일대

#### 사업방향 및 예상효과

- 정릉천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공유공간 마련
- 정릉동 일대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인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추진
- 점적으로 파편화되어있는 다양한 마을사업을 연계하여 사업 추진

#### 시범사업 case

##### 활동주체

유알아트 등의 문화기획단체  
행복한정릉창작소 등의 지역주민 단체  
연극인 중심의 문화예술가

##### 공간적 범위

정릉천, 정릉시장, 아리랑시장  
등의 정릉동 일대

##### 정체성

공유경제를 지향하는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의 만남

드러나 있지 않은 예술인들의 활동을  
부각시키고, 활동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의 모델 제시

공유경제를 지향하는 지역 공동체 활동(정릉동)

정릉천  
기상창작소



## 시범사업 대상지 검토

1) 해방촌

2) 경의선공원  
일대

3) 성수동

4) 정릉시장 일대

5) 남산 일대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 5) 남산 일대

문화예술 유산, 인접 관광지, 활용 가능한 서울시 문화시설과 미래자원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혁신적인 방식의 장소 예술 플랫폼의 가능성을 지님

**주체**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등 공공문화기관

**유직임** 국산 애니메이션 콘텐츠 체험 및 소비 공간 '재미로' 조성, 남산소월길 아트헬터

**자원** 관광자원(N서울타워, 남산케이블카), 문화유산(한양도성, 종교시설),  
문화공간(국립극장, 남산도서관, 남산예술센터), 문화기관(서울애니메이션센터, 남산창작센터)

**미래 자원** 남산창작센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한양도성 공원, 서울역 고가, 세운상가 녹지축

**인접 지역** 명동, 충무로, 이태원, 경리단길, 한남동, 회현 및 서울역



재미로

재미로

남산소월길 아트헬터

서울역 고가로 공원(계획)

남산 곤돌라(계획)

N서울타워

55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 5) 남산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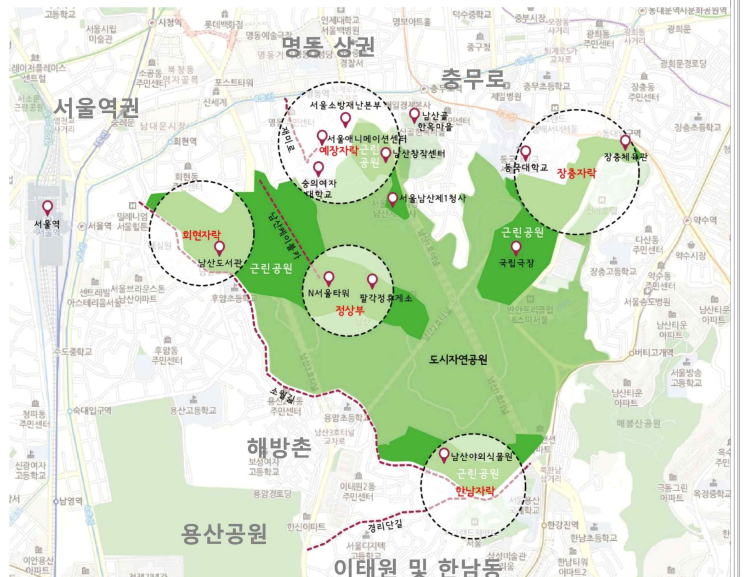
#### 자원분포 및 현황

**관광자원**  
N서울타워  
남산케이블카  
남산골한옥마을

**문화유산**  
한양도성  
누정 및 종교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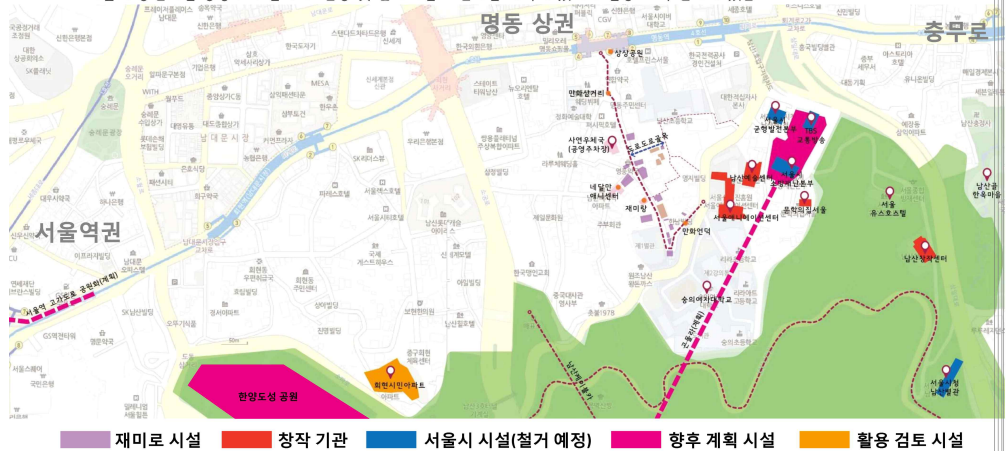
**문화공간시설**  
국립극장  
남산도서관  
남산야외식물원  
남산예술센터  
문학의 집  
강충체육관  
재미랑

**문화기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남산창작센터



자원분포 및 현황 (회현 및 예장동 자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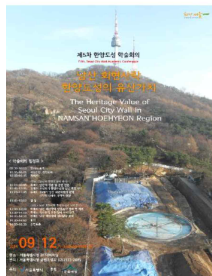
서울을 대표 관광 및 상권 + 창작 예술 시설 + 서울시 철거 공간 + 향후 계획 + 문화유산 + 도시자연 및 관광지 남산  
서울에이메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명동 상권을 잇는 거리에 만화의 거리 재미로가 조성 발전 단계에 있으며,  
창작 및 예술 관련시설과 기관이 밀집하고 있고,  
서울시 공간시설 상당수가 철거 후 관광 및 문화시설로 변화할 계획에 있거나 활용 모색 단계에 있음



## 미래 자원 1

## 한양도성 공원

- 다양한 시대별 축성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근현대 역사 현장
- 201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 한양도성 복원 및 공원 조성 중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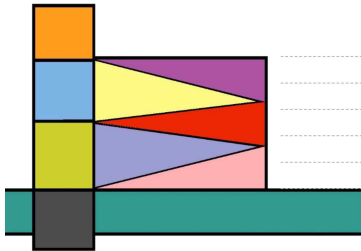
5) 남산 일대

#### 미래 자원 2

곤돌라터미널 복합문화관광센터



- 예술로 관광 : 복합문화관광센터로 조성
- 남산관광의 출발지 : 예정자락 문화클러스터와 연계
- 남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 서울시 시설인 교통방송부지 및 소방재난본부지 활용



옥상 전망대, 스크린과 옥외극장

5층 시민예술센터(서울시민예술대학 미디어랩, 스튜디오, 문화재단 운영사무실)

4층 만원의 예술놀이터(라이브러리 카페)

3층 서울형 음식포털(식음 및 휴게공간)

2층 아트샵, 예술공방, 공공갤러리

1층 카페, 남산정보센터, 서울형 코벤트가든

지하 블랙박스극장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5) 남산 일대

#### 움직임 I: 시민 143명과 예술가가 함께 만든 남산소월길 아트버스쉼터

아트버스쉼터

- 주체 : 건축가, 미술가, 디자이너와 남산소월길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 143명 참여
-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즐거움 경험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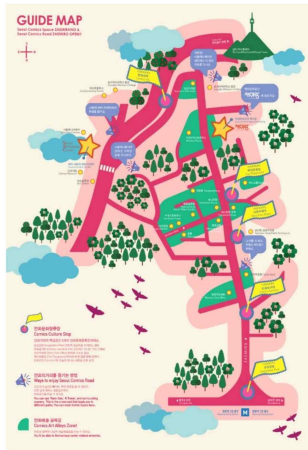
시범사업

5) 남산 일대

#### 움직임 2: 만화의 거리 재미로

재미로

- 주체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70여명의 애니메이션 작가, 지역 상인의 협력 및 참여
- 공유 공간 : 국산 만화 콘텐츠의 홍보, 체험, 판매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 재미랑, 네달만 애니센터



공유공간 : 재미랑, 네 달만 애니센터

이색가게 13곳



61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5) 남산 일대

#### 재미로 참여 주민 인터뷰

재미로의 변화에 대한 판단 & 공공기관의 역할

ABC편의점

이색가게  
(편의점)

언덕의 집

이색가게  
(한식당)

동방홍 대표

이색가게  
(중식당)

- 관련 전문가 및 산업시설이 입지하지 않은 애니메이션 거리사업은 무의미함
- 물리적 인프라보다 플리마켓과 같은 정기적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홍보 및 정체성 확립 필요
- 재정 지원, 공유공간 확보 및 임대, 코디네이터 등 공공기관의 강력한 역할 기대
- 재미로 조성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 및 상권 활성화 등의 변화는 미미함
- 재미로 조성사업 추진 이후 지역 주민(이색가게 상인)의 소통 및 친목도 증가
- 애니메이션센터를 통해 만화작가와 소통해오고 있음
- 공공기관은 홍보와 플리마켓을 위한 임시시설(매대) 설치 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 가능
- 애니메이션센터와 만화작가가 추진한 재미로는 일방적인 사업일 뿐
- 주민, 작가, 공공기관 간의 지향점이 달라 협업이 어려움(이색가게 일부 탈퇴 현상 발생)
- 유치원 수준의 작업 결과물은 지역의 정체성과 괴리되어 있음
- 재미랑과 같은 공유공간의 탄생으로 방문객 유입 증대
- 공공기관은 작가와 주민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돕고 조직을 구성하는 역할 가능

62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5) 남산 일대

#### 재미로 기획팀 인터뷰

김상훈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책임

박보경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팀장

##### 재미로의 추진 과정 및 변화

- 2012년 기본계획 수립, 2013년 재미랑 및 시설 조성, 2014년 재미로 놀자 축제 실행
- 재미랑, 네달만 애니메이션 등의 앵커시설 설치
-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참여작가 네트워크
- 주민의 지지와 구청의 협조 증가

##### 재미로의 추후 계획

- 사례연구 및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 참여작가와의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소통 방법 고민
- 이색가게 구성원 증대와 명동의 유입 인구 확보
- 재미로 놀자 축제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정기적 프로그램 기획
- 핵심 앵커시설 추가 설치(구청 소유 공영주차장 확보 중)

##### 앵커시설 운영 방식

- 재미랑: 국내 만화 콘텐츠의 체험과 구매 공간
- 애니메이션 신축 시 관련 전문가의 창작공간 확보 가능할 것임

#####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 비자발적인 공통체의 경우 새로운 투입 콘텐츠 요소 개발
- 다양한 이해관계자 조율
- 공유공간 확보 및 제공, 예산 확보

63

### 3. 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공모사업

시범사업

5) 남산 일대

#### 주요특징 및 시사점

- 코드와 가치가 공유되지 않은 채 조성된 재미로, 하드웨어의 한계
  - 지역 정체성과 관계없는 보도 포장, 배너 설치 등의 시설 조성에 투입된 예산 낭비
- 열정과 감각을 겸비한 상주 기획가 필요
  - 이상과 감각만을 지닌 예술가와 주민(상인)의 커뮤니케이션 어려움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거나 거주하는 작가가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
  - 공공기관(애니메이션센터)의 소극적 태도 및 역할의 한계
- 활력 문화 공간(재미랑)의 상업, 커뮤니티 효과
  - 지역 주민(상인), 주민과 공공기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지역 허브
  -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부 방문객이 재미로와 관계 맺을 수 있는 공간 기능
- 문화공간으로의 변신 및 활용 가능한 서울시 소유 공간시설 발생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TBS 교통방송 및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남산별관 철거 예정
- 관광 및 상업지역, 문화유산, 예술 창작 기관 등을 포함한 남산의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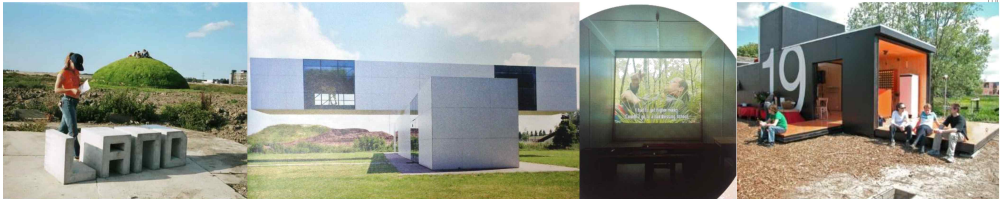


## ■ 사업방향

- 남산골 전체를 거주 장소 단위가 아닌 **공유 공간**으로 인식 및 확장
-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하여 **역사도시경관의 관점**에서 예술가의 개입을 유도함
- 일시적(temporal)인 작업을 포함한 유연하고 혁신적인 방식의 **장소 예술** 시도

## ■ 예상효과

- 예술 프로젝트를 매개로 남산이 서울의 공공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임을 인식하게 함  
(세운상가축을 통한 녹지축 연결, 서울역 고가도로와 한양도성을 통한 역사축 연결, 용산공원을 통한 생태축 연결)
- 주민과 소통하며 잠재적인 요구를 이끌어냄으로써 적절한 공간 형성방식과 가능성 모색
-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고 알림으로써 남산과 인접지역이 문화관광지로 발돋움 함



레이제 레인을 넘어서(Beyond Leidsche Rijn, The Vinex Assignment for Art)

## 참고문헌

- 김새미. (2010). 영국의 문화주도 재생정책: 리버풀과 뉴캐슬게이즈 헤드 사례 비교.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논문.
- 김태영·김현준. (2009). 「공정한 거래의 장, 스피탈필즈 지역 재개발」. 도시재생네트워크, 뉴욕, 런던, 서울의 도시재생 이야기 . Pixelhouse.
- 김한배. (1997). 도시경제와 문화의 역할. 「국토」, 189호, pp.7-13.
- 계기석. (2010).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전략모형의 적용방향 연구: 부천시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3(4). pp.175-194.
- 김현호. (2003). 장소판촉적 지역발전을 위한 장소자산형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36권, pp.77-95.
- 박가희. 2011. 「졸업전시의 신화, yBa ‘Freeze’ 전」. The HANIN Herald 2011년 7월 18일자.
- 심보선·강윤주·전수환. (2010). “문화사회학적 견지에서 바라본 문화예술경영의 이론적 고찰: 시민성, 지역성, 예술성 개념을 중심으로” . 문화와 사회, 제8권
- 이희연. (2008). 「창조도시: 개념과 전략」. 「국토」. 통권 322호. pp.5-15.
- 정진원·김천권. (2012). 문화도시조성 쟁점요인의 중요도 분석: 인천광역시 전문가와 시민집단의 설문조사를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24(3), pp.65-86.
- 조명래. (2011).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성의 회복」. 공간과 사회. 통권 37권. pp.39-65.
- 김정이 외 5인. (2010).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Bailey, Miles and Stark. (2004).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and the Revitalization of Identities in Newcastle, Gateshead and the North East of England” .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0(1). pp.47-65.

- Smith, M. K. (2010). Cultural Planning for Urban Regeneration, LAMBERT Academic Publishing,
- Green, Nick. (1999). "The Space of Change: Artists in the East End 1968-1980" . Rising East. 3(2). pp.20-37.
- Griffiths, R., (1995). Cultural Strategies and New Modes of Urban Intervention. Cities 12(4). pp. 254-255.
- Evans. G.,(2005). Measure for Measure: Evaluating the Evidence of Culture's Contribution to Regeneration, Urban Studies. 4(5/6). pp.967-970.
- Evans, Graeme L. (2009). "From Cultural Quarters to Creative Clusters" . in: Legner, M.(eds). The Sustainability and Development of Cultural Quarters: International Perspectives. Stockholm: Institute of Urban History.
- Kearns, G. & Philo, C. (1993). Selling Places: The City as Cultural Capital, Past and Present. Pergamon Press.
- Landry, C.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London: Comedia.
- Kotler, P.; Haider, D.H. ; Rein, I. (1993). Marketing Places. New York: Free Press.
- Ward, S. V. (1998). Selling Places: The Marketing and Promotion of Towns and Cities, 1850-2000. London: E&FN Spon.
- While, Aidan. 2003. "Locating Art Worlds: London and the Making of Young British art". Area. vol. 35(3). pp.251-263.
- Zukin, S. (1995). The Cultures of Cities. Cambridge MA: Blackwell.

연구-2014-03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 전략 연구

발행인 | 조선희

발행일 | 2015년 2월

발행처 | 서울문화재단

연구·집필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문화재단

130-8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www.sfac.or.kr](http://www.sfac.or.kr)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전화 02.3290.7133 이메일 [suggest@sfac.or.kr](mailto:suggest@sfac.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